

# 文藝作品을 통해본 北韓社會

1989. 12



책임 : 金 允 植  
(서울 大 教授)

책임 : 尹 美 良  
(調査研究室事務官)

國 土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 冊을 내면서

이 冊은 北韓 實態調查事業의 하나로 추진된 「文藝作品을 통해 본 北韓 社會實相 分析事業」의 特殊課題 用役 結果報告 및 自體研究 結果報告書입니다.

文藝作品을 통해서 社會의 實相을 分析한다는 것이 北韓과 같은 統制社會에서 과연 妥當한 結論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北韓 文藝作品이 갖는 특이한 美學的 觀點이나 二分法的 思考 및 否定典型의 不在라는 현상으로 인해 研究者들은 研究의 全 期間동안 조심스럽고 치밀한 分析자세를 堅持하려 애썼습니다.

그러한 研究者들의 努力의 結果, 社會學的 視角에서 보다 더 엄밀한 方法論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一部の 否定的 評價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體系的이고 意識的인 努力으로 10年間の 北韓文學을 정리한 것은 向後 北韓文學과 北韓社會를 연구함에 있어 하나의 試金石이 되리라는 肯定的 評價를 내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北韓文學과 餘他 社會主義 文學과의 深層的 比較分析, 統制社會에서의 文學의 機能과 作家의 力量檢討, 肯定典型으로 묘사된 현상의 逆說的 裏面 分析 등이 앞으로의 研究課題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制限이 있음과 아울러, 同 報告書는 어디까지나 研究者 個人的 見解에 입각한 것이자, 統一院의 見解를 反映한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1989.12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차 례

책을 내면서

小説을 통해 본 北韓社會 ..... 3

(김윤식·서경석)

詩를 통해 본 北韓社會 ..... 55

(정효구)

北韓社會와 兒童文學..... 127

(윤미량)

# 小說을 통해 본 北韓社會

김 윤 식  
(서울대)  
서 경 석  
(서울대)

I. 序

II. 1980年代의 北韓小說

1. 1980年代 前半期の 소설문학
2. 1980年代 後半期の 소설문학

III. 北韓文學의 前提와 創作方法論

結論을 대신하여

## I . 序

이 글은 1980年代의北韓의小説에 나타난 제 양상들을 檢討하고자하는 目的에서 쓰여졌다.北韓의小説이 지니고 있는 特徵이나 그 性格을 檢討해보는 作業은 現在의 社會的 與件으로 보건대(가령 越北, 拉北作家들의 解禁이라든지 北韓小説들의 公開的 出版畚) 積極的인 態度로 임해야하지않나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한 目的과 態度下에서 이 글은 《朝鮮文學》에 실려 있는 短編小説들을 그 對象으로 삼았다.《朝鮮文學》은 朝鮮作家同盟의 機關誌로서 公式的인 北韓文學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고 특히 主體思想과의 연관성이 强하게 表現된 것들이어서 北韓文學의 特徵을 檢討하는데 效果的이고 有用한 資料로 생각된다.

이 글은 優先 作品의 內容紹介 및 分析에서 始作될 것이다. 이 部分이 이 글의 대부분을 차지할 터인데 그 理由는 北韓文學이 다루고 있는 諸般 內容들과 그것의 다루는 方式을 考察하는 것이 이 글의 主要 目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內容을 檢討하는 시각은 主體思想과의 관련성 및 그로부터의 이탈, 혹은 主體性을 獲得한 作品이 있다면 그 획득경로의 考察등에 맞추어질 것이다.

이러한 分析過程속에서 얻어진 結論은 마지막 “北韓文學의 前提와 創作方法論”에서 言及될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結論으로 밖에 到達하지 못할 것인데 그 이유는 實際 北韓文學의 전부를 읽을 余裕가 없었다는점 以外에도 전혀 다른 차원의 社會에서 살고있다는 점에서 文學享受의 重要한 要件인 文學에 대한 상이한 감수성이나 文學의 상이한 機能의 미진한 理解에도 原因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論理的 차원에서의 判斷은 可能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이 可能하다면 이 글의 目的에 부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II. 1980 年代의 北韓小說

1980 年代 초반에서 1989 年까지의 北韓 小說文學을 하나의 獨立된 文學 사적 時期로 區分할 基準은 存在하지 않는다. 1986 年度版 《朝鮮文學 개관》에 의하면 1961 年부터를 ‘社會主義의 전면적 建設과 社會主義의 完全勝利를 앞당기기 위한 鬪爭時期’로 놓고 1967 年 以後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徹底히 세우며 社會主義의 完全勝利,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를 앞당기기 위한 鬪爭時期’로 소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1967 年이란 1966 年 10 月 朝鮮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 행한 〈現情勢와 우리 黨의 과업〉이란 문건에서 보이는 指針의 시행 첫해를 뜻한다. 따라서 1980 年代가 1970 年代와 뚜렷이 區別되는 文學사적 시기는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적은 70 年代와 80 年代를 현상적으로 區分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우리 소설문학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형상창조는 1970 년대말 1980 년대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류만, 박종원,《조선문학 개관》,인동판, p. 296)

우리나라에서 전 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 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더욱 전면적으로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위책, p.295)

1973 年 4 월에 發表된 〈映畫藝術論〉을 基本的 指針으로 하여 1980 年代의 文學은 70 年代의 계속적 연장이자 強化임을 지적한 위 言及에서 우리는 70 年代와 80 年代의 부분적 차이점만을 區分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朝鮮文學》誌에 發表된 作品들을 檢討해 보면서 1980 年代 北韓 短編小說에 나타난 北韓社會 및 小說自體의 特性和 그 性格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이하 출전표시없이 發表年代만 表記된 作品들은 전부 《朝鮮文學》소재 作品임)

## 1. 1980年代 前半期の 小説文學

《朝鮮文學》은 朝鮮作家同盟 中央委員會 機關誌인 만큼 철저히 공적인 性格을 지닌다. 따라서 매달 실리는 短編小説들은 일정한 指針과 기준하에 수록된 것으로 보이며 內容도 일정하게 主題別로 配分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열순위도 어느 정도 存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順序를 대략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金日成, 金正日의 형상화
- 2) 社會主義 建設 現場과 주체형의 性格 형상화
- 3) 歷史的 革命鬪爭의 小説的 形상화
- 4) 南韓現實의 形상화

등의 順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순서로 作品分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1980年代의 前半期和 後半기로 나누어 分析을 시도한 理由는 小説 作品의 分포상 편의를 위한 것이며 1과 2가 部分的으로 다른 目次下에 쓰여진 것도 같은 理由임을 부기한다.

### 1) 金日成과 金正日에 대한 形상화

北韓의 小説가운데 首領이나 指導者의 모습이 登場하는 小説이 대단히 많음은 당연하다. 黨 文藝政策에서 이들에 대한 形상화는 黨문학의 基本要件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登場하는 계기는( 登場背景 ) 무수히 많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作品들을 살펴 보도록 하자

〈작전의 시작점〉(김정민, 83. 1), 〈함박눈〉(김용락, 83. 1), 〈歲月〉(배민옥, 84. 1), 〈거창한 흐름〉(리장후, 84.4), 〈휴식〉(림재성, 84.10), 〈달비〉(박현, 85.4), 〈매혹〉(김형지, 85.8), 〈기발〉(서봉두, 85.9), 〈세월을 넘어〉(김익철, 85.10), 〈기쁨〉(김수범, 85.10) 등의 作品들이, 首領의 登場이 作品의 큰 축으로 되어 있는 作品들이다. 그 內容을 分類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자녀를 잘 보살피는 首領의 恩惠(함박눈), 祖國解放의 전사로 人民을  
키워준 首領(작전의 시작점, 거창한 흐름), 자신을 돌보지않고 人民에 헌  
신하는 首領(휴식), 人民의 血肉을 찾아 주며 하나하나의 외로움마저 함  
께 느끼는 首領의 마음(달비), 과거 首領을 위해 헌신했던 자를 오랜  
후에도 잊지않고 記憶하는 首領의 마음(매혹), 日本 僑胞의 記憶에 남는  
首領(기발), 農民을 보살피는 首領(歲月을 넘어), 한 전사의 祖國에 대  
한 충실성과 首領의 기쁨(기쁨) 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이러한 作品에서 형상화된 金日成像의 特徵은 ‘사랑으로 충만한 人民의  
“首領”’이며 작은 오류는 늘 용서하는 관대한 人物로 그려져 있다는  
점에 있다. 이 점은 金正日像과는 좀다른 양상이다.

〈歲月〉은 主人公 장일환이 50년전 항일 鬪爭過程의 記憶과 그 가운  
데 首領의 活躍의 추억 속에서 다시찾은 북천항이야기이다. 장일환은 首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言及을 듣고 首領에 대한 尊敬心을 돈  
독히 한다.

장일환 동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그 어렵던 시련의 나  
날에 나라를 찾겠다고 동분서주하던 동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나라  
를 찾았는데 함께 모여 밥 한술이라도 함께(---)(p.45)

그러나 이러한 像과 약간 區別되는 作品으로 〈誕生〉(김수경, 83.4)  
을 들 수 있다. 이 作品은 땅개암(기름나무)栽培에 成功한 主人公 송현  
이가 다른 곳에서 이미 그 나무가 栽培에 成功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15년동안 자신이 研究한 이 나무에 관한 자신의 論文 및 資料를  
그 곳에 보내려 결심한다. 農業部門 指導 일군인 리규성은 이러한 事實에  
아랑곳하지않고 그녀의 栽培地를 실험지로 쓰려 한다. 이때 金日成이 이  
事實을 알고 調査해 본 結果 그쪽 作物이 송현이의 증자였음을 알게된다.

그녀의 恨과 눈물, 그리고 비당원인 그의 헌신적인 黨性에 金日成은 자상한 보살핌으로 對應한다. 그러면서 그는 리규성에게 성과를 보지 말고 人間을 보아야함을 충고하면서 다시 송현이에게는 다음과 같이 言及한다.

그런 보수주의자, 소극분자, 인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관료주의자들과 왜 싸우지 못했소. 창조도 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요, 인민을 위한 일인데 왜 투쟁하지 못했소. 싸우기 힘들면 우리를 찾아오기라도 해야 했을 것이 아니요. (p.22)

이러한 言及이 金日成의 형상화 過程에서 드러나는 경우는 特別한 경우라 할만한데 이러한 役割은 주로 지도자동지로 호칭되는 金正日에 의해서 遂行되기 始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金正日에 대한 형상화는 점차 分量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다.

金正日에 대한 형상화는 주로 指導와 실제 삶에 있어서의 세심한 배려로 特徵지워질 수 있다. <아끼시는 마음>(박현, 84.1), <초점>(안용근, 84.2), <다시 쓴 논문>(리대상, 84.3), <대지>(현승걸, 85.2), <영생>(김영근, 85.2), 등이 그러한 內容을 담은 作品들이라 할 수 있다. <초점>은 어느 선광장의 廢水가 마을 사람들에게 被害를 주지 않도록 그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作業에 몸소 지도차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作品이다. 이 作品에서는 매사를 人間中心으로 생각하라는 指針을 드러낸 作品이라 할 수 있다. 이 행위에 대해 崔명섭은 이렇게 되뇌인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 그이는 인간사랑의 결정체이다. 그이는 인민들을 위한 일에 돈을 생각지 않으시며 심지어 그 가치도 무시하신다.(---) 언제나 그이의 사색의 중심에는 사람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p.20)

<아끼시는 마음>은 관리들의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金正日이 몸소 批判

하는 內容이다. 地方産業 總局長인 주학민은 指導者의 부름을 받고 만나 支配人 서운병 해고건에 관한 討論을 벌인다. 金正日은 한 人間의 運命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표하면서 局長의 가벼움을 나무란다.

〈다시 쓴 논문〉은 主人公인 軍事敎員 정창훈의 論文에 대해 金正日이 칭찬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戰法도 서구의 것을 모방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特殊性에 맞게 주체전법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지〉는 外交일군 강세욱이 出國하려 하나 그의 父 姜老人은 祖國땅을 떠나지 않으려 함을 알고 指導者가 몹소 이들을 위로하는 內容이다.

〈영생〉은 音樂藝術部分에서 늘 指導生活을 해온 金正日이 \*\* 藝術團의 前指揮者이며 지금은 故人이된 서재영을 그리워하다 그의 아들 상철의 卒業演奏會에 參席하여 재영의 옛모습을 回想하는 內容으로 되어 있다. 이 藝術團의 現 首席指揮者인 박경호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예견하여 行動하는 金正日에 대해 감격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재영동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재영동무와 우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한걸음 두걸음 이끄시여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해주시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오늘은 또 상철이들을 키워주시고 계시오. (p.31)

이상에서 首領과 指導者에 대한 형상화 樣相을 檢討해 보았다.

한편 김정숙의 어머니로서의 자애로움과 革命的 헌신성을 형상화한 作品도 적지않다. 〈선아〉〈최상순, 83.2〉는 김정숙이 “인민의 자유를 찾기위해서 손에서 총을 놓을새도 없이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p.20)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 2) 主體型 革命家의 형상화

주체형의 革命家를 형상화하는 作業은 항일 革命鬪爭을 반영한 小說속



에서 集中的으로 다루어지고있다. <충성의 한길에서>가 그 代表的인 作品이라 할 것인데 근자에 와서 항일 유격대원들의 性格 형성의 思想的 特徵을 主體思想의 시각으로 새로이 進前시키는 作業의 하나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文學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항일 혁명투쟁을 반영한 소설작품의 창작은 이 시기에 와서 항일 혁명투사—유격대원들의 성격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사상정신적 특징을 전형화하는데 주되는 창조적 관심이 돌려짐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혁명전통주제의 소설에서는 주인공—혁명가들의 성격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이 핵으로 뚜렷이 부각되었고 그들의 혁명적 세계관형성 과정이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졌다.

《조선문학개관》(1986年版, 인동, p.300)

1980年代 전반기에 이러한 傾向과 관련하여 創作된 作品 가운데서 몇가지를 檢討해보도록 하자.

<수호자들>(김명익, 83.3)은, 戰爭當時 負傷하여 後送되었던 박성국이 戰爭能力 喪失者로 判定되었으나, 이를 감추고 再入隊하여 지뢰밭 通過의 선봉으로 수훈을 세운다는 이야기이다. 이 部隊의 中隊長 오상호는 後送된 적이 있는 人物로 이들을 모두 崔정임 軍醫가 治療하였으며 그녀의 눈에 비친 이들의 主體的인 思想과 獻身性이 그녀를 감동케 하기도 한다.

<어머니>(김명익, 84.4)는 母性愛와 主體的 人間으로서의 鬪爭이 어떤 關係하에 있는가를 形象화한 作品이다. 日帝下에 차목수는 地主집 工事に 動員되었다가 負傷을 당한다. 이후 解放이 되자 그 地主의 아들은 치안대에 들고 치안대 建物を 保修하라고 命令하나 이때는 이를 거절한다. 차목수는 이미 구봉산 유격대의 일원으로 連絡의 任格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목수가 죽음을 당하자 그의 母親과 순덕이가 連絡 任務를 대신하

나 母親은 이내 발각되어 죽는다. 이때 순덕이는 이렇게 느끼게 된다.

이 순간 순덕은 가슴에 억센 기둥같은 믿음이 들어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머니의 참다운 사랑이란 자식들이 수행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대한 헌신적 사랑일 때 고귀한 것으로 된다는 진리였다.(p.77)

家族간의 사랑과 革命事業이 統一되어야 함을 強調한 作品이다.

한편 이러한 人物들에게 勳章을 수여하는 일 자체도 重要的 일이거니와 이 일은 또한 獻身的으로 숨어서 遂行해온 한 중대장과, 이 중대장이 남기고간 위훈자 手帖을 무사히 傳達하게끔 도움을 주다가 죽은 한 처녀에 대한 훈장내신서 形式의 〈훈장내신서〉(조승찬, 84.4), 土地 改革當時 받은 土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耕作해야한다며 戰爭가운데서도 耕作을 중단치않은 한 노인과 이 老人을 위해 더 열심히 싸우려는 중대장 철우의 이야기〈불씨〉(김영식, 85.1), 키우던 고기를 敵軍에게 빼앗기기를 거부하며 放流해버린 윤보영감의 이야기 〈윤보영감〉(김영선, 84.2) 등은 戰爭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小說的 형상화들이라 할 것이다.

戰場에서 戰鬥力의 強化만이 아니라 동지애와 人民에 대한 사랑을 強調하는 경우도 存在하는데 〈뜨거운 겨울〉(림종상, 84.3)이 그것이다. 송경호는 自由主義的 성향이 있기는 하나 의협심이 강하고 快活한 軍人이다. 軍團長의 命令에 따라 송경호는 적정탐색차 자기집 부근으로 가게되는데 중대장 엄학철은 그가 못미더워 따라나선다. 집에는 경호의 동생이 어려운 처지로 혼자있었는데 함께 入山하려는 것을 경호는 반대한다. 이에 그대로 歸隊하자 軍團長은 중대장을 몹시 나무란다. 혁명동지에 대한 믿음과 의리가 없는 指揮官은 指揮官이 아니라는 軍團長의 질책에 중대는 경호의 누이를 구하려 재출전한다.

이러한 作品들은 이미 지적했듯이 日帝下나 戰爭期間동안의 시간적 背景

을 가지고 현재의 고양된 주체적인 시각에 의해 쓰여졌다. 따라서 자발성을 중요시하는 建設現場 소재의 小説들과는 달리 실제의 敵을 앞에 둔 危急한 狀況속에서의 적대적 세력에 대한 적개심이 作品의 동력을 이루며 이 적개심은 思想的 깊이와 등가를 이루는 것으로 된다.

### 3) 社會主義 建設現場의 形象化

現在の 時點에서 北韓社會에 나타나는 諸 現狀 및 問題點을 가장 많이 包含하고있는 소재가 바로 이 部分에 該當될 것이다. 生産力 제고를 위해 努力하는 많은 人物들과 이들을 둘러싼 여러문제들의 形象化가 여기에 該當되며 이러한 시도는 産業 各部分 - 공업, 광산업, 어업, 임업 기타 - 에 걸쳐 그 소재영역에 걸쳐 進行되고 있다. 또한 思想, 文化, 技術의 기치아래 당중앙에서 파견된 3대 혁명소조원들의 活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도 이 部分의 形象化에서이다. 여기서 우선 소조원들이 등장하는 作品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a. 소조원의 形象化

<첫 生活에서> (백남룡, 83.2)는 개발의욕이 떨어져서 “심장이 차가워진” 한 工場의 직장장과 그 직장장이 以前에 開發한 콘베이어 벨트를 개량하려는 보이라 기관장과의 알력을 그린 것이다. 北韓의 現代社會를 다룬 대부분의 소설들이 그러하듯이 이 소설에서도 人物들간의 갈등은 오해 내지는 “미처깨닫지 못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때 어떤 계기만 생긴다면 이 갈등은 당연히 發展的 方向으로 풀어지도록 構造化되어 있다. 그 계기란 이 소설에서는 3대혁명소조원의 지도-개입이다. 소조원이 개입으로 우병만은 이렇게 반성할 수 있었다.

우병만은 가슴이 쓰리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일을 잊지않는다는건 그 시절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라던 소조원의 말이 귓가에 울려왔다.

( --- 심장이 차졌됐구나 )( p. 43 )

이렇게 오해나 관료적 성향에서 비롯된 갈등을 소조원의 지도개입을 통해 解決하는 結末을 지닌 소설들은 이 밖에도 여러 편을 들 수 있다. <새 일터> (김정남, 84. 11)는 위의 소설과 같은 構造로 되어 있다. 직장장 박병태는 기중기 대신 콘베이어 벨트를 쓰자고하는 중대장 오철수의 建議를, 實驗의 繼續的 失敗를 理由로 거절한다. 이때 소조원 정인범은 몸소 벨트에 몸을 실어 잘못된 部分을 發見해내고 結局 試驗可動에 성공케 된다는 이야기이다.

<별들이 찬란한 밤> (김승도, 83. 5)은 鑛山의 勞働者들이 쓸 고속굴진기를 開發하려고 努力하는 광산설비기사 장태호의 이야기이다. 장태호는 새 굴진기가 자꾸 失敗하게되자 이를 포기하려 한다. 체면도 있거니와 費用으로 因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다. 이에 소조원 박성규는 우선 두 가지 스펙을 염두에 두며 태호를 비판한다. “모두다 80년대 속도 창조 예로”와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기치를 염두에 두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수령님의 품속에서 대학을 나오고 잔뼈가 굵은 우리 인텔리들이 어떻게 자기의 리익과 안일을 탐내며 속수무책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로동계급까지 무시할 수 있습니까 (p. 53).

以上の 소설에서 알 수 있는 事實은 소조원의 介入을 통해 우선 관료주의적 성향을 批判하며 둘째로 무사안일이나 이기심을 추구하려는 傾向을 批判한다. 批判이나 指導의 方式은 소조원 自身이 몸소 실천을 통해 감명을 주거나 충고를 통해 상대방의 內面에 存在하는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建設現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이를 克服하고 새로운 段階로 접어드는 양상을 形象化한 作品들 중에는 以上에서 보아왔던 소조원의 登場과 그를 통한 問題解決方式과는 달리 現場속에서 獻身的으로 일하고 있는 英雄的인

勞働者와 農民像을 부각시키는 境遇가 많다. 이 境遇에도 이러한 社會속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갈등의 解決過程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삶을 빛내이라> (정해경, 83. 2)에서는 炭鑛地區責任者인 “내”가 運命재노인의 獻身性을 되새기는 이야기로 構成되어 있어서 갈등없는 作品의 전형이며 (b - 1), <불안개 흐르리라> (주동섭, 84. 3)는 北韓의 단편소설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대립구조를 지니고 있는 作品이다 (b - 2).

“통일호” 굴착기운전공 차범식은 工事場의 기둥을 새로이 세우는 實驗에 도전하나 繼續 失敗한다. 기술참모부장인 김계필은 포기할 것을 권고하지만 범식은 끝내 成功한다. 나이가 들고 높은 責任者의 자리에 있으면서 커다란 變化에 對해서는 조심성을 보이는 김계필과, 젊고 推進力이 있으며 開發意慾이 높은 차범식과의 갈등은 이 作品의 기본축이 된다. 이러한 葛藤은 위에서 살펴본 첫번째 境遇처럼 소조원의 介入을 통해 解決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돌격대원들의 실천력과 成功으로 結局 전자의 부류가 반성하므로써 解決된다. 김계필이 반성하자 차범식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내가 왜 이려고만 있는가? 그렇지않아도 건설이 얼마나 지연되었는가?  
 --- 빨리 시험을 다시 해야한다. 오늘이라도 고속도 기계화 설비를 완성하여 ‘80년대속도’로 내달리는 장엄한 건설대오 속에서 발걸음을 맞춰야할 게 아닌가? (p.24)

肯定的인 人間이 自身の 能力을 최대한으로 發揮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돌격과 비상전투 등의 무리한 강조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지닌 作品들도 存在하는데 그 警告의 內容은 下部의 勞働者들에 對해 동지애와 믿음을 지녀야한다는 것이다. <막장의 노래> (백행문, 84. 5)가 그러한 作品인데 炭鑛에 새로 부임해온 신임소대장의 무리없는 指揮를 돕기위하여 깁장인 내가 그에게 충고하는 內容이 이 作品의 주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소대원들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도 함께 불렀던가, 은순의 말대로 갯에 들어서기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서는 소대장으로 일해왔던가.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돌격’이요 ‘비상전투’요 하고 목이 쉬게 웨치기전에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나는 이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p.53).

現場에서 일어나는 여러 問題들에 대해 어떠한 解決方式을 찾는가하는 것이 作品들이 지니는 핵심이라 한다면 b項目에서 以上 지적했던 것들이 가장 基本的인 形態의 作品들이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부류들의 作品들을 各各 檢討해 보기로 하자.

#### b. 주체형의 建設者들(1)

勞働者나 農民의 自發的이며 獻身的인 자세를 주인공을 통해 드러내주는 作品으로 우선 <랭골에 핀 꽃> (김영선, 83.2)을 들 수 있다. 農業科學研究所 연구사인 박정민은 랭습지에서 벼모를 키우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떠나가려했는데 이 마을에서 벼모를 키워보려는 한처녀의 모습에 감동되어 주저앉게 된다. 이 처녀의 모습에 대한 形象化와 그로 因한 研究士의 감동이 이 作品의 內容이 된다.

<나는 어찌서 저걸 보지 못했단 말인가> 정민은 처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실패에 짓눌려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디디고 일어나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는 처녀, 자기고장의 높고있는 땅을 부여안고 몸부림치며 자기를 깡그리 바쳐가는 처녀... 저 뜨거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지향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p.74).

1983年 1月號 조선문학지의 권두문이 <농촌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우리당의 전형화방침을 정확히 관찰하자> (류만)라는 것이었는데 그 內容의 文學的 表現이 바로 이 作品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미 說明했던

〈탄생〉 역시 이 유형의 作品에 속한다. 農業 生産力의 高度化를 爲해 努力하는 송현이의 모습이 그러한 要求에 부응하는 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후회〉(손철남, 83.5)나 〈밤에 본 초상〉(림재성, 83.5)도 各各 工場과 군대에서의 獻身的이며 肯定的 인물들인 차봉두와 곽홍규를 그린 作品으로 역시 이러한 인물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肯定的 人物은 北韓에서는 주체형의 革命家여야한다고 못박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人物의 形象化는 여러 分野에 걸쳐 있다. 鑛山의 診療所에서 일생동안 患者를 보살피고 그들을 걱정해주는 리이섬 여의사의 이야기인 〈알려지지 않은 진료소에서〉(탁숙본, 84.7)는 醫學分野의 肯定的 주인공을 代表한다고 할것이다. 그녀에 對한 소감을 軍병원 外科과장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의사에겐 기술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요. (...) 나는 이것을 선생이 만든 건강관리부를 보면서 다시한번 심장으로 느꼈소(p. 42).

식료공장의 전력감독원인 순희의 嚴格한 監督과 결점발견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몸소 改善하려는 獻身性 속에서 젊은이들의 樂觀的 未來를 그린 〈잊을수 없는 겨울날〉(김명익, 85.1), 個人의 영예때문이라 아니라 ‘당이 要求하기에’ 鑛石을 캐내고있는 유색금속광산의 勞動者들의 이야기 〈80년대사람들〉(조재흥, 85.4), 80年代의 새일군인 ㅎ열차 수리중대의 수련 이야기 〈령길위에 핀 꽃〉(85.4) 등에서는 個人의 獻身性과 자발성이 당의 指導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점과 革命의 세대교체를 암시하고있다. 세대교체의 問題는 北韓의 80年代의 단편소설의 구조속에서 암암리에 드러나고있지만 〈시간이여 우리를 따라오라〉(김길환, 85.6)에서 直接的으로 언급되고있다. 당비서인 신동혁이 기계련합기업소의 연공 박춘갑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아바이, 그리고 더 중요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세대가 다른 세대에 혁명의 바통을 넘겨주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p. 38).

당의 重要性에 대해서는 위의 〈80년대 사람들〉 以外에도 〈령길을 따라〉 (석유꾼, 85.5)가 있다. 고현광산의 책임기사인 김경준이 노상에서 만났던 한 老人의 아름다운 行動에 의해 받은 感動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크나큰 사랑속에 안겨지는 믿음! 그것이 얼마나 큰힘으로 되는 것인가. 인간의 재능이 활짝 꽃피워나도록 뜨거운 창조적 정열을 불러일으키는 (당의 一 인용자) 그 사랑속에 믿음은 두터워지고 믿음속에 인간은 자기도 몰라보게 성장하는 것이다(p. 63).

肯定的 主人公의 登場 혹은 비약의 계기를 당의 存在로 상정했다면 다음 作品 〈꽃〉은 이와는 다르다.

作品 〈꽃〉 (오광호, 84.9)은 공장지대에서 일하는 늙은 연공작업반장의 이야기이다. 그가 새로 시도하려고 하는 조립공정의 새로운 實驗에 대해 스스로 주저했지만 한 소녀의 기대에 감화되어 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현실과 비약이 나래치는 5개지구전선” 특집인 이 作品에서 이 老人은 스스로 주저했던 것을 人民의 기대를 매개로 하여 수행결심을 하게된다. 이 매개가 “스스로 힘을 낸다”거나 강한 思想的 힘의 發現을 매개로 表現되는 다른 作品들과는 다른 이 作品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類型的 소설 속에서는 단순히 獻身的이며 英雄的이라는 점만을 이야기하고있지는 않다. 獻身的이거나 뛰어난 努力者들의 一般的 生活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必要하고 또한 그래야만 리얼리티의 面에서 빛을 볼 수가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점때문에 연애, 結婚, 그리고 필수적인 家族에서의 一般的 삶과의 關聯 속에서 形象化 되어야할 必要性이 생긴다. 이러한 必要性은 공개적으로 要求되기에 이르는데 北韓文學에서 보기도볼게



批判의 목소리로 쓰여진 다음 글이 그것이다.

제기한 문제성의 독창적인 해명, 이것이 바로 이 단편소설이 달성한 성과의 하나이다. 재삼 이야기 하건대 생활에 대한 깊은 탐구가 없이 흔히 이러저러한 생활현상을 집계하고는 도식적인 선전으로 종자를 해명하려는 편향이 이 소설에는 없다(조선문학, 85.9, p.30).

85年度 6월에 發表된 〈살구꽃 필 무렵〉(차순명)에 對한 단평으로 쓰여진 〈성격논리의 생활적 타당성에 대한 생각〉(리상복)에서 언급된 바로 그 편향이라는 것이 北韓 文學에서 現在 “흔히”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은 인상적이기까지하다. 그렇다면 이 〈살구꽃 필 무렵〉이란 作品은 어떠한가?

主人公은 주일유치원 교양원인 옥임이다. 주일유치원이란 출장이 잦은 父母들을 위해 1주일간 아이들을 맡아 돌보아 주는 곳이다. 여기에 꽃분이 맡겨진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그의 아버지만이 도자기공장 직장장으로 일하고 있다. 꽃분이의 母상실감을 옥임은 적극적인 보살핌과 사랑으로 克服시켜 주는데 成功한다. 가령 꽃분이부친의 빨래도 그의 집에 가서 해줌으로써 꽃분이가 마치 옥임을 母마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옥임이 떠나야했는데 옥임은 이내 이를 포기한다. 꽃분이에 대한 애정과, 또한 直接的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꽃분의 아버지에게 대한 연모같은 것이 마음속에 자리잡고있었기 때문이다. 이 作品은 옥임의 變化의 계기가 일상적인 삶속에서 왔다는 데에서 위의 〈꽃〉과도 비슷한 構造를 지닌다. 이러한 問題를 푸는 可能性으로 연애, 家族 等の 問題와 결부된 肯定的 人物의 形象化를 들 수 있다.

〈박토신 우에서〉(박숙희, 84.1), 〈첫나들이〉(김영길, 84.4), 〈운명의 길〉(박윤, 86.6), 〈기타를 들고 온 청년〉(김동호, 84.7), 〈화력〉(조대환, 85.1) 등이 그러한 形象化와 關係된 作品들이다. 〈박토

신 우에서 >는 금화노천탄광에서 일하는 은아와 최운의 연애감정과 이와 비례하여 고양되는 生産意慾을 이야기하고있다. 따라서 이 作品은 보다 단순하고 공식적인 느낌을 받는다. 反面에 結婚에도 불구하고 간석지 建設現場으로 바로 찾아온 최대걸의 “80년대 속도에 대한 헌신성”을 內容으로 하는 <첫나들이>는 연애나 結婚과 生産과의 關係를 <기타...>와는 반대로 파악하고있는 것이 된다. 生産現場과 일상문제를 이듯처럼 무매개적으로 形象化한 作品과는 달리 이 關係를 “같은 리상의 소유자이기에 결혼하며 그 리상이란 갑문의 건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타를 들고 온 청년>은 이 關係解決의 고충을 거꾸로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화력>이나 <운명의 길>은 연애나 結婚의 問題와 生産에의 獻身性 또는 당에의 충성과의 關係를 보다 心理的인 世界속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화력>의 主人公은 한 炭鑛의 책임운전공인 로재수아바이이다. 그 밑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는 김정무와 압축기운전공 라옥실은 愛人關係에 있다. 이들을 보살피며 生産도 연애도 함께 근심해주는 로재수의 存在가 다른 作品과 구별되는 이 作品의 特徵이라 할 것이다. <운명의 길>은 당에의 충실의 계기가 다름아닌 한 여인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다른 作品들과 구별된다. 심진 博士가 내게 들려주는 림운성의 이야기가 그것인데 운성은 戰爭中에 고향친구이자 愛人인 한미랑이 적지에서 活動中 사망했음을 알게된다. 그녀는 고향 땅에서 새로운 감자를 開發하는 것이 꿈이었다. 운성은 미랑이 죽은 그 자리에서 한줌의 흙을 집으며 바로 그사업에 自身の 一生을 바칠것을 다짐한다.

그렇다. 청춘시절의 사랑은 한 순간이어도 이 녀자가 생명을 바친 거대한 어머니 조국에 대한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귀중한 전우가 그토록 바라던 아름다운 꿈을 북방의 고향땅에서 실현하자 ( p.48 ).

일상적인 삶이나 삶 속에서의 계기를 통해 肯定的人物이 形象化 되는 作

品들을 檢討해 보았는데 이는 구체성을 獲得하며 文學의 効用性을 최대한 確保하려는 努力으로 評價된다.

**b. 주체형의 建設者들(2)**

단편소설을 통해 北韓社會를 파악한다는 명제는 상당한 장애에 부딪힐 가능성이 存在한다. 독서량의 한계가 勿論 첫째 이유이지만 Engels가 발자크에 대해 이야기했던 완미한 의미에서의 리얼리즘 소설개념이 여기서도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北韓에서의 創作方法이나 文學理念의 性格이 우리가 一般的으로 익숙해져있는 現實主義( realism )와는 다른 것으로 理解된다는 것인데 가령 종자와 形象에 대한 論議와 그 思想藝術性에 관한 北韓나름의 特徵的 이해속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狀態 속에서도 그 社會에서 發生하는 問題에 對한 지적이 文學속에 形象化됨은 勿論이다. <단편소설에서 사회적 문제성을 더 예리하게 제시하라> (명일석, 84.1)에서도 이 問題에 대해 公開적으로 形象化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問題가 北韓 소설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肯定的인 人物과의 대립을 통해서인데 이러한 부류에서 批判하고 있는 代表的인 問題들은 官僚주의 태도에서 오는 소심함, 個人的인 이기심, 나태함, 비인민적태도, 信念不足 等이다. 이제 이러한 葛藤의 모습을 檢討해 보기로하자.

<처녀가 받은 편지> (허인수, 84.5)는 理論과 실천이 통일되어야함을 강조하고있는 作品이다. 여기에 드러나 있는 理論과 실천에 대한 견해는 이러하다.

연구사 동무, 어째서 동문 자꾸 안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 현실은 이론보다도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천속에서 확증된 이론만이 진리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p.50 ).

여기서 드러나는 理論과 實踐의 無매개적 關係는 北韓文學의 特徵이라해도 될것이다. 그러한 公式的 立場으로 상대방을 批判하는 作品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한편 관료주의에 대한 批判이 담긴 作品들은 의외로 많다.

〈귀결〉(김병춘, 84.6)은 이제 經濟指導委員會 부위원장이 된 主人公 한경수의 이야기이다. 그가 높은 자리에 앉자 습관적으로 處理하게되는 일들이 밑의 사람들에게 많은 混亂을 주었다는 점을, 이 作品은 식료공업에 獻身하고 있는 윤광순 부부와의 대비를 통해 보여주고있다. 한경수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勿論 광호의 獻身的인 모습이 계기가 되어서다. 예외적인 作品을 除外하면 이러한 批判의 內容을 담은 作品에서 批判의 대상이 되는 人物은 언제나 반성의 계기를 갖고 變化하게되는 것이 特徵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作品은 관료주의 批判의 전형적 作品이라 할 수 있다.

〈일주일간〉(윤경주, 84.8)은 기사장 리인철의 투항주의에 대한 批判이 그 內容이다. 여기서 투항주의라 함은 새로운 生産機械가 현실여건상 사용불가능하다고 이내 使用을 포기해버린 그의 태도를 두고하는 말이다. 그러나 당비서와 젊은 技術者들은 이에 대해 批判하고 새 機械使用에 成功한다.

이기심이나 個人的인 진로문제와, 生産性向上이라는 問題와의 葛藤 속에서 이기적 欲望을 批判하는 內容으로 〈방수 아버지〉(전동철, 84.6)를 들 수 있다. 운수직장 선로공인 류성이는 틈틈이 공부하여 大學에 갈 생각을 하나 방수아버지가 이동작업조 편성시 그를 방조자로 지목하자 大學入學의 지연때문에 실망한다. 이에 대해 방수아버지는 이렇게 그를 批判한다.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고 쉬운 곳부터 찾기시작하면 대학을 나온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살려거든 깨끗하게 살아야지. (….) 그게 노동계급의 일본새를 배운다는 건가? 그래가지곤 뽀 값도 못할줄알라구(p. 75).

이러한 이기적 태도 批判은 〈철새는 날아가고〉(조동서, 84.9)에서 구체적인 계기를 지니고 제기되어 있다. 都市의 大學校를 마치고 시골학교교사로 자원해온 박은선은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두고 “2年짜리”라고 부르는 것을 듣는다. 그 말에 대해 이 學校의 前 教師인 미옥이 說明을 해주는데 은선이 예쁘니까 신랑감이 2年만에 생기리라는 것, 그리고 그녀가 2年만에 이 마을 떠나리라는 것,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철새”라고 부른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作品이 지니는 特徵的인 점은 우선 은선이가 미옥이처럼 이 마을을 떠나가지는 않으리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에 있다. 그 계기란 통신선로 감시원 차영길의 存在에서 비롯되는데 그와 은선의 對話는 이 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저 통신선을 위해서 이 고장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래 난 약속했지요, 여기 남기루 …” “누구하고요?”

“누구랄게 있습니까. 이 마을 아이들과 약속하였지요”

( …… )

“하긴 미옥선생은 아이들과의 약속을 한갓 장난으로 여기고 떠났으니까 …… 난 아이들과의 약속은 그 어느 약속에 못지않은 신성한 것이라 생각되더군요. 그건 바로 미래와의 약속이기때문이지요”

( …… )

은선은 자기도 모르게 흥분되었다(p. 31).

위에서 드러나듯 變化의 契機가 아이들과의 約束을 잘 지켜야 한다는 영길의 말때문이었다는 점이, 당성이나 自身에 대한 嚴格한 통제를 강조하는 다른 作品과 구별되는 側面이다. 두번째로는 은선과 대비되는 存在로 미옥이 있는데 그녀는 여전히 전과 同一하다는 점이다. 그녀의 無變化는 이기심의 恒상적 存在를 뜻하는 것이기도한데 이 점이 다른 作品들과 區別되는 점이다.

이러한 이기심에 대한 경계는 北韓 社會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거꾸로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問題는 勿論 家族生活에서도 發生한다.

〈그해 봄〉(리복근, 84.7)이 그러한 作品인 바 아내가 남편의 活動에 대해 품게되는 가정이기적 태도에 대한 批判이 이 作品에 表現된다. 남편이 自身の 연구업적을 포기하고 勞動者인 차정수가 開發한 새 기계에 모든 努力을 투여했을때 주위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인 박순덕도 남편을 이상히 보았으나 그의 남편의 獻身的 당성에 감복되어 이렇게 되뇌인다.

넌 못난이야. 경망스러운 인간이야.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 자기 혼자만 독차지하고 화려하게 꾸며보려고 한 바보였어. 난 남편의 그림자도 못돼! ... (p.54).

家庭에서 흔히 생기게 되는 이러한 利己的 欲求에 대한 批判은 教育問題나 結婚 問題에까지 걸쳐져있다. 〈아들이 커갈 때〉(송학승, 84.9)는 화학공장 지배인의 아들의 利己的 모습과 그 克服過程을 보여준 作品이다. 大學에 進學하려는 그의 미래상은 이리하다.

야금술을 연구하게되고 ... 그럼 몇명의 연구사들이 방조자가 될 것이다. 연구사들과 못사람들의 존경과 신뢰속에 나에게 성공에 대한 축복을 보낼테지. 점잖게 무게있게 머리숙여 그들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겸손해야지. 그건 좀 거만해 ... (p.58).

이러한 아들이 工場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된다는 決定이 내려지자 실망하나 한 作業공정에서 그의 英雄的인 行動, 그의 부친의 부성에 등의 契機를 통해 이를 곧 克服한다. 그러나 大學에 대한 이러한 미련은 여러 作品에서 반복되어 드러나기에 이 問題는 北韓 社會의 큰 고민중의 하나로 보인다. 〈아들 問題〉(김문창, 85.3)에서는 2-3年間 鑛山 경험을 시켜 아들의 대학추천을 유리하게 해보려는 광산국장과 이 경험조차 거부하는 아

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태도에 대한 분노의 表現이 〈검은 손〉(허인수, 85.9)인데 딸의 남자 친구가 “아직은 굴진공이지만 大學을 나와 硏究部에 배치받고 몇몇이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자 이에 대해 분노하는 한 탄부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利己的인 問題는 結婚時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설정에도 작용함을 〈송가〉(림재성, 85.1)에서 確認할 수 있다.

한편 勞働者의 나태해지려는 傾向에 대한 批判은 〈금지〉(김관일, 85.3)와 〈내가 만난 청년〉(오광호, 85.12)에서 볼 수 있다. 〈금지〉에서 “벌써 퇴근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네, 뭐 로동자야 이 맛인걸”이라고 대답하는 勞働者의 모습에 대한 批判이 그러하고 後者의 作品에서 경민의 行動이 그러하다. 特히 이 作品은 경민과 영준의 대립을 통해 여러 問題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민은 돌격대에 가입한다고 支援했으면서도 회의 분위기상 그냥 支援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실은 기사가 될 꿈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合理的이라는 것이다. 또한 돌격대 期間을 끝내고 大學을 進學하려는 영준에 대해 돌격대 경력자체를 부러워하며, 結婚도 방이 세칸이나 되며 대우가 좋은 무역 代表部 職員인 처녀와 함을 영준에게 은근히 자랑한다. 合理的인 사고를 하는 경민과 自身의 損害에도 불구하고 繼續 돌격대에 남는 영준 중 作家는 영준을 택하고 있지만 소설에 경민의 存在自體가 登場함을 고려해보면 그에 대한 社會的 선호가 높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以上에서 社會的 독소들이 形象化되고 그에 대한 批判을 目的으로 쓰여진 소설들을 檢討해 보았다. 한편 이러한 批判에 대한 反批判도 약한 것이 아니어서 〈태풍〉(양의선, 85.7)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인다.

책에서 따온것과 같은 그런 명구들을 아무데나 망탕 가져다 붙이면 안되오  
(...) 그런 뜬소리만 말고 현실적인 대책안을 말해보우(p. 33).

그러나 이러한 반비판적 傾向에 대한 批判은 또한 매우 강한 톤으로 수



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풍년숲> (김명희, 85.3) 같은 作品은 이러한 부정적 傾向이 政治的 宗派主義의 影響이라고 批判할 정도이다.

#### 4) “조국애” 혹은 조국통일의 問題와 “남조선”에 대한 形象化

조국애나 통일의 問題에 대한 形象化는 위에서 說明한 당과 수령에 대한 充實性을 조국애와 동일시한, 北韓 內部를 背景으로하는 소설들을 除外하고는 대개 日本을 背景으로 하거나 韓國을 背景으로하여 전개된다. 日本이 背景이 된다는 것은 日本에 사는 동포들이 남쪽과 북쪽을 비교하여 북쪽을 선호한다든지 그곳으로 돌아가서 살고싶다는 염원, 金日成에 대한 흠모등의 形象化를 의미한다. 南韓에 대한 形象化의 境遇 역시 이러한 통일 문제와 연관되어 進行되고 있는데 남한 인민경제의 낙후성 강조와 자신들의 통일운동노력 등의 形象化, 통일운동 세력에 대한 南韓 당국의 억압 등이 주내용을 이룬다 할 것이다. 이러한 作品들을 살펴보자.

<향기> (리호인, 84.5)는 日本 조총련의 한 지부장이 겪은 이야기이다. 그가 본 어떤 교포노인이 北韓의 “홍초” 담배만 보아도 조국을 그리워한다는 것이다.

<초석> (리상만, 84.12), <어머니교원> (박관범, 85.5)도 그러한 作品에 속한다. 이러한 作品들은 日本에 살던 교포가 北韓으로 歸國하여 쓴 글이거나 조총련계열의 作家들이 日本에서 쓴 글이다. 그 內容은 北韓文學의 一般的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韓國에 대한 形象化는 每年 정기적인 事業으로 수행된다. 韓國文學에 대한 평론이 비난 일색으로 꾸며져 있듯이 이 소설작품들의 內容은 韓國의 낙후성과 이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그 대부분을 構成한다.

<봄우뢰> (석유관, 84.4)는 韓國의 80年 광주를 중심배경으로 한 作品이다. 主人公 현우는 80年 광주에서 부상당한 이후 화학 전공의 學生으로 변신하여 장차 技術者로 社會에 공헌하려한다. 80年 當時 醫師의 딸이



자 醫大2學年이었던 수영은 계속 투쟁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이에 感動하여 현우는 다시 투쟁의 대열에 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人物들이 行動하고 있는 소설속의 韓國社會는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민중의 낙후성만을 강조하거나 美國과의 關係를 아무런 매개없이 處理하여 뼈대만이 드러나 있는 형국이다. 北韓作家가 간접경험만을 통해 韓國을 그들의 소설에서 이렇게 形象化하고 또한 그것이 늘 可能하다고 함은 따라서 그들의 創作方法의 問題性으로 환원되지않을 수 없다. 즉 그들의 創作方法이 지니고 있는 강한 주관성을 드러낸 것이리라. 現實에 대한 미적 판단과 그 과정속에서 발현되는 당파적 태도의 구현과는 달리 思想藝術性이라는 것이 소재와 절충적 形態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이러한 問題點에 대한 檢討는 후술하기로 한다.

## 2. 1980年代 후반기의 小説

### 1) 革命的 首領觀의 형상화와 金正日에 대한 形象化

전반기 文學을 檢討하는 자리에서 部分的으로 指摘하였듯이 이제 김일성은 革命傳統을 지탱해주는 신화적 存在로서의 像으로 점차 固定化되어가고 實際的인 指導와 과업수행은 김정일의 몫인 것으로 형상화된다.

김일성의 형상화에 있어서 革命傳統의 問題는 抗日武闘時期 民生團 문제나 6.25 戰爭時의 活動에 걸쳐져 있으며 建設期의 人民에 대한 염려 등에도 걸쳐있다.

< 류다른 사냥 > (리철모, 87.9)은 유격대의 조이빈 주임의 극좌적 反民生團 鬪爭으로 궁지에 몰렸던 최현중대장이 김일성의 理念을 받들어 결국 勝利한다는 內容이다. < 한 자위단원의 運命 >에서 드러나는 이 民生團을 둘러싼 問題는 그들의 革命傳統 確立에 重要한 디딤돌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천보戰鬪 50 週 記念特輯”인 〈소생〉(백보흠, 87.6)과 〈보답〉(김수범, 87.6)등도 그러한 作品이라 할 것이다. 民生團 단원인 줄만 알았던 人物들이 祖國光復會員이었다든가(〈소생〉), 民生團으로 몰리던 人物을 김일성이 구원해 주었다는 內容인 이들 作品들은 革命傳統 - 革命的 수령관의 確立作業에 該當되는 作品들이다.

〈환희〉(87.9)는 김일성大學을 建立하게 된 동기가 “못배운 人民들을 위해서 學校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일성의 결심에 의해서임을 보이고 있는 作品이다.

〈백두산의 눈〉(리명균, 88.6)은 전시에 토벌대 從軍記者였던 從軍記者 미우라 다케시가 유격대에 붙잡혔으나, 記者임이 드러나 풀려난 후 歸國하여 以後 主體思想 冊을 發刊키로 했다는 內容이다.

〈山村의 새 建設〉(박찬은, 88.1)은 前後 建設期에 生産力이 떨어지는 山村을 찾아 마을사람들을 격려하고 그곳에 山村特有作物을 심을 것 등을 指導하는 김일성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 밖에 〈씨비리의 붉은 장미〉(윤경주, 86.8)와 〈골초브의 봄〉(김명익, 87.4)은 外國(蘇聯과 東獨)에까지 미치는 김일성의 높은 指導力을 부각시키고자 쓴 作品이다.

김정일에 대한 형상화는 〈안녕〉(김성관, 87.2), 〈30분간〉(백남룡, 86.10), 〈신임〉(김문창, 89.2), 〈사랑의 샘〉(백은팔, 88.2)등에서 이루어진다. 간척事業所에 들러 直接 現場 指導를 하며 指導力을 과시하는 모습(〈안녕〉)이나, “지도란 인민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어야함을 교시하는 모습(〈30分間〉)은 指導者로서의 김정일을 形象化하고 있다. 이러한 指導者像이 보다 具體的으로 드러난 것이 〈신임〉과 〈사랑의 샘〉이다. 〈신임〉은 종이工場 建設에 成功한 道黨責任秘書 최석훈을 꾸지람하는 內容이다. 석훈이 速度를 내기위해 설계사의 말을 듣지않고 굴뚝세우는 作業에 소홀한 점, 이로 인해 꿀벌 農家에 피해를 준 점, 大氣汚染測定을

안한 점 등이 指摘事項이다. 김은 그에게 人民을 위하는 것이 과업을 올바르게 遂行하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사랑의 샘>은 “일보다는 사람을 위한다”는 그들의 思想을 김정일을 통해 표현한 作品이다. 당의 중견작가 허창규와 映畵를 함께 보던 김정일은 허창규가 映畵의 특정장면을 유난히 사무치게 보던 모습 속에서 그의 아내가 병에 걸려있음을 간파하고 그녀의 病에 좋다는 부엉이 사냥에 나서서, 잡은 부엉이를 부관에게 傳達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부관이 일에 바빠 傳達에 늦어졌다고 고백하자 김정일은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물론 협의회도 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보다야 더 중요하겠소. 아마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동무의 안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게요. 언제부터 동무는 혁명동지의 생사에 관련되는 문제에 그렇게 무관심한 실무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소. ( P. 26 )

<눈부시다> ( 최학수, 88.10 )는 김정일의 “천재적 예술성”을 묘사한 作品으로 혁명가극 창조집단을 지도하는 그를 形象化한 作品이다. 김정일과 藝術과 관련된 묘사는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그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검토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金日成과 金正日의 형상화는, 북한 社會成員에 대해 革命傳統과 혁명의 긴장감을 계속 고취시키며 이를 통해 중앙의 집중된 指導와 統制 속에 사회를 운용하려는 취지가 드러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唯一思想의 완전화를 위해 金正淑에 대한 형상화도 이루어지는데 <자세> ( 최창학, 88. 12 )와 <날알의 향기> ( 안용군, 86.12 ) 등이 그러한 作品이다. 남의 잘못을 시정해주려하는 金正淑의 헌신성이나 人民을 사랑하는 김정숙의 마음이 주제로 되어 있다.

親衛戰士라는 이름하에 허현이나 최현에 대한 作品 <장래> ( 88. 9 )와

〈영원〉(안동춘, 87. 4)도 혁명적 수령관 형상화의 범주에 드는 작품이다. 일제하부터 民族運動에 종사해온 허헌이 공산주의자가 된 이유는 김일성의 위대성을 흠모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장래〉)나, 최현이 김일성의 추천으로 人民武力部長이 되어 활동했었고 그가 위대한 투사였음과 그에 대한 김일성의 사랑이 지극했었다는 내용(〈영원〉)속에는 김일성의 지도가 항상 전제되어있기 때문이다.

## 2) 革命的 戰士의 형상화 — 6.25 文學

여기에서는 주로 6.25 시기에 活動한 “인민군”이나 “인민의 헌신성”이 주 對象으로 된다. 北韓 文學이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評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6.25 戰爭時期를 배경으로 하는 作品의 內容은 주로 “人民軍戰士의 犧牲的 용감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샘물은 파도를 부른다〉(리평, 88.6)에서 보이듯 18세 소년이 중대의 연락병으로 活動하다가 애국심으로 전차에 뛰어들다든가,〈길〉(김관일, 87.1)에서처럼 죽어가면서도 식을 줄 모르는 전우애 같은 것이 그러하다. 또한 당시 인민군들이 自身들의 밤을 배고픈 아이들에게 주는 모습을 그린 〈병사와 아이들〉(김익철, 36.10)처럼 인민군의 “人民性”強調의 作品이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

〈메아리〉(손수만, 88.11)나 〈건국호의 선원〉(차승철, 88.12) 등은 6.25 戰爭의 解放戰爭的 性格을 강조하기 위하여 적군하에서도 인민위원회 간관을 유지하려고 한 가복 손수만의 모습이나(〈메아리〉)국군을 태우고 後退길을 도와준 건국호 선원 조용세가 실상은 해상에서 배를 폭파시켜 國軍과 함께 죽었다는 등의 內容(〈건국호의 선원〉)을 통해 6.25의 “인민성”과 “인민들의 용감성”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6.25에 관한 作品의 內容은 여기에서 그치지않고 지금의 現實

에 연결시키려 하는 것이 또한 特徵이라 할 것이다. 종군화가 정종수의 體險談(〈승리자의 추억〉, 김청남, 87.7)에서의 “화가여, 언제나 심장으로 그리라. 어느 때든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여 최전선에 서 있으라!” (p.22) 같은 언급이 그러하며 김아바이의 이야기(〈내가 찾는 사람〉, 안선옥, 87.9)가 그러하다. 〈내가 찾는 사람〉은 이러한 양상이 具體적으로 드러나 있다. 주인공 김아바이는 戰爭영웅이며 이 글의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나”는 그의 덕에 병원에 후송되어 治療받고 完快되어 大學까지 卒業할 수 있었다. 이제 기자가 된 “나”는 그를 찾아나선다. 온갖 건설장과 工場을 찾아다니며 그를 찾으려 했으나 그와 비슷하게 현장영웅들이 存在하긴 했으나 “바로 그”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 땅에 포화가 흐르던 준엄한 시절에, 6만톤대신 12만톤의 강재가 쏟아지던 천리마운동의 날들에, 서해갑문 건설장의 날바다를 메우던 80년대 속도창조의 불바람 속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금별의 위훈과 함께 빛나는 이름을 이 땅에 새겼던가. < p.72 >

즉 “수많은 김아바이가 이땅이 있다”는 결론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이듯 6.25를 과거가 아니라 現在의 問題로 계속 “이으려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社會主義 건설현장의 형상화

#### a. 소조원과 당일군

80年代 後半에 올수록 黨의 責任者 및 3대혁명소조원들의 現場에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된다. 현장에서 이기적 存在나 官僚주의에 빠진 企業所責任者나 나태함에 젖어 있는 인간들에 대한 그들의 指導가 부각되는 이유는 지도대상이 더 늘어났거나 指導의 內容이

보다 강화되어야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연구사의 편지〉(오광호, 88.8)는 한 製鐵工場에서의 이야기이다. 이곳 지배인은 연구사인 주현민이 開發한 機械를 導入하기를 거부하는데 이로 인해 이 연구사는 技術開發만에 자기임무를 한정시키려한다. 이러한 지배인과 연구사에게 3대혁명소조원은 “機械는 무엇을 위해 開發하는가”라는 問題提起를 한 후 해답을 내리면서 이들의 說得에 성공한다. 〈사는 보람〉(김창희, 88.5)역시 냉상모를 키우기 위한 주민들의 努力과 이를 뒤에서 도와주며 指導하는 소조원의 모습을 그리고있다. 〈기다리는 곳〉(럼충평, 87.11)은 소조원의 헌신성과,이 점이 주민들에게 주는 影響까지를 그리고 있다. 주인공이자 소조원인 옥임은 그의 애인이자 연구사인 킨 경호와 그들의 故郷에 사과재배 시도를 한다. 연구사인 경호는 이에 失敗하자 사과 재배 부적격지 판정을 내리고 이곳을 떠난다. 함께 떠날 것을 거부했던 옥임은 결국 이 시도에 성공한다. 이 소식을 옆에서 지켜보던 귀옥이 편지로 경호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다.

옥임 언니가 흘린 땀방울이 열매를 맺은 것은 더그매 사과뿐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농장은 3대혁명붉은기 칭호를 수여받은 영예를 지녔어요. 불편한 몸으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의 앞장에 서서 걸어온 언니의 노력을 더그매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 연구사 동지는 고향도 사랑도 다버리고 과연 무엇을 얻었어요. 연구사 동지처럼 저마다 자기 일개인의 리익만 추구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찌 될가요. (p.49)

연구사의 이기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조원이 行한 努力에 대한 찬사가 전편에 흐르고 있다.

〈봄시위〉(리현덕, 87.12)는 農村에 파견된 소조원인 “내”가 최봉달 반장의 일중심주의를 修正하고 새로운 技術을 開發하며 이로써 農民들의 노고를 덜어준다는 內容이다.

한편 소조원 以外에 黨의 責任者들의 헌신성을 형상화한 作品으로는 <한 당일군에 대한 추억>(장기성, 88.2)과 <인사>(정해경, '88.10)가 대표적인 것이다. 企業所의 연구사에 대해 후원과 指導를 아끼지않는 企業所 初級黨秘書의 이야기인 <인사>에 비해 <한 당일군에 대한 추억>은 더 直接的으로 당일군을 부각시키려하는 作品이다. “나”는 學習態度에 있어서 그리 성실치 못하며 노동에 대해서도 뚜렷히 할말이 없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리당 위원장 박동진의 후원과 指導에 있었다. “사회와 나라에 기여하는 재능의 뒤에는 언제나 이런 당일군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指摘할 정도로 黨員의 부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믿음>(김성원, 89.2)에서는 오형빈 建設事業所職場長과 립민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초급당 指導員 한광일이 해결해주는 內容이다. 여기서 그는 오형빈 직장장의 믿음, 사랑의 결핍을 꾸중하며 그를 반성케한다. <포착>(리수명, 89.3)은 한재영 리당비서 눈에 비친, 성장하는 建設者들의 모습과 이를 보고 흐뭇해하는 모습이 그려져있다. <어서가자 저 언덕으로>(권강일, 87.2)는 거의 전적으로 리당비서의 헌신성을 형상화한 作品이어서 단조롭게 보이기까지 하다.

以上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이러한 人物들에 대한 強調는 일견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외래사조”나 “자본주의적 독소”가 開放化 물결을 타고 北韓社會에 部分的으로 침투해 들어갈 可能性이 높은만큼, 자력갱생과 주체사상을 經濟的·思想的 무기로 지니고 있는 北韓社會에서는 이러한 指導性이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다. 中央으로의 집중과 中央에서의 지도가 더욱 必要하기 때문이다.

#### b. 주체형의 建設者들(1)

80年代 후반에 접어들며 “200日戰鬪”등 生産力 제고를 위해 분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체적으로 建設에 參與하도록 추동하는 일은 北韓文學의



성격상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 사회주의 경제건설전투를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하게 창작하자 > ( 86. 2, 머리글 )에서도 그 文學的 作業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체형의 建設者들을 어떠한 方式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基本的인 主體的 建設者는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며 서로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간” ( < 눈이 내린다 >, 김영길, 87.2, p. 65 )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도덕성, 責任感, 헌신성 등을, 매개없이 바로 強調하는 방식이다.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쓰기 쉬운 방식일지 모르나 이는 단조로움 뿐만 아니라 “主觀圖式的”이 될 可能性이 농후하다. 이러한 유형은 “아버지!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는 언제나 “한 몸이 그대로 징검돌이가 되어 비약하는 조국의 지름길의 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한다.” ( < 승리자의 추억 >, 김청남, 87.7, p.32 ) 라고 대답하여 헌신적 犧牲을 強調하거나, “남들이 내 길을 따라만 가자고 해도 바쁜 노릇인데 네가 중뿔나게 새길을 개척한단 말이냐” 라는 말에 대해 “아니예요. 길은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생기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길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 < 길 >, 구경서, 86.3, p.41 )라고 대답하여 個人的 自發적 態度를 直接 強調하게 된다. 6·4 文學賞入選作인 < 취재길에서 만난 너인 > ( 김귀선, 86.11 )도 쉬운 일을 포기하고 어려운 일을 맡는 예봉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 쉬운 곳 혹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낯선 일을 찾아나서는 모습의 형상화에 있어서 < 분옥이 > ( 김승길, 86.1 )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자신의 그러한 行動에 대해 후회하며 방황하다가 自身이 수행하여 얻은 성과물 ( 여기서서는 “꿈을 이겨낸 꿀벌들 ” 공연 )을 매개로 자신을 確立하는 作品도 存在한다 ). < 제 2의 빛 > ( 리호선, 86.1 )의 경우는 < 분옥이 >에서 보이는 매개 과정 없이 “어디서 그 무엇을 하든 아득히 뻗어 간 저 길처럼 당을 받드는 한길에서 충성을 다하며 우리는 서로 돕고



이끄는 제2의 벼으로 영원히 한생을 빛나게 살리라”( p.53 )고 다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00일 戰鬪現場 소설인 〈 1번수 〉(김정남, 88.7 )나 “로동당 시대의 새 건물을 창조하자” 특집인 〈 함께 온 사람 〉(한익훈, 88.8)도 위와 같은 유형으로 인간의 責任感을 強調한다. 前者의 경우는 한 作家와 艮 복부장이 자신들의 승용차의 바퀴를 고장난 트랙터에 달아주는 內容이며 후자의 경우는 막내딸이 오랜만에 訪問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총국 사령장 권우혁이 이를 무시하며 新市街地建設 現場의 시멘트 부족분을 수송하는 內容이다.

以上の 作品에서 檢討해 보았듯 主體型 인간성격의 형상화에서 가장 基本的인 유형이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自發性, 獻身性, 責任感, 良心 등이 인간의 속성이라 전제하며 이를 要求하는 作品들이다. 〈 하늘과 땅 〉(김영길, 86.11 )에서 보이는 다음 구절이 이것을 대변해 준다.

힘 ! .... 힘 ! ....

힘은 본래 인간의 소유인 것이다. 사회와 집단에 대한 헌신적 복무 ! 여기에 따라 힘은 정비레로 생기는 것이며 그것이 곧 메아리쳐오는 것이다.( p.15 )

#### b. 주체형의 건설자들 (2)

위의 b - (1)에서 보아온 기본형은 북한사회 内部에서도 “文學으로서” 어느 정도 비판받는 것으로 보인다. 〈 창작에 있어서 개성 문제나 독창성 문제 〉( 87.10 )에서는 현재 作品에 있어서 반복성, 유사성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問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창작적 개성과 독창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현실 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찾아 내며 그것을 독창적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매 개 작품들이 종자도, 사상도, 성격도, 생활도 서로 다른 독창적인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p.14)

이러한 언급이 以下 b-(2)(3)(4)에 다루어 보고자 하는 作品 유형들을 추동하는 힘으로 作用했는지는 確言할 수 없으나 以下の 作品類形들이 구체성이나 혹은 인간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현실적 매개들을 지닌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作品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위의 b-(1)에서 잠깐 언급한 <분옥이>와 같은 作品이 바로 b-(2)유형을 대표한다고 말해볼 수 있다. 즉 헌신적이 되거나 일에 애착을 가지게 된 것이 분옥이의 品性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에는 방황하며 후회했다!) 그가 이룩해낸 성과를 매개해서였다. 이러한 현실매개를 지닌 作品들로 <그가 쓴 원고>(정은섭, 87.10), <백양나무 설레는 저녁에>(양해모, '87.10), <숙영차는 어디까지 왔는가>(김창옥, 88.11)등을 들 수 있다.

<숙영차는 어디까지 왔는가>에서의 주인공은 돌격대에 음식을 지어주는 취사원 혜영이와 그의 딸 송이다. 이 家族의 家長 역시 建設 現場에 參加하는 일꾼이다. 그들이 탄 숙영차가 오기를 고대하며, 도착한 후에는 즐거워하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에서 이 作品은 우선 特徵的이다. 그들이 들떠있는 이유는 송이의 노래때문이었다. 어린 송이가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 돌격대원을 즐겁게 하며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 한편으로 혜영이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꿈을 안고 철길을 따라 앞날을 향해나아가는 혜영이!

이제와서 보면 혜영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가정의 단란한 생활을 위하여 숙영차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p. 30)

취사원으로서 마냥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딸을 데리고 숙영차를 타는 혜영이 힘은 들지만 즐겁고 보람되다는 것, 그 이유는 돌격대원들의 즐거워함을 봄에 있다는 점, 이때 비로소 혜영이 主體的 人物로 되는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 作品을 b-(2)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백양나무 설레는 저녁에〉는 한 금속 工場의 製罐조립 직장장이 연공 반원 유찬명을 전출시킨 後 다른 連공반원들이 의기소침하거나 섭섭해하는 일이 벌어진다. 직장장은 유찬명의 存在를 다시 認識하며 그를 헌신적 人物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作家의 一방적 선언과는 달리 이 作品에서는 다른 連공반원들이 찬명을 믿고 따랐으며 그 역시 그들로 인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다는 “關係”가 설정되어있다. “다짐”이나 “헌신”이 한 人間에 고립되어 人間을 直接 추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關係 속에서 견고히 된다는 점이 바로 이 作品의 特徵點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살 원고〉는 金광산 압축기 운전공 정임의 이야기다. 그녀는 30年間 통신원고를 집필하여 보내온 人物이다. 그녀는 “지금껏 자기 (作家)가 보아온 평범한 人物”이 이제는 아닌 것으로 비쳐졌다. 30年間을 쉬지않고 했고 이제 그 일을 딸에게 맡기려 한다는 것이다. 비로소 그녀는 “광부들의 충성심에 꺼질 줄 모르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보람을 주는” 存在로 다가왔다. 그가 주체적인 人間으로 보이게 되는 그것이 광부 들과의 삶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이 作品의 特徵이라 할 것이다.

以上에서 현실 매개나 “關係”속에서 自발성이나 헌신성이 형상화되는 作品을 檢討해 보았다.

### b. 주체형의 건설자들-(3)

b-(2)와는 좀 다른 方式으로 주체형의 建設자를 形상화하는 경우를 우리는 〈나의 기관차〉(한웅빈, 88. 3), 〈어머니의 모습〉(송명준, 87.5)에서 보게 된다.

이들 作品들은 모두 主體的이며 일에 대해 헌신적인 人物들이 주인공이다. 그들이 그러한 人物로 된 계기는 무엇인가? 바로 이 점에 대한 答 변이 이 作品들을 다른 作品들과 區別하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나의 기관차〉의 주인공이자 主體的인 人間性格으로 形상화된 人物은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이다. 건설현장에 급히 가야할 자재를 실은 그의 기차가 고개 마루에서 퇴행사고를 내면 “끝장”이었는데 그는 그 고개를 투지로, 의지로 넘어서게 된다. 山 入口에 있던 서행 표식을 무시하고 달릴 정도로 加速을 붙여서 결국 成功한 것이다. 그는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네 그 서행표식이 생각나나? 그 표식 자체야 얼마나 좋나? 자네 말대로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제도를 볼 수 있지. 그런데 그 표식이 거기에 서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아나? 한달이 됐네. 사고만 없으면 일없다는 거지. (……)아마 전쟁때 행군속도를 늦추자고 했다면 군사재판에 넘기자고 했을거네. ( P.29 )

기관사인 주인공인 人民經濟의 速度를 늦추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행” 무시를 하며 고개를 넘을 수 있었던 理由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가 10年前에 한번 퇴행사고를 내어 커다란 損失을 입혔다는 점, 또 하나는 過去 빨치산 鬪爭時 부대장이 고개나루에서 발목부상으로 낙오되었었다는 점 - 바로 이 두 가지 點을 認識하고 있었기에 그는 단호히 일을 해낼수 있었다. 自發성과 헌신성의 뿌리에는 人間의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經驗과 인식이 놓여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모습>도 同一하다. 나이든 어머니가 쉬지않고 건설장의 미장작업반장으로 일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는 재미” ( P.22 )에 있었다. 그녀가 건설장에서 꼭 필요한 만큼 영웅적인 建設者는 아니지만 반면에 그녀는 “난 건설장을 떠나서는 사는 보람을 느낄 것 같지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일의 과정에서 얻는 “재미”와 “보람”이 그녀를 계속 추동하고 있다. (더구나 金日成의 교시까지 있으니! )

이상의 作品들에서 b-(2) 유형과는 또 달리 自發性 혹은 主體性을 얻는 계기를 지닌 作品들을 檢討해 보았다. 즉 그 계기란 經驗 혹은 과정

에서 느끼는 ‘보람과 재미’였다.

**b. 주체형의 건설자들-(4)**

이상에서 檢討한 作品들의 分類基準과는 달리 b-(4)에서는 연애, 結婚 등과 주체형의 建設者들의 建設事業이 어떤 關係에서 形象화되는지 檢討해보도록 하자.

〈긴급수송이 끝난 뒤〉(정해경, 87.4)는 緊急한 輸送을, 역경을 뚫고 수행한 두 남녀(愛人關係)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남녀를 보며 기사장 최관준은 “시대의 벽찬 숨결을 안고 한 길을 걷는 저들의 사랑은 얼마나 힘있고 아름다운 것인가”(P.70)라고 경탄한다. 이 글에서는 “동지적 사랑”을 強調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은 〈나리꽃〉(원종주, 88.1)에서도 역시 보인다. 유금석과 오숙, 고창림과 방옥은 모두 선광장 建設工事 돌격대원이며 각 쌍이 愛人關係에 있다. 建設工事가 끝나자 오숙과 방옥은 歸郷길에 오르며 금석과 창림은 그들의 창조물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그냥 남도록 한다. 두 여자는 이 애착이 不足했던 것이고 따라서 사랑도, 박찰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숙은 이내 復歸한다. 여기서는 사랑을 일에 종속시키는 것만이 正當하다는 立場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마음의 계절〉(박태수, 86.5)과 〈서두르는 봄날〉(오창수, 88.3)은 家族들 사이에 있게 마련인 家族 中心的 思考 傾向 혹은 다른 사람보다 家族을 더 걱정하는 傾向을 극복하고 일 중심으로 家庭을 재조직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일에 대한 家庭·사랑의 위치는 종속적이거나 統一되어야만 한다는 思想이 作品들 속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現實의 부정적 傾向 혹은 인간형 批判

II - 1 - 3) - b - 3에서 이미 밝혔듯이 北韓소설에서 “갈등” 관계설정

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主要 對象은 관료적 사고 및 태도, 合理性만을 追求하는 이기적 인간, 나태함 등이라 할 것이다. 本 障에서는 이러한 側面이 어떻게 드러나며 어떤 方式으로 批判이 加해지는가에 대해 檢討해 보도록 하겠다.

人間이 “ 스스로 자발적이 되라 ”고 要求될 때 첫번째로 부딪치는 問題는 이기심의 處理問題일 것이다. 이 이기심은 여러 현실 매개들을 통해 발현된다. 그 첫번째 형태로 < 평양행 급행열차에서 > ( 김관일, 86.1 )에 드러나는 “ 합리적 타산 ”에 대한 追求일 것이다. 이 作品에서는 의사부 운전사로 勤務하는 靑年과 열차원 처녀가 그러한 성향을 띤 人物이다. 이들은 이 作品의 서술주체인 “ 나 ”와 한 여인과 그녀의 딸 그리고 내화재 연구로 노력영웅이 된 김승호 연구사와 함께 기차를 타고 平壤을 향하고 있다. 김승호가 기차에 승차했을 때 열차원 처녀는 그에게 매우 불친절했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人物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운전사 청년은 김승호가 옆자리에 동석을 要請할까봐 자는척까지 했다가 聲樂배우가 승차하자 합석을 要求할 정도였다. 그 聲樂배우를 의식하며 한 여인이 데리고 온 그녀의 딸 장래문제를 話題거리로 올리고 藝術家가 좋은 거라고 이야기한다. 누군가가 科學者가 좋을거라고 反對하자 그와 김승호는 論爭을 시작한다.

과학자감이라구요?..... 물론 그것도 좋지요. 백설희 영웅같은 훌륭한 여성 과학자가 있는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집 장롱 속에 대학졸업증을 묻어놓은 여성들도 대낮에 집안에 앉아 뜨개질을 하면서 때로는 방송으로 숨은 영웅들의 보도기사를 듣기도 하지요. < 참 훌륭한 과학자야. 정말 대단한 노력이야! > 하고 그들은 감탄합니다. 지어 눈물이 글썽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합니다. 허나 그러면서도 역시 손에 쥔 뜨개바늘은 멈추지 않지요!..... 사람이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 P.30 )

운전사 청년의 이러한 언급은 현장의 霧圍氣 속에서 우연히 나온 것이

기는 하나 장래에 대한 選擇은 실속이 있어야함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호가 “명예와 리익이 있는 곳을 골라가며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숨씨있게 바꾸는 것”(P.30)이 정당한 것이냐며 批判하자 운전사 청년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구사 동지의 론리대로 한다면 자기의 의사나 희망에 따라 자기의 길을 선택하거나 바꾼 사람들 …… 그 모든 사람들은 예외없이 다 수단군들이겠군요?(P.30)

이러한 반발에 대해 김승호는 그가 合理的이며 말재간도 있다고 하면서 비판자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동문 상당히 똑똑한 사람ियो. 아주 영리하구 …… 오늘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고 있고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소.

동문 그걸 이용할 줄 안단말ियो. 음 ……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를 변명할 줄두 알구 …… 말재간두 있구 …….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作品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양상”에 대한 黨 次元의 비판은 없다. 다른 作品에서 흔히 보이는 비판과 교정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 상태로 作品이 끝난다. 다만 대비를 통해 判斷하도록 장치해두고 있을뿐이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利害打算이나 利己心을 버리게 되어도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청년개척자의 수기> (김관일, 86.8)과 <세대앞에> (박숙희, 86.8)는 그러한 “나태함” 혹은 “職業的 타성”에 대한 批判을 담고 있다. <청년개척자의 수기>의 주인공인 “나”(함성철)는 청년돌격대로 3년째 生活하고 있으나 그 단조로움에 짜증이 난다. 그 기간동안에 대해 스스로 이렇게 評한다.

그렇다. 그들은 나에게 대해 좋게 추억할 것이다. 돌격대에 와서 별로 두드러지게 일을 잘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은 없으며, 또한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자신을 희생한 일은 없지만 결코 남에게 해되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마치 고인에 대하여 생각하듯 되도록 좋은 감정을 가지고 상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뭇없이 잊어버릴 것이다. 봄철의 비물에 해묵은 먼지가 씻겨버리듯. ( P.24 )

자기의 그간의 活動이 “해묵은 먼지”로 비유되어 있을만큼의 것이었다는 점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過去의 태도는 <세대앞에>의 다음 發言과 同一하다.

이것이였구나. 그 너자와 나 사이의 아득한 차이가 …… 나는 생활에 만족되어 자기 앞에 맡겨진 일을 한갓 직업적 의무로 여기지 않았는가. (P.57)

이기심 혹은 合理的 打算과 나태함에 대한 경계와 비판이 소설 속에서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은 현실의 반영이라는 側面도 있거니와 自力更生의 經濟原則下에 自主性和 意識性을 강조하는 主體思想의 양면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이기심 혹은 合理的 타산이 現實的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두번째 경우는 結婚이나 教育, 家庭問題 등에서일 것이다. 우선 結婚 問題를 통해 드러난 樣相을 살펴보자. <기습>(리명, 88.4)에서 주인공 진혁은 폐수정제가 職業이지만 중매장소에서 女子가 퇴짜를 놓을까봐 먼저 거부 의사를 밝힌다. 結婚에서 상대방에 대한 좋고 나쁨을 따지는 基準이 職業으로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해바라기>(리순우, 86.9)에서 주인공인 “나”는 누이동생이 좀더 “유망한” 청년과 結婚할 것을 바라며 이를 推進한다. 누이동생은 “헌신적인” 젊은 연구사와 결국 맺어지게 되고 오빠의 이러한 태도는 “량심”이 부족한 것으로 認識된다. 이 結婚問題에 대해 合理的인 것을 추구하는 태도와 이를 양심으로 거부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간



의 關係와는 달리 〈 아버지 〉(정창윤, 88. 10)는 이 關係를 구체적인 현실매개체를 통해 드러내주고 있는 作品이다. 창고지기인 아버지와 구역전력감 독원인 어머니는 달마다 부부싸움을 한다. 어릴적 “내”가 창고에 보관된 새 자전거 대신 아버지의 권유로 중고자전거를 타고놀자 모친이 화를 내며 싸우던 기억이 있으며, 現在는 누이 혜옥의 結婚問題 때문에 그러하다. 혜옥이 맞선에서 신랑감(輸出入會社職員)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그 理由는 이러하다.

자기는 장차 비행길 타고 대외무역을 다녀야 할 사람인데 유행에 민감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난 녀성과는 리상(성격과 취미)이 맞지않는다는 것이 었다.( P.50 )

유행에 민감치 못했던 理由를 모친은, 부친이 창고에서 새옷감을 하나쯤 을 꺼내올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치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어머니에 대해 “나”는 이렇게 쓰고있다.

어머니는 예이제 다들바없는 황제였다. 만일 어머니를 〈 황제 〉 자리에서 퇴위시키자면 우리집의 화목은 깨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개조대상 〈 황제 〉였다. 아버지도 나도 혜옥이도 …… 어머니의 사상개조는 장기전을 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 P.52 )

사상개조가 순간적인 感動과 의식적 自發性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는 “부부싸움”을 통해서 더욱 確認한다. 다른 作品에서는 한 긍정적 人物의 活動이나 지도에 의해 수정되는데 비해 이 作品의 特徵은 이를 보류해두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데에 있다.

나는 아버지가 일하던 창고에 자주 들러볼 것이다. 그때마다 아버지처럼 티 하나 없는 당원의 양심을 지니고 내가 살고있는가를 검토해 보려한다.(P.52)

나자신에게도, 어머니에게도 長期的인 치료나 경계·비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點은 이기심을 비판하는 첫번째 유형의 作品과 이 作品을 區別하는 特徵이라 할 것이다.

教育問題는 둘러싸고 이기심 혹은 합리주의가 발현하는 모습은 < 미래 > (문명학, 87.7)에 드러난다. 주인공 학천은 “련합탄광” 경리과장이다. 그가 옛스승이었던 고세림을 극진히 대접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제1고교 선발전위원이며 학천의 아들이 現在 그 學校를 지망하고있다는 점에 있다. 사촌누이 선영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로 해서 더욱 제1고교 進學을 믿고 있었다. 이러한 학천의 태도는 고세림에게 비판받고 곧 시정되지만, 教育問題에 이러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에서 현실속에 드러나는 부정적 양상에 대해 비판하는 作品들을 檢討하여 보았다. 여타 作品들이 소위 그들의 “인간학”에 기초하고 있어서 作品속에서 쉽게 부정적 양상이 극복되는 것으로 되지만(인간은 자주적이며 의식적이며 창조적 存在이고 선한 存在이나 이에서 離脫하여 동요하기도 한다. 그 理由는 資本主義社會의 해독이 침투해 있을 경우나 사상에서의 모자람 때문이며, 關係나 構造 속에서 理由를 찾으려하지는 않는다) < 아버지 >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유보하고 있는 점이 特徵이라 할 것이다.

##### 5) “조국애” 혹은 “北韓의 우월성” 형상화

II에서 80년대 전반기 文學을 두고 檢討했던 바 祖國愛 내지 “북한의 우월성”에 대한 文學的 內容은 교포들에 대한 作品에서 많이 등장한다. < 약속 > (조혜선, 87.5)의 주인공 림영준이 科學者로서의 자신과 祖國의 일원인 자신을 함께 認識해야 한다고 자각할 때 提示되는 內容이 그것이다. < 고려청자기 > (정연진, 86.12)의 주인공 “내” (박물관 연구사)가 일제 치하에서 고려자기를 어떻게 保存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祖國愛의 형상화와 관련된다. < 공화국의 재부 > (리영준, 87.11)는 시기상으로

6.25 戰爭期間이었다는 點만을 除外하면 < 고려청자기 >와 同一한 內容이다.

북한내에서 이러한 祖國愛와 관련된 作品主題는 향토애 혹은 고향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난다. 고향에 있는 은행나무의 保存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 老人의 努力(< 동구의 은행나무 >, 장기성, 88. 12)이라든가 戰時下 戰鬪중에서도 고향의 향기를 담은 통소소리에 힘입은 바 컸다는 점의 지적(< 고향의 노래 >, 정해경, 87. 10)은 그 예라 할 것이다.

한편 北韓 자체의 우월성을 內容으로 하는 作品들로는 < 새롭지 않은 이야기 >(한웅빈, 87. 1), < 귀향 >(정창도, 88. 11), < 백설의 비밀 >(송병준, 88. 7)등을 들 수 있다. < 새롭지 않은 이야기 >는 祖國의 귀중함과 그것이 주는 惠澤을 잘 認識하지 못하는데 대한 경계틀 드러낸 作品이다. 이 點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딸애의 눈에 보인 것은 그것뿐이었다. 공기는 맑을수록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다. (……) 이것 역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허나 진실과 교훈은 새로운 이야기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P.25)

이러한 惠澤의 근원에는 北韓의 “인민적” 側面이나 “제도” 側面의 특수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 백설의 비밀 >은 전자의 內容을 담고 있다. 世界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백설나무가 大量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事實을 證明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바로 그것, 그 영원불멸할 생명력이 이 땅에 있다. 이 나라 인민들이 자기의 의지와 신념으로, 가장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러러 받드는 무궁한 힘을 낳는 위대한 태양이 바로 이 조선에 있다. (P.20)

< 귀향 >에서는 이러한 우월성을 제도적 側面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생사 운명을 같이하는 나라! (P.62)

결국 “黨과 수령”이 지도한다는 點과 완전한 한 조직으로서 운용된다는 點이 이 우월성의 內容이 되는 것이다.

6) “남조선”에 대한 형상화와 歷史小說.

80년대 후반기 단편소설에서 보이는 韓國에 대한 형상화는 대학과 광주에 집중되어 있다. <량심의 길>(리명호, 88.7)과 <행진복>(리경숙, 88.12)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전자는 大學生의 노동화과정을, 후자는 광주를 형상화하고 있다.

<량심의 길>의 주인공 나(창수)는 大學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學生이다. 미래의 技術者를 꿈꾸나 아내의 賣血로 버티는 生活, 공납금을 못내 退學警告를 들은 일, 친구의 투옥, 大學生들의 가난(대부분의 學生들), 아내의 공장취직, 창수의 就業後 로버트開發과 이에 인한 職工들의 해고, 창수가 직공해고에 반발하여 노동운동에 가담하는 것 등등 內容上으로 보건대 그 연결이나 內容 자체도 사실성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따라서 이 作品은 Ⅱ章에서도 指摘했지만 思想教育 혹은 창작테제에 따른 주어진 主題의 형상화일 것이다. 問題는 이러한 창작방법이 北韓文學에서 一般的인 性格을 띤다고 할 때 이 創作方法이 지니는 意味를 따지는 일일 것이다. “주관이나 사상이 현실을 손상” 시킨다는 點은 一般的 意味의 社會主義 리얼리즘에서는 가장 경계해마지않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이 점이 可能하다는데 北韓文學의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창작방법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우리가 現實과의 比較를 통해 確認 可能的 것에 한정한다면) 바로 歷史小說의 分野일 것이다. 어떤 主題를 전달하기 위해 歷史的 事實을 利用한다는 것은, 이 歷史小說

을 범주화할 경우 “理想型 歷史小說”에 해당된다. 역사소설이, 現實에 存在하는 어떤 理想의 전달을 위해 過去 歷史를 利用한다는 전제하에 쓰여지면 事實上 歷史를 “現代의 前史”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되는 리얼리티는 불필요하게 된다. <원추리>(리빈, 88. 12)에서 순박한 숙쟁이 가족이 왜군을 상대로 영웅적으로 싸웠던가, 신미양요때 우정하와 의병항쟁시 우치관의 영웅적 싸움이라든가(<통소>, 리빈 86. 3.), <정발의 최후>(리유근, 87.3)에서처럼 대비없는 군사의 최후 이야기 등은 실제 당대 상황과는 무관하게 어떤 메시지를 傳達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構成된 것이다. <통소>의 아래 언급은 이 점을 잘 드러내준다.

우치관의 가족들과 같은 애국자들이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피를 흘렸고 우리처럼 총권 의병들이 그들과 함께 쓰러졌건만 끝내 나라를 왜놈들에서 빼앗기고말지 않았는가. 이것은 우리 평산의병부대가 그러했듯이 조선팔도전역에서 들고일어났던 의병대도 모두가 제마음 닿는대로 싸우던 과정에 각개격파되었기 때문이다. 우치관이처럼 원쑤와 결사전을 하려고 총까지 마련했던 사람들조차 자기고향 의병들과 담을 쌓고 지냈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적인 지휘밑에 하나로 뭉치지 못한 힘은 그것이 비록 무서운 열도를 지녔다 하더라도 물거품신세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인생말년에 이르러서야 돌이키지 못할 이 피의 교훈을 찾고 하나의 몸부림으로 쓰는 글이거니 우리를 이끌어줄 인걸이 있다면…… (P.57)

이 小説의 의도는 위 글에서 보이듯 명백한 것이다. 이러한 作品 傾向이 歷史小說 뿐만아니라 “성황당식 연극” 創作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서 주목된다.

### Ⅲ. 北韓文學의 美學的 基礎와 人間學 - 結論을 대신하여

우리 문학은 (……)전 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혁명가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기치밑에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새롭게 개척하시던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우리시대 문학예술발전의 불멸의 본보기로 내세움으로써 인류문화의 보물고 위에 주체문학을 찬란히 빛내여왔다.

(축하문, 조선작가동맹 제 3차 대회앞, 조선문학, 1980.2, P.10)

1980년 1월 1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가 조선작가동맹 제 3차대회앞으로 보낸 이 글은 1980년대 北韓文學의 성격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것이다. 즉 北韓文學의 미학적 전제로서의 주체사상과 수령에의 헌신성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문제적인 이유는 이것과 黨性, 勞動階級性, 人民性과 위상과의 관계 및 그 내용상에 존재한다. 주체문예이론에서는 우선 당성과 당파성이 구분되어 있다. 당파성이란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인 문학예술은 제 계급의 사상과 지향을 표현하며 일정한 계급적 이익에 복무한다. 따라서 계급사회의 문학예술은 예외없이 사상적 경향과 계급성, 당파성을 띤”다는 진술속에서 설명되고 있다. (北韓의 문예이론, 인동판, 1989. P.92)

黨性은 이와는 달리 노동계급의 혁명적 실천과 결합한 文學만이 지니는 것이며 당성을 훌륭히 구현하는 문제는 首領에 대한 充實性을 구현하는 문제와 밀접히 통일되어 있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最高表現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노동계급성은 “모든 문학예술은 계급적 성격을 지니며 사회주의문학은 노동계급의 편에 선다”는 의미로 쓰인

다. 인민성은 文學은 인민의 이익에 봉사하며 “인민의 것”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된다. 당파성이 수령의 존재에 의해 당성과 구분되고, 또한 노동계급성이 北韓에서 말하는 노동계급의 당파성과 구분되지 못하며, 인민성이 예술전유의 주체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概念과는 미묘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民衆性(北韓에서는 인민성)에서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民衆은 생산의 여러 부문에 종사하는 제 계층의 構成因子를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호 모순의 가능성이 존재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민중내의 각 階級은 그 잠재적 성격과 역사적 힘이 다르다. 統一戰線의 시기에 이 民衆性에 대한 고려가 유난했음은 이 측면을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북한 문예에서의 인민성이 이러한 역사적 성격을 드러낼 과학적 장치없이 인민의 것, 인민을 위한 것이라는 關係設定속에서만 概念規定을 하는 데 대해 일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역사속에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은 이러한 民衆性의 최고 형태가 勞動者階級の 당파성이며 이 당파성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全社會關係 속에서 내리게 되는 政治的 요구속에 드러나는 계급성임을 알고 있다. 勞動者階級이 가장 근본적인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점이 그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순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최고의 權威를 노동자계급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主體文藝理論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내용을 풍부히 하며 발전해 온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概念위에 수령에 대한 헌신성(당성의 최고형태)을 위치지움으로써 노동자계급 당파성이 현실의 物質的 운동과 變革過程에서 내리게 되는 그 歷史的, 客觀的 성격이 主觀化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主觀化 가능성의 美學的 표현이 주체문예이론에서의 실용주의적 제 작품과 사상예술성에서 보이는 이원론적 시각이다.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혁명가로 교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 北韓의 文學은 文學의 이러한 효율성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이 때 文學의 효율성의 대상은 물론 주체사상의 확실한 교양에 있다. (가령 <사회주의 경제건설전투를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 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하게 창작하자> (조선문학 86. 2, 머리글)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지니고 있는 뜻은 수단(효용)으로서의 文學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보면 北韓文學은 레닌의 <당문학과 당조직>과 그 기본적인 성격면에서 동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美學觀에서는 일정한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위 문건에서 그 미학적 성격을 드러내는 “나사와 차륜”은 그 실용성에 중점을 둔 것이라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위상으로 규정되는 당파성(조이는 나사와 歷史의 客觀性에 참가하여 함께 맞물려 도는 톱니바퀴)으로 규정되거나 이 점에서 보이는 미학관은 認識論上의 反映論으로 귀결된다.

반면 文學藝術은 사상성과 藝術性이 통일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사상성이 우위에 선다는 언급이나 (앞의 책, 인동판, P.158) 典型化란 一般化와 個性化의 통일인 바 그 가운데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一般化이다 (같은책, P.228)라는 언급은 北韓 文藝의 미학적 성격의 二元論으로의 轉化可能性을 엿보게하는 것이다.

즉 思想性(주체사상)과 藝術性의 완전한 결합으로 표현되는 北韓의 미학관은 사상의 보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예술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논리와 다르게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미학관은 근대의 藝術이나 좌익급진주의 미학에서 종종 표현된다.)

이러한 미학관은 현대 사회주의 현실주의가 도달한 美的 反映論의 원칙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즉 반영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藝術性, 즉 藝術的 반영이란 작가가 객관 현실 속에서 구체적 상황에 대해 행하는 價値判斷의 표현이다. 물론 이러한 가치판단 역시 當代 역사적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가령 계급적 실천의 수준) 이러한 구체적 사



회의 客觀的 흐름과 이 계급적 利害에 입각한 態度 사이의 상호과정의 辨證法의 표현이 바로 작품의 藝術性이자 사상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즉 藝術性과 사상성은 하나의 양면이지 둘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북한문예이론에서 흔히 보이는 “세부를 감동적으로 그리라”는 언급이나 “양자의 결합중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사상성”이라는 견해가 지니는 이원론으로의 轉化可能性이 산출된다.

문학사를 정리할 때 드러나는 소재(표현해야 할 사상의 문제)의 나열의 구성원리이다. (가령 경애하는 수령의 형상창조,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형상화한 작품, 주체형 혁명가의 형상 창조, ……)

여기서 주체문예에서 文學이란 인각학이라는 北韓文學의 속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주었으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근본문제,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 있는 밑거름을 주었다.

(종자와 그 형상, 김정웅, 문예출판사, 1988, P.119)

인간의 속성을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으로 보는 주체사상의 덕으로 인간학으로서의 文學에 이론적 지침을 제공했다는 이 언급은 北韓文學의 특성 즉 본론에서 드러났듯이 北韓의 文學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화의 원인을 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주의 창작방법과의 절충적 성격으로 인한 文學的 방법의 모순으로 발현하기에 이른다. 이 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사회주의 文學이 도달한 理論的 實踐的 수준인 社會主義 現實主義의 기본적 前提는 인식론의 견지에서 보면 辨證法的 唯物論이라 할 것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인간은 社會的 存在이다. 위 언급에서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인간이 社會的 存在라고 함은 인간 역시 사회의 한 構成員일 뿐 아니라 자연과의 교섭 - 勞動 - 속에서 스스로의 本質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즉 인간은 勞動을 통해서만 本質이 드러난다. 노동을 통해서만 인간은 全體社會 속에서의 자신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확인한다. 現實主義 文學이 현실의 總體性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에서일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社會的 關係를 떠나서는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北韓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 혹은 인간학은 이러한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

主體思想에서 인간은 자연과 세계에 對立된 범주로 存在한다. “자연의 사물현상들간에는 자체의 존재를 위하여 내세우는 어떤 의식된 요구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동적 활동도 없다. 그런데 사람은 자주적 요구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주적 활동을 한다.” (주체사상총서 - 주체사상의 원리 1, 백산서당, P.226)라는 언급에는 그러한 對立 構圖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實踐에 대한 관념적 이해를 담고 있다. 즉 “세계에는 정연한 질서가 있으며 그 변화발전에서는 객관적 법칙” (위 책, P.228)이 존재하며 인간은 이를 의식하여 자유롭게 자주적으로 자연과 투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實踐의 動力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思想意識이며 이 사상의식은 수령에 의해서만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혹은 인간학의 표현인 文學 특히 소설에서 이러한 특징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드러나는 양상이 바로 작품의 類型化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種子나 思想이나 主題나 素材를 새롭게 해야한다는 요구를 아무리 강조해봤자 주체문학에서 그 전제로 삼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지 않는 한 모순은 존재한다. (北韓의 문학사구

분이 시대별 발전과정이나 文學의 內的形式의 발전사로 구분되지 못하고 시간상의 순서로 나열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와 관련된다). 社會的 存在로서의 인간은 풍부하지만 인간자체의 心理世界는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類型化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측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어떤 한 인간이 있어서 그가 社會的 勞動을 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정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오류는 그 주위의 보다 더 선진적인 동료나 黨指導員에 의해 지적되거나 혹은 그들의 헌신성에 의해, 스스로 깨닫거나 감동하여 수정된다. 대개 사회주의 현실을 고무 추동하는 소설들의 構造는 이렇게 구성되는 데 거의 예외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 노동자가 오류를 범하게 된 이유부터 살피고 들어가서 그 오류가 과연 필연적이었던가 혹은 우연적인 실수인가 만약 前者라면 그 物質的 근거, 토대는 무엇인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등의 문제를 提起할 수 있어야 하나 실제 작품에서의 결말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이 고쳐져야 하고 스스로 고친다. 이 점은 한편으로 보면 勞動大衆의 自發性과 自主性을 뛰어나게 제시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주어진 思想 혹은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현실의 취사선택에 다름아니다. 현실은 풍부하고 생동하는 것이 아니라 素材의 바다저수지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이 類型化問題는 北韓의 문예담당자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北韓 평론가들이 “주관도식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유형화 되어가는 작품을 극복하고 독창적인 창작을 소재, 종자의 독창적 해명을 주장하고 있음도 필자는 이상의 논의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작품이 유형화되지 않고 좀더 具體的으로 진전된 경우, 그 작품의 내용은 대개 인간의 行動이나 性格이 인간의 본성의 結果物이 아니라 현실과의 교섭과정 속에서 즉 現實媒介를 거쳐서 비로소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北韓文學을 검토해 보면서 필자가 얻은 측면은 바

로 이 점이라 할 것이다.

이는 現實主義와 主體文藝理論(사상의식)의 일정한 矛盾關係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 측면을 두고 이 글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北韓의 文學이(혁명적) 人民文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變化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詩를 통해 본 北韓社會

정 효 구  
(서 울 대)

- I. 研究目標와 接近方法
- II. 北韓詩에 나타난 北韓社會
  - 1. 革命과 主體思想
  - 2. 社會主義 經濟建設
  - 3. 分斷의 現實과 統一
- III. 맺 음 말

## I. 研究目標와 接近方法

이 글은 北韓 詩에 나타난 北韓社會의 실상을 分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사실상, 北韓社會의 실상을 分析하기 위한 資料로 選擇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資料들 가운데서, 특별히 文學(詩) 作品을 選擇한 것은, 그 時代의 삶을 가장 具體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文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文學은 허구의 世界이고 창조된 世界이다. 그러나 이 말은 文學作品속에 創造된 世界가 환상의 世界 혹은 공상의 世界라는 말과 그 意味를 전혀 달리한다. 文學作品의 世界는 분명 創造된 세계이고 허구의 세계이지만, 그것은 現實을 바탕으로 하여 創造된 世界이다. 따라서 文學作品 속에 創造된 世界는 결코 현실적인 삶을 무시한 채 이룩될 수 없는 世界이다. 그런데 文學作品 속의 世界가 現實世界와 맺고 있는 關係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떤 作品은 다큐멘터리에 가까울 정도로 現實世界를 적나라하게 模寫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現實世界를 작가의 현실관독 能力과 그 特性에 따라 상당한 幅으로 변주시켜 再創造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와 같은 경우, 文學作品으로부터 그것에 반영된 現實과 社會를 조명해낸다는 것이 매우 쉬운 作業이 될 터이지만, 후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作業이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文學作品으로부터 社會나 현실을 分析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하면서, 한편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文學作品이란, 그것이 現實과 社會를 아무리 正確하게 묘사하였다 해도, 거기에는 작가의 주관적인 시각과 재창조된 部分이 담겨 있기 때문에, 文學作品을 社會分析의 資料로 삼을 경우에는,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北韓文學 作品은 現實과 어떤 關係를 맺고 있는지, 이에 대해 잠시 言及하기로 한다. 필자가 보기에 北韓文學은 支配者가 計劃하고 追求

하는 北韓社會의 실상을 가장 正確하게 반영한 것으로 判斷된다.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의 北韓社會를 아무런 統制나 편견을 강요받지 않은 狀態에서 반영한 것이 아니라, 金日成과 金正日 그리고 黨의 政策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상정한 이상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北韓의 文學은 작가가 자유로운 정신과 상상력으로 관독해낸 北韓社會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우리가 一般的으로 생각하고 있는 文學속에서의 社會的 실상과 다른 意味에서의 社會的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들의 文學에는 社會의 어두운 側面이 徹底하게 排除되어 있다. 그들은 作品 속에 人物이나 社會의 否定的 側面을 결코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文學作品 속에는 그들이 말하는 意味에서의 모범적인 人物들과 아름답고 찬란한 北韓社會의 밝은 側面만이 담겨 있다. 北韓文學이 社會的 實相과 맺고 있는 關係가 이러할진대, 北韓文學 作品을 통하여 그 社會를 分析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상 우리의 文學을 대하던 때와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탐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北韓社會에서의 詩人이나 作家는 일종의 公務員과 같은 身分을 갖고 있다<sup>1)</sup>. 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意味에서의 個人的 自由와 創造的 能力을 인정받는 예술가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들이 창작을 하는 일은, 수령과 黨의 政策에 충실히 奉仕하는 일이거니와, 公務員과 같은 資格으로 그 일을 수행한 후에 그 댓가로 소정의 월급을 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따라서,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文學界에서는 한 個人으로서의 시인론이나 작가론이 쓰여지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그러한 것들이 쓰여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創造的인 개성이 그 作家나 詩人들의 作品으로부터 도출되기가 어렵다.

筆者는 앞에서 北韓文學이 반영하고 있는 社會나 人物이 모두 肯定的인

註 1) 이항구, “北韓作家들의 生活相”(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1979), pp.11~43 에 있는 北韓에서의 작가의 위치와 機能을 參照할 것.

것들로만 構成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人間社會의 한쪽 면만을 作品 속에 형상화하고 있는 그들의 文學作品을 보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 보는 일이 可能할 것이다. 北韓에서의 創作者와 그들이 創造한 作品은 社會를 수령과 黨의 政策에 따라 이끌어 나아가는데 있어서, 일종의 教師와 같은 役割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社會의 편협되지 않은 진실을 독자들에게 均衡있게 提示해주는 자가 아니라, 그 社會를 주도해 나아가는 支配者의 편에 서서, 支配者의 論理에 맞게 독자들을 계도해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들은 마치 國民學校 道德時間의 道德教師와 같은 資格을 가지고, 社會의 모범적인 인물과 모범적인 실상을 學生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살고 있는 社會가 것처럼 자랑스러운 社會이고, 그들 또한 그와 같은 社會의 建設을 위하여 성실하게 매진하여야만 한다고 열강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道德教師와 같은 그 문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道德教師와 다른 점은, 그들이 主體的으로 그 社會의 모범적 人物과 模範的 實相을 열강하는 것이 아니라, 黨에서 정해 놓고 그들에게 강요하는 文예이론 혹은 文藝政策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北韓에서 출간되는 文學雜誌 속에는, 黨이 규정해놓은 文藝理論과 그 政策을 創作人들에게 反復的으로 傳達, 指示하는 난이 存在한다. 이를테면 <주체형의 黨 일군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자> (<조선문학> 1980. 1)라든가 <혁명적 수령관과 주체형의 인간성격발전과정> (<조선문학> 1986.1) 등과 같은 “論說” 혹은 “머리글” 形式의 文藝政策이 指示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創作人들은 이들 文藝理論과 文藝政策을 충실하게 수용한 作品들을 機能的으로 創作하면 그만인 것이다. 말하자면, 創作이 文藝理論이나 文藝政策을 항상 수동적으로 뒤따라가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北韓文學 作品의 特性을 간략하게 言及하였다. 北韓文學에 대한 위와 같은 理解를 전제로 하여, 필자가 北韓文學(詩)에 나타난 北韓社會를 分析하기 위해 使用한 資料는 北韓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機關



誌인 〈조선문학〉이다. 이 가운데서도 1980年代 北韓社會의 실상을 集中的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이른바 〈朝鮮勞動黨 第6次 大會〉가 열린 1980년에 발간된 〈조선문학〉誌부터 現在(1989.3)까지의 〈조선문학〉誌를 資料로 삼았다. 1970年以後 꼭 10年만에 열린 朝鮮勞動黨 第6次 大會는 1980年代의 北韓社會가 1970年代의 그것과 구별되는 분기점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以後 지금까지의 北韓社會가 전개되어 나오는 데, 일종의 중심축과 같은 役割을 遂行한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조선문학〉以外에도 〈청년문학〉을 다소 參照하였으나, 이들의 共通點은 모두가 기관지의 性格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國內에 입수되지는 않았으나, 기관지 以外의 性格을 가진 文學誌가 따로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도 할 수 있거니와, 만약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필자가 〈조선문학〉에 수록된 詩를 資料로 삼아 北韓社會의 실상을 分析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方法을 適用하였다. 말하자면, 北韓社會의 文藝理論이나 黨 政策을 미리 탐구하고 난 후, 그것을 토대로 하여 詩속에 나타난 北韓社會를 分析한 것이 아니라, 徹底하게 詩作品을 먼저 충실하게 읽고 그 속에 나타난 北韓社會를 分析하였다는 것이다. 문예이론이나 黨政策 등은 추상적이고 해설적인 반면, 文學作品은 具體的이다. 따라서 文學作品을 탐독함으로써, 우리들은 北韓社會의 실상을 마치 映畫나 비디오 등의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생생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이 접할 수가 있다. 이것은 文學作品이 가지고 있는 큰 長點이거니와, 필자는 文學作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長點을 충분히 살려서, 徹底하게 文學作品 위주로 하여 北韓社會의 실상을 分析하고자 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北韓社會의 실상을 分析하는 데는 그동안 南韓社會에서 살아오며 習得한 필자 자신의 굳어진 감각과 基準을 벗어나는 일이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詩 속에 나타난 1980年代의 北韓社會는 大略 세 가지의 큰 項目으로 나누어 分析하는 것이 可能하다. 그런데 1980年 10月の 朝鮮勞動黨 第6

次大會以後, 北韓은 지금까지 큰變化없이 같은 政策을 따라 社會를 이끌어오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文學作品(詩)에 나타난 北韓社會의 실상 역시, 變化의 幅이 거의 없는 채로 約 10餘年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10餘年間의 北韓社會를 첫째, 革命과 主體思想이란 側面에서, 둘째, 社會主義 經濟建設이라는 側面에서, 셋째, 分斷의 現實과 統一이라는 側面에서 考察하고자 한다. 이 세가지 側面에서 北韓社會를 考察하고자 할 때, 적어도 文學作品 속에 나타난 1980年代의 北韓社會가 지닌 特性을 얼마간 조명해 내는 게 可能할 것이다.

## II. 北韓 詩에 나타난 北韓社會

### 1. 革命과 主體思想

#### 1) 金日成과 金正日

1980年 朝鮮勞動黨 第6次大會 以後, 北韓社會가 보여준 가장 큰 特徵은 김정일이 權力體系의 全面으로 뚜렷하게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이 大會가 開催되기 이전까지의 시 작품에는 김정일을 숭모하고 그의 탁월한 能力을 찬양하는 시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1980年 10月 以後가 되면, 김일성에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김정일의 存在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보자면, 1980年 10月 以後의 北韓은, 이른바 世습체제 確立期로서의 特性을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 한 사람을 中心으로 한 政策으로부터,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두 사람 中心의 政策構造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sup>.

김정일의 公式名稱은 指導者 동지 혹은 당비서이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지도자상 조작은 1982年부터 本格化되기 시작하거나 그는 北韓社會의 中心思想인, 이른바 主體思想 確立의 장본인으로 추앙된다.

다음에 인용되는 作品은, 北韓의 모든 政策이 김일성과 김정일 두 사람을 中心으로 하여 推進되고 있으며, 이것이 김정일 世습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中間過程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오, 나는 아노라  
위대한 두 분의 사업토의는  
래일도 모래도

註 2) 도흥열의 論文 “北韓의 階級政策과 階層構造”中, <5, 世습체제 확립기>를 參照할 것. 이 글은 도흥열, 이병혁, 이온죽, 세 사람이 共同研究한 “北韓社會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1988)에 수록되어 있음.

언제나 끝나지 않으리  
우리의 행복을 꽃피워가심은  
두분의 필생의 사업이시기에

송명근의 〈언제나 우러르는 영상〉 (1987.4)

위 인용작품은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의 存在를 전면에 부각시키려는 숨은 의도 이외에, 그들의 事業討議가 바로 人民들의 幸福을 꽃피우려는 헌신적 열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든 政策과 지도노선은 바로 그들의 독재정권을 維持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人民들의 행복을 실현시키려는 데 있다고 作家들은 人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分明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詩人들이 전하는 위의 메시지가 참이나 허위이나 하는 것을 단정짓기는 困難해도, 그것이 黨의 文藝政策에 依據하여 計劃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公式적인 후계자임을 表現한 作品을 引用하고 論議를 계속하기로 한다.

장엄하고 웅장한 산속에서 솟은 샘물  
대하되여 대지를 적시듯이  
인류가 받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후계자 김정일 동지  
위대한 자주시대에  
새형의 지도자 출현하시였어라  
  
백두산은 혁명의 성산  
여기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폭풍속에서 성장하시며  
위대한 지도자의 고매한 품성을 지니신

김정일동지

그이는

전쟁의 가렬한 포화속에서도  
어려운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빛나게 령도하신  
아버님을 따라 배우시였다네  
탁월한 지도자가 지녀야 할 고귀한 모범을

벌써 주체예술의 빛발로  
가극혁명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신 그이  
세계를 경탄시킨 그 비범한 예지를  
인류는 소리높여 칭송한다네

세계인민은

그이께서 미래의 조선의 새 지도자  
세계혁명의 새 투사 되시기를  
간절히 념원하였다네

그이는 그 기대, 그 믿음 안으시고 추대되시였어라  
조선인민들 우러러받드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계인민들 우러러 경모하는 위대한 령도자로

위대한 수령님 개척하신 주체의 한길로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 따라  
자주시대의 령마루에 올라선 조선인민  
인간도 사회도 자연도 투쟁으로 개조하는 세기적 모범을 창조하였나니  
주체조선은 인류의 찬란한 미래의 상징

력사는 증언하여라

자주성은 모든 민족의 생명

반동과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무적의 거인

세계는 주체의 해발 따라

영원히 전진하는 자주의 길우에 서있으리라

-싸싸이 테쇼메의 <김정일 그이와 함께 전진하노라>

( 1983.8 )에서

위의 引用作品은 자칭 自主時代에 活動할 “새형의 지도자” 김정일의 출현을 칭송하고 그의 무한한 發展을 기원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위의 引用詩를 그대로 따를 것 같으면, 김정일은 “인류가 받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후계자”로서 김일성의 革命業績이 혁혁히 빛난다고 宣傳하는 백두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처럼 革命精神이 투철한 革命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김일성의 탁월한 영도력과 革命精神을 본받아 역시 탁월한 指導者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정일은 주체예술의 빛나는 위업을 全世界에 자랑함으로써 人類의 칭송을 받을 만큼 뛰어난 能力을 所有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탁월성 때문에, 朝鮮人民들은 그를 믿고 위대한 指導者로 추앙하였거니와, 그의 위대한 영도력은 主體朝鮮의 찬란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作品이 1983년의 것이고 보면, 이 때는 朝鮮勞動黨 第6次大會가 열린 후, 約 3년이 지난 때이다. 다시 말하자면,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삼아, 이른바 김정일 세습체계를 確立해 나아가던 초기라고 할 수 있다. 위 作品의 特徵은 그 創作者가 外國人이라는 점이다. 이 사실을 說明하자면, <조선문학>誌에는 北韓과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作品이 종종 수록된다는 점을 말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作品은 대개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能力을 찬양하는 內容을 담고 있거니와, 사실상 국적만 다

른 나라로 되어 있을 뿐, 그들이 創作한 作品이란 北韓의 詩人들이 창작한 作品과 거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왜 外國人들의 作品이 <조선문학>誌에 수록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추측밖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文學誌에 수록된 國內 詩人들과 國外 詩人들의 作品이 같은 시각과 같은 創作方法論에 의하여 창작되었다는 말만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確實하게 부상시키는 모습은 最近으로 올수록 그 정도를 더해간다. 그들은 백두산에 “정일봉”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우상화하고 찬양하는가 하면, “김정일화”를 정해놓고 그 꽃의 아름다움을 찬미한다.

① 누리를 향해

힘껏 소리쳐 자랑하노라  
영광의 봉우리  
위대한 그 종합으로 불리우는  
백두의 정일봉  
  
룡성번영하는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솟은  
혁명의 표대  
누리는 등대  
아 정일봉이여!

전명구의 <아, 정일봉이여!> (1989.2)

② 이 꽃은 무엇을 주는가

친애하는 그이의 존함을 모신  
그 붉은 빛갈과 향기로 하여

더없이 밝아지고 활기로워진  
인류의 존엄을 주더라

오, 이꽃은 무엇을 주는가  
꽃처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세계의 모든 인간  
혁명하는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투쟁의 불을 주더라

유성욱의 〈꽃은 무엇을 주는가〉 (1989.3)

인용시 ①은 정일봉을 통해 김정일의 國家的인 意味를 찬양하고 있다. 위의 作品을 따르자면, 김정일은 “革命의 표대”이며 “누리의 등대”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김일성의 革命精神을 이어받아 社會主義의 完全勝利를 향해 돌진하는 革命의 화신이며 동시에 人民들을 행복의 共產社會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存在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引用詩 ②는 이른바, “김정일花”를 통하여 김정일의 숭고한 意味를 찬양하는 作品이다. 引用詩 ②를 보자면, 김정일花로 표상된 김정일은 광명의 화신이며, 革命과 鬪爭의 불을 人民들의 가슴에 질러주는 위대한 사람이다.

金正日是 金日成의 革命精神과 영도력을 이어받았고, 주체사상을 確立한 사상가로서의 위대성을 간직하고 있는 자처럼 表現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한없이 따뜻한 사람으로 人民들을 보살피고 실무지도에 힘쓰는 指導者 동지로 묘사되기도 한다.

굴진의 최고 돌파로  
지하평양건설을 앞당긴  
전투의 나날  
막장을 떠나지 았았다는 돌격대장을



그토록 아끼시는  
그이의 한없는 사랑이여  
머나먼 실무지도의 길을 이으시며  
당중앙창가에서 언제나 새벽을 맞으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품속에서

김봉운의 〈휴식〉 ( 1986.2 )에서

방금 인용한 作品은, 人民들에 대한 김정일의 한없는 사랑과 實務指導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열성을 표상하고 있다. 위의 詩를 보자면, 人民들은 김정일의 사랑과 그들을 위한 열성 속에서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며 감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이것이 北韓의 실상과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말을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作品의 創作이 黨政策과 文藝政策에 의하여 주도되어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시에 나타난 김일성의 특성에 대해 言及하기로 한다. 김정일이 〈조선문학〉誌의 文學作品에 本格的으로 등장한 것은 1980年 以後이지만 김일성의 등장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80年代의 한 가지 특징은 소위 〈수령형상창조론〉내지는 〈혁명적 수령관〉이 強調된다는 점이다. 방연승의 글 〈우리 문학예술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정중히 모실데 대한 당의 방침과 위대한 생활력〉( 1981.2 )을 볼 것 같으면, 首領形象作品의 目的에 대해서 論議하였는데, 그가 말하는 수령형상작품의 目的이란 勞動階級の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黨을 창건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현명하게 영도하는 수령을 인민들로 하여금 따라 배우도록 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온 세상의 주체사상화를 이룩하는 것, 이것이 바로 首領形象創造 目的이라는 것이다. 具體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말하는 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할 때는 혁명역사의 위대성,

그의 사상과 이론의 위대성, 영도력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품모의 위대성을 형상화해야 하고, 그 경우에 창작자는 작품을 통하여 수령에 대한 최대의 정중성과 충성심을 表現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형상창조론에 의거해서 창작된 것이, 바로 <조선문학>誌에 수록된 김일성 관련 作品들이다. 雜誌의 매호마다에 반드시 몇 편 이상 김일성 關聯 作品들이 수록되거나 몇 作品만 인용하면서 시에 나타난 김일성의 실상을 조명하기로 한다.

어찌 다 말하랴

—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

강토의 마지막 가슴에 남기신

불같은 심장의 그 선언

노래하기엔 내 목소리 너무 작아

정녕 만경대의 작은 사립문을 나서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안으시고

수령님 그날에 떴신 첫걸음

그것은 재생의 밝은 길로

조선이 내디딘 첫걸음

위대한 혁명의 퇴성

김영길의 <광복의 천리길을 간다> (1987.1)

위 作品은 김일성이 이룩했다고 하는 혁명역사의 위대성에 감복하고 그것을 형상화한 作品이다. 위 作品을 創作한 김영길은 抗日獨立鬪爭을 위하여 만경대를 떠났다고 하는 김일성의 출가야말로, 朝鮮의 위대한 革命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고 말한다. 北韓의 詩作品에는 이와 같은 김일성의 혁명역사가 집요한 文學的 주제로 등장한다. 그런데 革命은 반드시 鬪

爭을 동반한다. 이런 점에서, 김일성의 革命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鬪爭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실을 한다.

피의 동란

력사의 교훈을 밝히시며

혁명을 모색하고

투쟁의 진로를 개척하신

혁명의 영재 김일성 동지!

아, 위대한 < ㅌ, ㄷ >의 기치

폭풍을 부르며 솟아올랐도다

혁명의 첫 출발을 알리는

력사의 선언으로

투쟁의 진리를 밝히는 불멸의 등대로!

김정호의 <력사의 그날에> (1986.9)

위의 인용시를 따르자면, 김일성은 “革命的 영재”이고 “鬪爭의 진리를 밝힌 불멸의 등대”이다. 그는 조선의 獨立을 가져오고, 北韓을 행복한 社會主義 國家로 만드는데 등불과 같은 役割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日本帝國主義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社會主義憲法”을 北韓社會에 宣布하여 勞動者의 세상을 마련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主義憲法을 찬양하면서 김일성의 영도력에 感謝하는 代表作은 <12月 27日이며, 너와 함께> (1986.12)이다. 이 작품의 한 부분만 잠시 인용해보기로 한다.

매맞고 짓밟히고

목숨마저 잃어도

막아줄 법이 없던 인민에게

웃음도 주고, 노래도 주시려

수령님 세워주신 사회주의제도여

인민의 법—사회주의제도여

그런데 北韓의 시는 김일성의 革命鬪爭이나 社會主義 國家建設이 자기 자신의 일인독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人民의 행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김일성은 人民들의 행복을 위한 社會主義 國家建設의 아버지상과, 그들의 일생을 돌보는 어머니상을 동시에 가진 자가 된다. 이 表現은 좀 약할지 모른다. 주지하다시피 北韓 詩에 나타난 김일성은 곧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위대한 能力과 자비로움을 겸비하고 있다.

김일성의 革命歷史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持續적으로 수용되는 소재는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와 革命과 鬪爭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백두산 그리고 자칭 祖國解放戰爭이라고 말하는 6.25 등이다. 이들을 소재로 한 作品은 그 특성을 조금씩 달리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共通의 特性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감사, 경탄과 찬미, 決意와 다짐 등을 거듭하여 表現하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 詩에 表現된 김일성의 實相을 論하는 이 자리에서, 끝으로 한 가지 言及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이른바 수령형상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變化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1988年 4月の <조선문학>에 수록된 <논설>을 볼 것 같으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內容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문학은 많은 경우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감명 깊게 형상화하는데 주된 힘을 돌려왔다.

물론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가장 숭고한 인민적 품모와 공산주의적 덕성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참된 주체  
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사  
상리론의 위대성을 깊이 체험시키는 것이다.(중략)

지금까지 이 주제분야가 적게 제기되고 제기된 경우에조차 덕성주제  
에 많이 용해되어버린 것은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형상적 화폭으로 그  
려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예술적 탐구〉에서

위의 引用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의 덕성과 위대한 人間的 품모  
를 그리는 데서부터,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그리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을 그들은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은 變化가 作品上으로 크게 두드러지는  
것을 보기는 어려우나, 수령형상창조에서의 變化相이 앞으로 다가올지 모른  
다는 사실을 예견하는 것도 어느정도 可能할 듯 싶다.

2) 김정숙과 김형직

주지하다시피, 김정숙은 김일성의 前妻이다. 80年代 後半으로 오면 김정숙  
과 關聯된 詩들이 比較的 드물게 나타날 뿐이나, 적어도 80年代 前半期에  
는 그에 관한 詩들이 자주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다. 김정숙은 일명 “친  
위전사”로 불리우거니와, 그는 김일성의 革命과 鬪爭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으로써, 女性戰士의 役割과 北韓人民들의 어머니 役割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자면, 김정숙 역시 革命의 위훈을 세우는데 큰  
공로를 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장군님 바라시는 길이라면  
눈보라 만리길도 헤치시던 그 마음으로  
저 험난한 하늘에도  
서슴없이 날아오르신  
용맹한 항일의 녀장군

바라보면

바람세찬

아득한 창공

아, 조선의 첫 녀성륙전병

김정숙어머님

높고높은 하늘가에도

위훈의 자욱

충성의 자욱을 뜨겁게 새기시기에

림공식의 〈항일의 첫 녀성륙전병〉 ( 1985.12 )

위의 作品을 통하여 나타난 김정숙은 抗日鬪爭의 영웅, 김일성의 뜻을 따  
른 “ 조선의 첫 녀성륙전병 ”이다. 그는 나약한 女性의 몸이지만, 항일의 일  
념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에 용맹스럽게 대항한 혁명전사인 것으로 나타  
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作品에 나타난 김일성과 김정숙은 부부지간이  
면서 同時에 革命의 동지로 항일투쟁에 앞장선 구국의 영웅인 셈이다.

물론, 김일성은 탁월한 영도력을 가지고 抗日鬪爭의 선봉에서 總指揮를  
맡은 것이고, 그의 부인 김정숙은 남편인 김일성의 뜻을 충실하게 받들어  
祖國解放을 앞당긴 여전사의 資格을 가진 것으로 그 위계질서가 마련되  
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도 言及한 것처럼, 김정숙은 항일의 여전사  
로서 鬪爭의 일선에 나간 것으로 묘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人民의 어머니  
로서 전사들을 보살핀 사랑의 화신으로 묘사되어 있다. 김종원의 詩 〈어  
머님의 눈빛〉 ( 1989.2 )이라든가, 리종섭의 〈한흙의 미시가루〉 ( 1983.  
12 ), 그리고 최준경의 〈끝없는 사랑을 안으시고〉 ( 1983.12 ) 등이 모두  
김정숙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하고 그에 대해 感謝한 作品들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숙 以外에, 김일성의 家族으로서 높이 추앙  
받는 人物에는 김형직이 있다. 김형직은 김일성의 아버지인 바, 北韓의 主

張에 따르자면 일제시대에 명신학교 教師를 하였고 〈朝鮮國民會〉라는 항일조직을 결성하여 抗日鬪爭을 展開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력과 더불어, 北韓은 김형직을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sup>3)</sup> 라고 내세우고 있다. 〈조선문학〉誌의 시작품에는 김형직의 위대성을 표현한 作品의 수가 김정숙 위대성을 表現한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오 조선독립은

조선사람 자체의 힘으로!

그 한길에 겨레들을 뭉쳐세우시던

김형직선생님의 높이신 뜻 어려있는

봉화산!

탁류속을 헤매며 방황하던

민족주의운동의 방향타를 잡으시어

공산주의운동의 대하속에 돌려놓으신

선생님의 그 거룩하신 자취 력력한

력사의 봉우리!

리준의 〈불멸의 봉화산〉 ( 1986.3 )

引用 作品에 표상된 김형직은 朝鮮獨立을 위해 指導者가 되었고, 그러한 民族主義運動을 마침내 共產主義 運動으로 돌려놓는데 貢獻을 한 사람의 모습이다. 어디 抗日鬪爭을 한 사람이 김일성 부부와 그의 아버지 김형직뿐 이라하는, 北韓 詩에서 한 個人의 이름이 舉論되면서 抗日鬪爭革命의 위대성을 형상화한 실례는 김일성 家族 以外の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註 3) 김정일, 김정숙, 김형직 以外에 김일성의 家族으로 찬양되는 人物은 김형권이다.

이와 같은 北韓의 시작품에는 김형직의 항일혁명과 共產主義者로서의 탁월한 통찰력이 人民들로 하여금 끝없는 감탄과 충성의 각오를 일으키게 하는 要因으로 되어 있다. 김광호의 作品 〈옥천샘 맑은 물아!〉를 部分的으로 인용하고 論議를 계속하기로 한다.

금수강산 물맛은 어데가나 변함없소  
머리우엔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지만  
민족의 피줄기는 이 샘물처럼 솟아나  
조선의 슬기와 기상을 빛내고 있소

아, 선생님의 뜻깊은 그말씀  
겨레들의 가슴속에 샘물처럼 흘러들어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가셔주고  
투쟁의 푸른 싹을 키워주었나니

(중략)

아, 옥천샘! 옥천샘!  
김형직선생님의 숭엄한 영상이 어려있어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가의 량심을  
거울처럼 비쳐주는 옥천샘 맑은 물아!

너의 즐기찬 흐름이 가닿을곳은  
〈지원〉의 넓은 바다  
온 나라 인민들 마음을 다 비쳐보게  
무궁토록 솟아나라 충성의 맑은 샘물아!

김광호의 〈옥천샘 맑은 물아!〉 (1981.7)

위 作品에서의 김형직은 망국의 비운으로 암울했던 日帝時代 속에서도 샘



물처럼 솟아오르는 民族의 힘을 겨레의 가슴에 부어준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절망 속에서 希望의 빛을 보며 鬪爭의 싹을 키워갔다는 것이다. 위 作品에서의 옥천샘은 김형직의 투쟁사와 관련된 샘이거니와, 詩人 김광호의 表現을 따르자면, 人民들은 옥천샘 속에서 김형직 혁명가의 맑은 양심을 읽어내고 祖國에 대한 충성을 다짐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論議를 통해서 볼 때, 김정숙이나 김형직 두 사람 모두가 抗日革命家이며 民族主義者로, 祖國과 人民을 위해 犧牲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革命鬪爭史는 祖國의 發展과 解放을 위하여 이루어졌던 성스러운 활동사이거니와, 人民들은 이 精神과 行動을 본받아 이 時代의 革命家로 돌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 3) 黨과 祖國

시작품을 통해 나타난 北韓社會에서의 黨은 首領과 거의 같은 지위와 資格을 갖는다. 그들은 首領, 黨, 祖國을 부모의 位置에 놓고, 國民들은 그들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子女와 같은 位置에 놓는다. 따라서 김일성이 아버지 首領이라면 黨과 祖國은 어머니 黨, 어머니 祖國과 같은 名稱으로 불린다. 그리고 김정숙 역시 어머니의 호칭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黨은 首領과 같은 資格을 가졌고 거의 같은 機能을 하고 있다. 물론 首領은 具體的 個人이고 黨은 組織의 추상적인 名稱이지만, 이 추상적 名稱으로서의 黨은 具體的으로 살아있는 아버지의 存在처럼 위대하고 높다.

충성을 떠난 삶이란 없는것  
그것은 곧 당원의 죽음  
충성에 작은 실금이라도 가지 않게  
매일 아침 얼굴을 씻듯  
마음의 얼굴을 닦아야 함을

그이는 이 아침도 가르쳐주신다

수령님과 당을 위해

진실로 깨끗하게 사는것은

한생을 두고 멈출수 없는 혈지 않은 투쟁

순간의 안일과 해이가

돌이킬수 없는 생의 길에서

영영 다른 길로

내 운명을 실어가버릴수도 있음을

오영재의 〈하루길을 떠나며〉 (1989.1)

오영재의 위 作品을 통해서 볼 때, 黨은 首領과 동격의 자리에 놓여 있는 셈이다. 黨員에게 있어서, 首領과 黨에 대한 충성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意味하는 것이거나 파멸의 길로 人生을 몰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黨은 首領과 더불어 最高의 位置에 권위를 가지고 군림해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한편, 黨은 충성의 對象일 뿐만 아니라 끝없는 恩惠와 慈悲를 人民들에게 베푸는 存在로 나타나 있다.

당이어

우리 누리고 사는 행복

우리 날마다 지니는 기쁨

이 땅의 모든것

그것은 그대가 이룩한것

그대는 이 땅우의 모든것이여라

아, 세상에 태어나

우리 처음 안기는 품도

그대의 품

우리 세상에 태어나

처음 배우는 노래도

그대의 노래

우리의 심장 이리도 높이 고동침은

그대가 씩없이 맑은 피를 부어주기 때문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꽃이 되어

이 땅우에 피어남은

그대가 따사로운 해빛을 안겨주기 때문

그대의 품에

우리의 운명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그대의 품에

우리의 사랑하는 미래가 있나니

나는 한송이 꽃

그대는 그 꽃을 피워준 대지

나는 하나의 작은 별

그대는 그 별을 빛내여주는 하늘

그 대지우에 뿌리내리고

그 하늘아래 가슴을 펼친

우리의 심장 두려움 몰라라

박세옥의 〈은혜로워라 당이여〉 ( 1980.2 )

인용작품을 통하여 나타나듯이,北韓社會에서의 黨은 人民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는 근원이고, 人民들을 품어주는 어머니로서의 役割을 하는 것

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黨은 人民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빛을 내려주는 太陽과 같은 存在이며 하늘과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人民들은 黨의 恩惠에 감복하고 黨에 대한 충성을 죽음으로 갚겠다는 피맺힌 맹세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패의 위력과 영도의 현명성,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한몸에 지닌 黨이야말로, 그들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위대한 勝利를 保障해주는 朝鮮人民의 指導的力量”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黨에 충실하다는 것은 곧 革命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黨의 偉大한 領導力을 따라, 오직 感謝와 충성의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黨員들과 전체 北韓住民들은, 黨을 구심점으로 하여 서로 兄弟愛 내지는 共同體意識을 가지고 다정하게 살아간다고 그들의 시작품은 表現한다. 잠시 실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한집안식구처럼 다정하고  
한지향 한뜻으로 뭉친 동지들  
열두명 당원들이 모여사는곳  
나의 당세포를  
내 정치생활의 요람으로 안다

(중략)

찾으면 마음 든든해지고  
불러보는 생각이 뜨거워  
부모앞에 말못할 사연도  
숨김없이 먼저 터놓으며  
더더욱 가까워지는 당세포

김진수의 〈나의 당세포〉 (1981.8)

열두명의 黨員들이 한뜻을 가지고 黨 中心으로 모여사는 곳을 당세포라고 하는 것 같다. 이 당세포 속의 黨員들은 한결같이 黨中央을 向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서로 한식구처럼 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 共同體 속에는 個人의 이기심이나 추악한 분파주의 精神이 결코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作品 속에 나타난 당세포에서의 순수한 共同體的 態度가 實際적인 現實 속에서의 그것과 同一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 까닭은 北韓에서의 文藝作品 創作原理 가운데 하나가, 바로 作品 속에 否定的 人物 혹은 어두운 側面을 묘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혹 作品 속에 “부정선”을 넣는다면, 그것은 否定을 許容하고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生活에 아직 남아 있는 否定的 要素들을 反對하고 克服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sup>4)</sup>. 당세포를 묘사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北韓의 시작품은 徹底하게 人間의 模範적인 선성과 그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行動들만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들의 시작품으로 하여금 教師와 같은 役割을 遂行하도록 하고 있다.

黨과 首領에 대하여 충성심을 다한다는 것, 이것은 北韓住民들의 義務이지 따져야 할 對象이 이미 아닌 것으로 그들의 시작품은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黨과 首領 以外の 것으로서, 무조건적인 충성과 犧牲을 要求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祖國이다. 따라서, 그들은 祖國을 主題로 한 作品에 상당한 比重을 두거니와, 北韓의 시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祖國이란 삶과 행복의 요람이요,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指導者동지께서 빛내어주시는 진정한 人民의 祖國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社會主義祖國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祖國은 항상 個人을 앞질러서 드높은 자

註4) 한중모가 쓴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의 다양하고 풍부한 발전의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 지침〉(〈조선문학〉, 1984.12)에는 김정일 교시를 통하여 作品에 전적으로 肯定的 側面을 그리는 일과, 이른바 부정선이 예외적으로 許容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리에 올라가 있다.

조국이여 그대가 없어  
빼앗긴 땅에 태어난 목숨  
나는 유년시절을 빼앗겼고  
모두는 사람의 값을 빼앗겼고  
민족은 나라를 빼앗겼다.

조국을 잃으니  
아아, 사는 땅은 땅이 아니더라  
피의 바다—  
비애의 바다—  
눈물의 바다—

동기춘의 〈나의 조국은〉 (1985.8)

동기춘이 創作한 위의 〈나의 조국은〉은 일제에 의하여 빼앗긴 祖國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다. 이 作品에 따르자면, 祖國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生命을 빼앗긴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祖國을 잃고 나니, “사는 땅은 땅이 아니”였고 그것은 “피의 바다”나 “비애의 바다”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北韓의 시작품은 일제에 의하여 빼앗긴 祖國과 그로 인한 비애를 형상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祖國의 光復을 이룩하기 위하여 鬪爭한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사를 형상화하고 있다. 물론 祖國의 光復을 가져오기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인 代表的 人物로 표상된 것은 김일성, 김정숙, 김형직 등의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들 以外の 수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무명전사로 남아 있을 뿐이다.

세월은 흘러 멀리도 왔건만  
못잊을 사연담아 울리는 피리소리

수령님 찾아주신 귀중한 내조국을

굳세게 지켜가라 우리를 부르네

윤병규의 〈못가의 피리소리〉 (1989.1)

위의 인용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祖國의 光復을 가져온 것은 김일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人民들은 그가 찾아준 이 祖國을 굳세게 지켜가야 할 사람으로서의 義務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에 의하여 빼앗긴 光復 以後에도 그들에게는 조국이야말로 오로지 충성의 對象이다. 따라서 한 個人의 犧牲이나 죽음은 조국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마땅한 것이고 그와 같은 犧牲이나 죽음은 얼마든지 미화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한 個人의 삶과 祖國은 密接한 相互關係를 가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個人을 조국의 절대적인 하위개념으로 못박아놓을 경우, 個人의 尊嚴性은 조국이라는 추상적 존재의 위력 앞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 北韓 詩에 나타난 조국은 바로 한 個人 위에 그와 같은 절대적 힘을 가지고 군림하여 人間을 祖國의 꼭두각시처럼 만들어놓고 있다.

#### 4) 主體思想

北韓의 詩作品에는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경우와 이 사상을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의 위대성과 關聯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주체사상만을 전면에 단독으로 내세워 한편의 作品으로 만드는 실례는 드물고 大部分 다른 主題들과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詩作品 속에 주체사상이 단독 주제로 형상화된 경우를 통하여 그들이 말하는 바, 주체사상의 意味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체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주체는 언제나 새 생활 창조에로 우리를 이끌어주나니

주체의 찬란한 빛발 아래  
동방의 조선은 앞으로만 달리고 있어라

(중 략)

주체사상은 가르쳐주었어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라고  
주체의 빛발 찬란하여  
감감한 암흑시대 펼쳐졌나니  
대지우에 주체의 태양솟아  
새 전환의 력사 마련되었어라

(중 략)

주체사상은 조선에 태어나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라

케이 까뿌르의 〈주체의 찬란한 빛발 아래〉 (1989.1)

위의 인용작품은 주체사상이야말로 人間中心의 사상이라는 것,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아 새시대, 自主時代가 展開되었다는 것, 주체사상은 北韓 人民을 勝利로 이끌었다는 것 등을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바, 주체사상, 즉 人間中心의 사상이라는 것이 어떤 歷史的 背景에서 나왔으며, 그것이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言及하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글의 目的이 北韓의 주체사상 자체를 論議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작품 속에 나타난 주체사상의 실상을 分析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은 主體思想의 위대성과 그



로 인해 엄청난 國家의 發展이 이룩되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宣傳하고 있다. 동기춘의 作品 〈주체 사상탑〉 ( 1984.8 )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체 사상의 위대성을 표현하고 있다.

① 김일성동지 그이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의 창시자  
인류를 이끄시는 위대한분  
그이의 가르침 현명하여  
뒤떨어진 나라들 새길 찾고  
제국주의가 몰아온 암흑의 장막  
저 멀리 영영 몰아가거니  
그 업적 찬란히 빛나라  
세세년년 무궁토록 빛나라

자파르 도르치의 〈축원〉 ( 1989.1 )

② 주체 사상은 곧

위대한 태양이며  
향도의 별  
주체 사상은 곧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의 상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의 상징  
우리생활의 전부이며

행복과 기쁨의 원천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시켜나아가시는

친애하는 김일성동지이시여

움베르토 보르띠즈 플로레스의 〈향도의 빛발로  
우리 앞길 밝게 비치시라〉 (1983.8)

인용시 ①에서는 주체사상의 창시자가 김일성이라는 것과, 그 주체사상은 영생불멸의 절대적 위력을 지닌 것임을 말한다. 그리고 인용시 ②에서는 주체사상의 창시자가 김일성인 반면, 그것을 發展시켜 나아가는 사람은 김정일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인용시 ①의 내용을 따르자면, 주체사상은 위대한 太陽과 같이 전 人民을 밝게 비취줄 뿐만 아니라 향도의 별처럼 전 人民에게 나아갈 方向을 인도해준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주체사상이야말로 人民들의 生活 전부이며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라고, 인용시 ②의 詩人은 強調한다. 北韓의 시작품 어디를 봐도, 주체사상의 한계점이나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提起한 것은 없다. 그들의 시작품은 오직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그것을 창시하고 發展시켜 나아간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성을 말할 뿐이다.

지금까지 論議한 주체사상의 앞 글자 “主體”는 주체사상을 대변하는 用語로서 여러 말을 수식해 준다. 예를들자면, 主體祖國, 主體文學, 主體藝術, 主體農法, 主體的 人間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그들이 주체사상을 各分野에서 強調하는 것은 그들의 目標가 온 社會의 주체사상화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2. 社會主義經濟建設

### 1) 〈80년대 속도〉와 〈200일전투〉

北韓의 詩는 社會主義의 經濟建設이라는 中대한 國家的 目標 아래서, 이것의 실현을 위하여 總進軍하는 전체 人民들의 충성스런 모습을 담고 있다. 김일성이 해마다 新年辭를 통하여 社會主義의 經濟建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 항목을 나열하는 데서도 보는 바와 같이, 北韓에서의 經濟發展은 그들의 존립을 위하여 매우 절실하고 급박한 問題인 것처럼 여겨진다. 또한 1980 년도에 열린 朝鮮勞動黨 第6次 大會에서는 이른바 〈10대 展望 目標〉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그 10대 전망목표의 內容은 모두가 經濟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것들로 構成돼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朝鮮勞動黨 第6次大會에서 提示한 10대 전망목표의 각 분야는 電力, 石炭, 鐵鋼, 유색 금속, 시멘트, 化學肥料, 織物, 水產物, 穀物, 간석지개간이다.<sup>5)</sup>

〈80년대 속도〉를 창조하자

이 혁명의 목소리에

얼마나 엄숙한

시대의 자각이 불타고 있느냐

이 말속에는

기어이 점령해야 할

10대 전망목표를 두고

혁명에 맹세다진

우리의 담대한 결심이 있고

---

註5) 朝鮮勞動黨 第6次 大會에서 提示된 10대 展望目標의 具體的 實相은 다음과 같다. 電力: 1,000 億kwh, 石炭: 1 億 2 千萬屯, 鋼鐵: 1,500 萬屯, 有色金屬: 150 萬屯, 시멘트: 2,000 萬屯, 穀物: 1,500 屯, 간석지개간: 30 萬町步가 그것이다. 이 코지를 占領하는 일이 80 年代의 社會主義 經濟建設과 關聯돼 있다.

이 말속에는  
이 땅의 모든것을  
당중앙의 뜻으로 새로 창조하고야마는  
우리의 비상한 각오가 숨쉬고 있나니

〈80년대 속도〉

이는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

오, 삶이면  
이 년대기우에 꽃피라  
위훈이면  
이 년대기우에 빛나라

차영도의 〈80년대의 숨결〉(1982.9)

위 작품에 표출된 〈80년대 속도〉는 北韓의 80년대 建設事業精神이다. 이것은 80년대 이전의 천리마 정신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80년대 經濟目標에 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80년대 속도〉를 창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2次 7個年 計劃을 앞당기고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3次 7個年 計劃을 성공리에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는 〈80년대 속도〉가 建設事業精神으로 절실하게 要請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천리마 정신에 〈80년대 속도〉를 더한 精神으로, 이른바 〈속도전〉을 強行하고 있는 北韓은 經濟建設 分野에서는 물론이고 文學作品 창작에 있어서까지도 〈속도전〉을 이용한다. 따라서 그들은 〈중장편창작전투〉를 벌이는가 하면, 文學創作에서의 수동적인 영감설을 全面 부정하고

만다.

다음은 < 200 일전투 >의 實相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대한 우리 당은 80년대에  
200 일전투에로 우리를 불렀다  
조국을 수호하여 원수를 쳐부신  
결전의 날 그 기세로 대건설이다  
올려라! 북소리 200 일전투의 북소리  
더 높이 올려라 위훈의 북소리

순천의 하늘에 광복거리에  
당을 따라 우리 세운 기념비 빛난다  
비약의 나래펴고 이 땅의 끝까지  
행복의 락원을 펼쳐나가자  
올려라 북소리 200 일전투의 북소리  
더 높이 올려라 위훈의 북소리

용광로 붉은쇠물 백배로 끓고  
농장벌 발동소리 만풍년 부른다  
대건설 우뢰소리 강산에 울리니  
남녘에도 반미항전 불길 높인다  
올려라 북소리 200 일전투의 북소리  
더 높이 올려라 승리자의 북소리

한관호의 < 더 높이 올려라! 200 일전투의 북소리 > (1989.2)

各 地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사업의 목표를 早期達成하기 위하여 北韓은 建設勞動者들을 < 200 일 전투 >의 정신으로 武裝시킨 것이다. 위 作品에 등장하는 순천지구, 광복거리의 建設工事 등, 北韓 全域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사업은 無限한 勞動力을 要求하는 것이려니와, 그 노동력을 效果的으로 얻어내기 위하여, 그들은 <200일 전투>와 같은 <80년대 속도>의 한 形態를 考案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200일 전투>以外에도, 北韓은 건설속도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모범기대창조운동>이니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이니 하는 것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속도전청년돌격대>를 만들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다시 그 땅을 걸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한점의 불꽃에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불길  
온 나라에 지피시던 그 북변땅을 -

줄지어 기계가 쏟아져나오는  
기계공장에도 기꺼이 들리시고  
대야금기지의 한복판에서  
강재의 부르름도 만족히 보아주시고

(중 략)

기계가 모자라던 때에도 해냈는데  
현대적 기계로 가득찬 땅에서  
이제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고  
다시한번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전군중적으로 벌려보자고 -

(중 략)

앞으로! 공업의 강국이여!  
 기계의 발로  
 더 큰걸음 내디디며  
 기계의 숨결로  
 시대를 주름잡으며  
 기계의 산악으로  
 인민의 더큰 행복 마련된  
 부강조국을 높이 이끌어올리며 -

리일복의 〈또다시 북변땅에서〉(1985. 1)

리일복의 위 작품을 통해서 볼 때,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은 工業強國의 큰 걸음을 내디딤으로써, 인민의 더 큰 행복을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은 아버지수령님으로 表現된 김일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 運動의 불길이 工業現場으로 뻗어나감에 따라, 기계가 工場으로부터 줄지어 쏟아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北韓의 工業現場 또는 建設現場에서 벌이는 이러한 運動들은 다 〈80년대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속도전청년돌격대〉 또한 〈80년대 속도〉를 창조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擔當한다. 리정표의 作品 〈속도전청년돌격대〉(1984.11)에는 이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위훈과 명예 이상의 것을 아버지수령님께서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의 功勞야말로 끝이 없다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 各種 建設現場

北韓은 1980년 朝鮮勞動黨 제6차 대회에서 내놓은 〈10대 전망목표〉와 每年의 新年사를 통하여 김일성이 提示하고 있는 工業 및 建設 目標達成을 위하여 박차를 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문학〉誌에 수록된 詩作品中, 거의 3분의1 정도가 바로 社會主義經濟建設을 위한 各種 建設

現場, 工業現場, 採取現場, 農業現場 등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각종 勞動現場은 <조선문학>誌의 特輯欄을 통하여 형상화되기가 일쑤이거니와, 創作人들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현장을 형상화하고 그들에게 勞動意慾을 고취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문학>誌의 창작방향을 주도해 나아가는 <론설>이나 <머리글>을 통하여,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더 깊이 들어가자> (1984.1)라든가, <전투적인 창작으로 대건설행군에 적극 이바지하자> (1988.5)와 같은 題目의 글들이 發表되고 있다.

北韓의 詩作品 속에 나타나는 건설, 노동현장은 종류도 많고 地域도 여러 곳이다. 적어도 <10대전망목표>를 達成하기 위하여 실시된 事業現場들, 다시 말하자면, 신년사를 통하여 제시되는 각종 事業現場들이 거의 다 作品 속에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러면 詩作品 속에 자주 등장하는 각종 事業現場들의 실상을 作品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詩作品에 나타난 순천비날론공장건설 現場의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밤하늘을 태우며

런포벌에 넘치는 불빛 불빛

수령님 모시였던 감격의 이 하루

못잊어 아, 못잊어

열정에 타는 순천의 밤

수령님 품에 안겼던 그 병사의 마음

어느 불빛에 어려있느냐

어느 기초굴착장에

어느 기둥



어느 란간에

(중략)

저 한점한점의 불빛은  
우리 수령님 지퍼주신 열정의 바다속에  
하늘을 덮으며 쏟아져내릴  
비날론꽃송 그 송이송이여라

오재신의 <순천의 밤에> (1987.6)

순천은 비날론(나일론인 것 같음) 공장을 建設하는 現場이다. 이 비날론 工場建設은 1989 년도에 完工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80년대 後半의 詩作品에 아주 빈번히 등장하는 詩的 素材이다. 위 作品을 통하여 살펴보자면, 순천의 련포벌에 김일성이 다녀갔고, 勞動者들은 수령님을 모시었던 감격의 하루를 못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그 감격의 기쁨을 안고 밤시간까지도 열성을 다하여 勞動을 하고 있다. 引用 詩의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들은 밤시간의 노동을 위하여 켜 놓은 불빛속에서 비날론꽃송이가 련포벌에 내리는 즐거운 상상에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강남섭의 詩 <이날의 이 저녁때처럼> (1989. 3) 을 보더라도, 순천의 노동자들은 建設의 기쁨에 흠뻑 젖어 밤시간의 노동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 어디 이뿐인가. 송영근의 作品 <비날론 건설장에 한 너인이 있다> (1989.3)나 럽형미의 <청춘이여> (1987.1)와 같은 作品들에는 女性 勞動者가 순천의 비날론공장건설에 적극 參與하고자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방금 언급한 두 作品中 <청춘이여>의 일부분을 인용하고 論議를 계속하기로 한다.

하나 내 가슴엔

반짝이는 브로치가 필요치 않다  
이마에 맺히는 후더운 땀방울이  
내건설장에서 즐겨쓰는 빨간머리수건이  
나를 아름다운 처녀로 세워주거니

럼형미의 〈청춘이여〉(1987.1)

北韓의 詩에 나타나는 女性은 나약한 기질을 가졌다거나, 外的인 꾸밈을 뒤쫓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들은 적극적이고 용감한 女性戰士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위 작품은 순천비날론공장건설 현장의 한 女性을 묘사한 것인데 引用部分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建設現場의 女性은 “반짝이는 브로치” 대신 “후더운 땀방울”을 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작품 속에 나타난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비워놓을세라 점심식사 이 한때도  
흘러가는 시간을 가득채우며  
공사장에 쿵-쿵  
하늘땅에 쿵-쿵

아, 전사들 심장의 울림으로 가득찬  
〈평양-개성 고속화도로〉 전투장이여!

권강일의 〈발파시간은〉(1989. 1)

北韓의 경우, 高速道路를 닦는 일이 建設의 중요한 部門이다. 그들은 고속도로를 고속화도로라고 부르거니와, 위 작품에 나오는 바, 〈평양-개성〉간의 고속도로 건설은 최근의 道路建設 事業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속도로 건설에 重點을 두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輸送問題의 해결에 반드시 必要한 것이기 때문이다. 北韓은 高速道路, 철길, 배길의 세 가지 길을

통한 輸送問題를 社會主義經濟建設의 기본토대로 생각하고 있다. 구희철의 詩 <내마음> (1987. 1)은 철길 建設地의 하나인 “북부철길 건설”의 現場을 형상화 하고 있다.

젊은 건설자들아  
조국이 달리는 기관차라면  
그 기관차를 떠받든 철길처럼  
철길을 말없이 받든 침묵처럼  
그대들과 함께 내 작은 어깨를 들여밀리

내 마음엔 벌써 그날이 보인다  
지금은 건설장에 날리는 눈보라가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실  
그날의 철길우에 훔날릴 꽃보라로  
내귀전엔 들려온다

구희철의 <내마음> (1987. 1)

위의 인용작품은 이른바 <3화수송방침> 가운데 하나인 철도 輸送作戰을 成功시키기 위한 建設現場의 묘사이다. 祖國의 發展을 위하여 個人의 犧牲을 즐겁게 감수하겠다는 것과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해서라면 鐵길建設의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내용이 위 작품의 핵심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한 비날론工場建設과 道路 및 철길 建設 이외에, 炭鑛에서의 石炭採取 問題가 상당한 比重을 가지고 詩作品 속에 나타난다. 이른바, 石炭戰線의 돌격대원들이 검덕, 안주탄광 등에서 祖國과 黨 그리고 수령을 모신 社會主義完全勝利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습이 作品 속에 담겨 있다.

나는 다시 떠나가리라  
위대한 수령님 새해 첫아침에  
웅대하게 펼쳐주신 그 길을 따라  
검덕의 아들이 되어

나의 광부모, 나의 안전등이  
기둥뿔에 걸려있는 합숙방으로  
나의 쇠돌 나의 시도  
거기에 다 있는 정든 막장으로

럼우봉의 〈수도에 돌아와〉(1987. 1)

위 作品은 검덕 탄광의 광부가 잠시 돌아왔던 집을 떠나 炭鑛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검덕의 炭夫는 수령님이 新年辭에서 펼쳐준 길을 따라 검덕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니와, 그는 검덕에 있는 합숙방, 안전등, 광부모, 막장 등에 對해 한없는 情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무산의 광부들을 그린 주광남의 作品 〈철산봉에 산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무산광부!  
당이 불러주고 온 나라가 외우는 그 이름  
제 한 이름보다 소중히 간직하고  
늘어나는 쇠돌량  
거기서 삶의 보람을 누리며  
오, 무산의 광부들은 철산봉에 산다

주광남의 〈철산봉에 산다〉(1989. 2)

인용작품은 黨의 부름에 따라 무산의 광부로 일하며 삶의 보람을 거기

서 느낀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 個人을 철저히 바치며, 黨과 祖國의 發展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무산광부들의 삶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의 詩에 反映된 건설사업 가운데 또한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간석지 개간사업과 製鋼, 製鍊事業이다. 이 중 간석지사업은 < 4대 자연개조건설 >의 일환으로 國土의 面積을 擴大시킴으로써 여러 方面의 生産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러 편의 간석지 시편 중에서 로승모의 <탄생> (1981.10)을 實例로 들어본다.

동무여 우리는 섰구나

마지막제방을 쌓아가는 여기

모든것이 소리치며

모든것이 용쓰는

간석지전투장

성에 나사운 서해

검푸른 파도는 삼킬듯 달려들고

하늘도 바다편이라고

장검같은 번개를 내려꽂으며

벌써 몇밤을 지새였느냐

날이 새고 파도는 밀려가고

아득한 지평선이 솟을 해를 반기며 펼쳐졌구나

로승모의 <탄생> (1981. 10)

이 작품 <탄생>은 간석지 사업의 어려움과 보람을 묘사하고 있다. 파도와 싸움을 당당히 이겨내고 마지막 제방을 쌓는 노동자들의 기쁜 마음과 조국에 대한 忠誠의 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간석지 전투장”이란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간석지사업장은 혼신을 다

하는 전투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간석지사업에 參與하는 일이야말로 수령의 뜻에 따르는 일이며, 그에 忠誠하는 일이고,樂園의 共產主義에 가 닿으려는 信念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리명철의 〈좋다! 직선동쪽〉(1989.1)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다음은 製鋼, 製鍊企業의 현장과 관련된 作品을 引用하기로 한다. 詩作品에 나오는 製鐵, 製鋼企業의 현장 중에서 강선제강련합기업소 혹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현장이 초를 이룬다.

강선제강련합기업소 확장설계도 앞에서  
설비도, 기술도, 원료도 우리의 것으로  
파도치는 쇠물, 강재의 바다  
굽이치는 노을속에 찬란히 솟아오르는  
1500 만톤의 강철고지

김창걸의 〈환희〉(1984.11)

引用된 김창걸의 〈환희〉는 1,500 만톤의 鋼鐵高地를 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에 〈80년대 속도〉를 더한 기세로 돌진하는 熔解工들의 威力과, 主體工業國의 모범처럼 國內의 設備, 國內의 技術, 國內의 原料로 鋼鐵工業에 臨하는 강선제강련합기업소의 실상을 자랑하고 있다. 리영봉의 作品 〈수령님 아끼시는 빛나는 땅이여〉(1984.11)에 따르자면, 이 製鐵所의 計劃을 세운 것은 위대한 수령님이고 그 터를 보아둔 것은 이미 수십년전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 이외에도, 많은 建設現場이 北韓의 詩에 등장한다. 예를 들자면, 광복거리 건설현장, 룡성기계련합소 현장, 봉화감문 건설현장, 남포감문 건설현장, 방사직장 건설장, 카리비료공장 건설현장, 지방산업공장 현장 등이 작품 속에 登場한다. 그런데 한 가지 特徵은, 갖가지 建設現場을 묘사한 작품들은, 다만 建設의 內容이 다를 뿐, 거기서 묘사되고 있는 勞

動者들과 建設現場의 분위기는 다 동일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建設現場의 노동자들은 黨과 조국, 수령과 社會主義의 完全勝利를 위하여 기쁨과 보람 가운데 獻身的으로 일하고 있으며, 黨과 수령은 이 勞動者들의 細細한 부분에까지도 관심을 쏟으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 事業計劃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차승수의 작품 < 1987 - 1993년 > ( 1987.3 )은 이른바 第3次 7個年計劃의 實現이 北韓社會에서 社會主義經濟建設을 爲하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端的으로 보여준다.

### 3) 영웅과 共產主義的 人間型

北韓의 詩作品을 통해서 볼 때, 北韓에서 人民들에게 최고의 價値를 두고 要求하는 것은 영웅 혹은 共產主義的 人間型이 되라는 것이다. 영웅에게는 훈장이 주어지거니와, 수많은 삶의 현장속에서 이 훈장의 價値가 찬양된다. 그러면 먼저 영웅과 關聯된 作品을 引用하기로 한다.

그 말없는 한알의 새종자를 위해  
아름다운 처녀의 꿈도  
동무들이 손잡아끄는 즐거운 명절놀이도  
사랑을 속삭이는 청춘의 행복도  
고스란히 바친  
불타는 그 충성  
하루를 10년같이  
10년을 하루같이  
땅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고  
사심을 모르는  
말없는 진정에 뿌리를 둔 충성심

그 충성심이  
얼마나 무한한 힘을 낳는가를  
얼마나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가를  
말없이 보여준 숨은 애국자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한생을 바치는 삶이란  
그 아무리 심산속에 묻혀있어도  
만천하에 꽃향기 넘친다는것을  
수령님의 기쁨으로 꽃핀다는 것을  
그대의 크나큰 노력은 말해주누나

숨은 영웅들의  
말없는 진정을 안고  
모두다 따라나가는 길에서  
이 땅은 숨은 영웅의 위훈으로  
더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리라

리계심 <말없는 전쟁> (1980. 3)

영웅이란 무엇을 意味하는가. 위 作品에 따르자면, 영웅은 自身の 이기적 慾望을 철저히 버리고 共同의 利益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사람, 또는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들어 한평생 충성의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한다. 위의 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한알의 새 종자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의 꿈도, 즐거운 명절놀이도, 사랑을 속삭이는 청춘의 幸福도 다 바친, 그런 사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영웅은 共產主義的 인간형과 같은 것인데, 共產主義的 人間型이란 철저히 자기의 이기적 慾望을 克服하고 共同體意識에 바탕을 둔, 人間의 善한 性質만을 實現시킨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조



선문학〉誌에 수록된 〈공산주의인간학의 새역사〉(〈론설〉 1984.2)를 볼 것 같으면, 共產主義的 人間이란, 자신의 運命과 世界의 주인으로 된 人間, 自主的이며 創造的이고 意識的인 주체형의 인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共產主義的 人間은 他人의 명령에 의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발적으로 창조적인 勞動에 臨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敎示를 빌어서 表現하자면, 공산주의적 인간은 “어떤 초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個人의 名譽나 報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黨과 革命의 利益, 社會와 人民의 利益을 위하여 누가 보건 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꾸준히 일하고 있으며 黨政策을 관철하기 위한 鬪爭에서 革命的 열의와 創造的 積極性을 남김없이 발휘”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作家나 詩人들은 이러한 肯定的 人물을 그려냄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따르게 하고, 나아가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영웅이나 거인으로 키우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국영웅대회〉에 參加하고 나서 쓴 작품을 통하여 영웅과 그가 가슴에 달고 있는 훈장의 意味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으로 가슴가슴에 빛나는 금별훈장  
 그것은 어버이수령님 바라시는 길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앞서 걸으신  
 충성의 자욱  
 그 길우에 우리모두들 손잡아이끌어주신  
 고귀한 사랑의 빛발이거니  
 이 나라 영웅전사들 모두의 스승  
  
 우러러 북받치는 간절한 생각  
 우리모두의 가슴가슴에 빛나는  
 은하같은 이 훈장들을 모두 모아  
 수령님 모시고 그이 가시는 길에

그대로 별주단을 펴드리고싶어라  
그대로 금별의 방석을 수놓아드리고싶어라

윤영탁의 〈금별의 대하속에〉 (1989. 2)

위의 詩에 따르자면, 公式的으로 〈전국영웅대회〉가 열리는 것 같다. 이 영웅대회에 參席한 한 英雄戰士는 말하기를, 指導者同志 곧 김정일은 영웅 전사들 모두의 스승으로 자신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신들에게 달아준 금빛 勳章을 모두 모아, 지도자동지가 수령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별주단으로 펴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에게 금별의 방석을 깔아드리고 싶다는 것이다. 北韓의 詩를 통하여 나타나는 英雄의 本質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수령에게 忠誠하고, 革命的 利益을 위하여 個人的 이기심을 버린 대가로 받은 勳章이건만, 그 勳章을 자신의 영예를 드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수령과 지도자동지에 대한 忠誠을 위하여 使用하는 것, 이것이 바로 北韓의 詩에 나타난 영웅의 特徵이다.

이러한 特性을 가진 영웅이나 共產主義的 人間은 삶의 現場에서 항상 수령과 祖國에 대해 감사하고, 그로 인해 무한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그런가 하면, 나날의 삶이 獻身의 過程으로 이루어져 있다. 北韓의 詩에는 이러한 영웅들의 모습이 각종 建設現場의 勞動者들을 묘사한 데에서 자주 나타난다.

고운 얼굴 살짝 붉히며  
아직은 전기차도 못끝냈는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는가  
이 우로 전기기관차가 달릴 때까지  
치녀시절을 여기서 마치겠노라고

리광조의 〈치녀시절의 마지막은—〉 (1989.2)

땀젖은 군복을 갈아입을새 없이  
갱도를 뚫고 폭약을 장진하며  
병사들이 맞이한 이 순간은  
조국의 수많은 날들 중에 작은 물방울  
대하의 장대한 흐름에서  
그 작은 물방울이 무슨 대수랴

그들에게는 명예를 바란적도 없노라  
순간을 한생처럼 빛내며 살자고  
당앞에 맹세한 그 신념으로  
300 만산을 들여옮길  
대담한 작전을 벌려왔거니

윤경극의 <조선의 보통날에> (1989. 1)

引用詩 ①은 한 女性 勞動者가 자신의 처녀시절을 철길 건설에 바치겠다고 기꺼이 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여성 노동자는 英雄의 精神을 所有하고 있거니와, 그것은 個人의 慾望을 사심없이 祖國에 獻納하는 데서 엿보인다. 그런가 하면, 引用詩 ②는 고속도로 建設現場에서 兵士들이 祖國에 바치는 충성의 情을 표현하고 있다. 이른바 軍人建設者라고 불리우는 兵士들은 위의 引用詩 ②를 통해서 볼 때, 젖은 군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자발적으로 勞動에 積極 參與하거니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어떤 代價나 名譽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히려, 兵士들은 자신들의 勞動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이냐고 안타까워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人間이 바로 北韓社會에서 要求하는 英雄 내지는 共產主義的 人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言及해야 할 것은, 그들이 말하는 바, 영웅들의 이러한 行爲는 철저히 自主的이고 創造的이며 意識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社會主義 農村테제와 社會主義 教育테제

北韓의 詩에서 드러나는 北韓社會의 실상 중, 이른바 “알곡고지점령”으로 提示된 農村問題가 또한 重要하다. 農村經濟 역시 社會主義經濟建設을 위한 分野로서, 北韓의 적지 않은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社會主義 農村테제의 實現을 위하여 北韓에서 實施한 가장 중요한 農村改革은 뭐니뭐니해도 土地改革이다. 이 土地改革과 관련된 內容이 北韓의 詩에 상당히 자주 表象되거니와, 그 內容이란 대부분이 수령님으로부터 分여지를 나누어 받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팻말을 分여지에 꽂았을 때의 기쁨과 수령님에 대한 感謝의 마음을 전하는 것들이다. 그러면 作品을 引用하면서, 이 問題를 論議하기로 한다.

맑은 하늘가에

우짚는 종다리

물오른 벼들방천

시내물소리 정다운

봄

해방된 강산에 찾아온

첫봄

땅을 分여받은 고마움에

새벽부터 흥성이는 성문마을의 아침

꿈만같이

정녕 꿈만같이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동구길에 들어서시는

아,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이시여!

감격에 겨워 흐느끼는 소리  
농민들의 평생소원 풀어주신  
그 은혜만도 하늘같은데  
그 기쁨에 기쁨을 더해주시려  
땅을 나눠주신 그 걸음으로  
이 먼 고장까지 찾아주실 줄이야

(중략)

땅 때문에 머슴을 살았고  
땅 때문에 고향을 떠났던 설음  
대를 이어 피눈물로 밭고랑을 적시여도  
죽어문힐 한치 땅이 없었던 그 원한  
가슴의 멍어리 다 풀어주시는  
아버이 은혜로운 그 손길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려  
두손으로 표말뚝을 더듬어안는  
로인의 그 마음에  
〈땅은 영원히 농민들의 것입니다〉  
다시금 뜨겁게 새겨주시며  
쿵쿵 대지우에 표말이 내려지는  
장엄한 메아리어

리동후의 〈땅의 새 력사〉(1980. 3)

더 이상의 설명이 不必要할 만큼, 위의 引用作品은 수령의 탁월한 領導  
力과 뛰어난 實踐意志로 실현되었다고 말하고, 土地改革의 귀중함을 傳達하  
고 있다. 위의 詩를 통하여 나타난 바로는, 金日成이야말로 소작인들을 설

움과 恨으로부터 解放시킨 영웅이요, 직접 그 농촌을 찾아주는 사랑의 化身이다.

위의 引用作品 以外の 많은 詩들이 이 土地改革의 정당성과 위대성을 빈번하게 形象化하면서, 수령과 黨을 中心으로 하여 展開되고 있는 社會主義 농촌체제의 勝利를 앞당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농촌체제가 그려준 새 세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로  
내 여기에서 맞이할 나의 포전  
오, 은혜로운 당이 80년대에 펼친  
또 하나의 혁명은 아니던가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

김정철의 〈나의 포전〉(1989. 3)

방금 인용한 김정철의 〈나의 포전〉은 社會主義의 完全勝利가 實現되는 날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 될 것이라니와, 이와 같은 새 세상은 은혜로운 黨이 80년대에 펼쳐보인 하나의 혁명이라는 內容을 전달하고 있다. 이 社會主義 농촌체제가 發表된 것은 1964년이다. 그 이후 北韓은 主體農法과 농업의 機械化, 科學化에 큰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北韓의 詩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배미마다 트랙또르 기세를 돋우고  
기계화작업반 창고마다엔  
기계들이 제철을 기다리거니

정성환의 〈마흔해 전 그 봄날은〉(1986. 3)

트랙또르로 代表되는 北韓農村의 機械化와 技術化 問題는 詩作品의 主要 테마이다. 위 作品도 트랙또르가 보기 좋게 기세를 올리는 농촌풍경과 창

고마다에 쌓여있는 기계들이 어서 제철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농촌의 機械化問題를 表現하고 있다. 그런데 特徵적인 것은 作品에 나타난 농촌의 機械化와 技術化 그리고 科學化와 主體農業의 실현이 모두 수령과 黨의 위대한 政策에 의하여 이룩되고 있다는 것과, 農民들은 그것에 對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무한히 가지고 있다는 內容이다.

社會主義 농촌테제와 더불어 또 한 가지 登場하는 主要問題는 社會主義 教育테제이다. 사실, 이 問題는 詩 속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人民大學習堂으로 表象되는 사회주의 教育테제는 北韓社會의 관심있는 事業內容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장운길의 作品 〈교육테제 만세!〉(1983. 9)라든가, 리효윤의 〈인민의 학습당, 위대한 사랑이여!〉(1985. 3)와 같은 作品은 이 教育問題를 형상화한 代表作이다.

타버린 조국의 재무지 빈터우에  
 아이들의 학교부터 세워주시던 그 사랑으로  
 교육테제의 조항조항을 엮으시고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 사회 인테리화의 넓은 길 펼치시며  
 공산주의교육강령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

자랑이여라  
 이름없는 두메산골  
 저 멀리 외진 섬에 가도  
 떠가는 배  
 달리는 열차에 올라도  
 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는 나라

행복이여라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아버이로  
학부형으로 모시고  
온 나라 인민이 학생이 되어  
배우는 나라  
교육을 받는 나라  
  
80년대의 숨결로 내닫는 이땅  
온 사회의 인테리화로  
문명의 높은 절정우에  
온 나라 인민들을 세워주는  
교육테제 만세  
사회주의교육테제 만만세 !

장윤길의 〈교육테제 만세 !〉 ( 1983. 9 )

위의 인용시에 따르자면, 수령님이 펼쳐주신 교육테제의 깃발 아래에서, 온 人民은 教育을 받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온 社會의 인테리화가 實現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테제와 關聯하여 建立된 것이 人民大學習堂인데, 北韓의 詩에 나타난 인민들은 모두가 學生의 身分이고 수령과 黨中央은 아버지이며 학부형이라는, 師弟之間 혹은 父子之間의 關係를 形成하고 있다.

### 3. 分斷의 現實과 統一

#### 1) 南韓政府 非難과 反美政策

北韓의 詩에는 南韓政府를 비난하고 美國을 원색적으로 증오하는 內容이 자주 등장한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조선문학〉誌의 每號마다에 이



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거의 지속적으로 두 세 편씩 실려 있다.

먼저 詩에 나타난 南韓政府 非難의 실상을 살펴볼 것인데, 이 경우에는 南韓의 最高 統治者였던 전두환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集中的으로 非難한 實例가 대부분이다.

입에 담기조차  
글에 옮기기조차  
역스러워진다  
인피를 쓴 미국놈의 개  
-전두환

나는 부끄러워지는구나  
네가 나와 같이  
한 조선사람의 이름을 달고있다는 것이  
네가 우리와 같이  
한 강토우에 살고있다는 것이

손에 피를 주무르기 위해  
동족의 선지피를 받아내기 위해  
이들을 굶긴 창자에 흥분제를 처먹이고  
줄개들을 살육장에 내몰은 인간백정  
- 전두환

미쳐날뛰다  
인민의 피로 바꾼  
<대통령> 감투 정수리에 올려놓고  
발밑에 타오르는 분화구우에서

망나니의 마지막 춤으로

한껏 미쳐날뛰라

사원것이 아니다

불길은 -

네놈의 흉탄을 받아

벌린채 굳어진 입가에 맴돌던 노래소리

못다부른 항쟁의 노래높이

광주의 아들들은 다시 돌아오리

(중략)

꽃도 피지 말라

새들도 우짖지 말라

그 하늘아래에서

<유신>의 그림자조차 깡그리 없애기전에

강물처럼 흐르는 인민의 피값을 받아

네놈에게 천벌죽엄 만벌죽엄을 주기전에는

삭일수 없는 아, 삭일수 없는

이 분노, 이 저주 -

세월이 흘러

남녘땅에도 행복한 날이 오면

그 많은 불행과 고통을 잊을수도 있으리

삭일수도 있으리

그러나 너의 이름만은 지워지지 않으리

인민의 저주와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

조성관의 〈저주〉(1981. 9)

위의 인용작품 以外에도 전두환 政權을 全面 부정하고 경멸하는 作品은 여럿 존재한다. 예를 들면 김경기의 〈돌밖에 모르는 전두환〉(1986. 1) 김준한의 〈울분에 편다〉(1987.6), 리동후의 〈단죄한다, 매국역적을〉(1984. 11) 등이 그것인데, 이 作品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特徵은 위의 인용시에서 나타나는 것과 거의 같다. 말하자면, 전두환은 미국의 꼭두각시이고 수많은 同族을 光州에서 죽인 결과 政權을 부정하게 獲得한 者이며, 南北分斷을 고착화하기 위해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民族으로서의 北韓人民과 그 抑壓과 苦痛을 당한 南韓 同族들은 전두환의 존재에 삭일 수 없는 憤怒를 느낀다는 것이다. 어찌 그뿐인가. 전두환의 죄는 영원히 이 땅에서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北韓의 詩에서 南韓政府나 그 統治者를 비방할 때 使用하는 方法은, 統治者로서의 대통령이나 그 체제인사들을 모두 國民의 敵으로 몰아붙임으로써, 統治者와 國民들 間의 첨예한 對立的 狀況 속에서 교묘하게 南韓의 國民을 동정하고 이해하는 포즈를 取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詩에는 南韓의 政府나 통치자를 신랄하게 批判하는 경우는 있어도, 南韓의 一般國民들이나 反體制 내지 反政府 人士들을 批判하는 例는 전혀 없다.

第5 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非難하고 경멸하면서 南韓의 體制 自體를 부정하려고 하던 內容은 제6 공화국의 노태우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제6 공화국이 들어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노태우 대통령이나 6 공화국에 대한 非難의 詩는 전두환 전대통령과 5 공화국의 그것에 비해 數字上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그 非難의 方法과 非難의 정도는 同一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引用될 詩는 노태우 대통령을 激烈하게 비난한 것이다.

군복우에 양복 입고

〈대통령〉 감투 쓰고  
민중이 쭉대에 올라간듯  
거들대는 너 로태우  
  
아무리 권세가 탐나고  
황금이 좋기로니  
구미호도 못담할 요사를 부러  
하루 아침 슬쩍 〈민간인〉되고  
어느새 제껴 〈감투〉까지 뺏어쓰다니

네놈의 그 변신술, 둔갑술에  
짐승들도 침뱉는다  
하는 수작, 하는 거동  
온통으로 뒤바꾸니  
말만해도 역겨워……

미제의 〈군견〉으로  
날뛰던 때가 언제인데  
흰 장갑 낀다고 피자육 감취질까  
〈위령탑〉을 세우며 눈물까지 흘린다고  
인민들의 그 원한 삭아질까

(중략)

〈팀 스피리트〉의 표정은  
〈평화〉의 북소리고  
최루탄가스는 〈민주〉의 꽃가루라고  
〈러객기사건〉은 〈북의 소행〉이니

유엔에서 <제재>해달라고  
아무리 양탈해도 안된다  
진실과 허위는 못바꾸는법

(중략)

인민의 심판대에  
오르는것은 다만 시간문제뿐  
그때엔 로태우 네가 즐기는대로  
거꾸로 매달리라  
그 <감투>는 뒤집혀 덩굴리라

안정기의 <정해진 운명> (1989. 1)

앞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숨도 못쉬게 非難하던 경우와 같은 方式으로 노태우 대통령을 非難하고 있다. 위 作品을 通하여 시인 안정기가 비난한 노태우 대통령의 모습이란, 美帝의 軍犬이고, 외양만 民間人 服裝을 하고 國民들을 속이는 변신술사이며, 광주학살의 主된 責任者이면서 그들을 慰勞한다고 二重的인 제스처를 쓰는 사람이고, 北侵의 野慾으로 팀 스피리트 訓練을 主導하면서 여객기 사건(김현희가 爆破한 여객기 事件)을 北의 所行이라고 둘러대는 거짓말의 명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이 人民들의 심판대에 올라갈 것은 時間問題요, 정해진 運命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北韓은 南韓의 統治者를 國民들과 敵對關係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南韓 內의 和合을 破壞시키려고 企圖한다. 물론 統治者의 잘못을 指摘할 수 있다 하더라도, 南韓의 統治者와 國民들을 전적으로 대척관계 위에 놓고 統治者를 일방적으로 난도질하듯 매도한다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南韓의 統治者를 형상화할 때와, 北韓의 統治者를 형상화할 때에 보이는 그들의 態度는 완전히 정반대이다. 말하자면, 金日成은

神과 같은 存在이고, 北韓의 統治者는 포악한 짐승만도 못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詩에서 南韓의 統治者 以上으로 증오와 경멸의 對象이 되는 것은 美國이다. 北韓의 詩에서 美國은 원쑤의 나라요, 南北分斷 固着化의 원흉이며, 수많은 北韓人民을 살상한 敵의 國家이다. 그뿐만 아니라, 美國은 南韓의 獨裁政權과 손을 잡고 南韓의 國民을 獨裁治下에 몰아넣는 專制主義 國家 내지는 帝國主義 國家로 묘사된다. 다음에 引用될 作品은 팀 스피리트 訓練과 關聯하여 美國을 敵對視한 作品이다.

〈 팀 스피리트 85 〉

원쑤놈들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다는  
방송원의 격분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내 어찌해 땀에 손이 나도록  
총이여, 너를 틀어잡았던지

이 땅을 넘겨다보며  
침략의 불길을 일으키려는  
미제를 그대로 둘 바에야  
나는 뿔하러 군복을 입었더냐  
너를 뿔하러 이 가슴에 안았더냐

박세일의 〈 총과의 이야기 〉 ( 1985. 3 )

위 詩에 따르자면, 팀 스피리트 훈련은 곧 北侵의 訓練이 된다. 作品 속의 兵士는 팀 스피리트 훈련이 戰爭挑發에 날뛰는 美國의 策動이라는 放送을 듣고 손에 땀이 나도록 총을 틀어쥐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兵士는 侵略의 원흉인 美帝國主義를 그대로 둘 바에야, 군복을 입는다는 일이 부끄럽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引用作品 以外の 北韓의 詩〈음

모에 미친 백악관〉( 1986. 6 )에는 美國의 백악관이 음모에 미친 場所로 묘사되어 있고 문성락의 〈농민전사〉( 1981. 8 )에는 한 農民戰士가 美帝를 물리치기 위하여 非常米는 덜어내도 총탄은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美國은 5. 18 光州事件을 전두환 政權과 合作하였고, 그런 까닭에 그들은 光州事件의 殺人者라는 內容을 문제건의 〈원혼들〉( 1987. 5 ) 속에 表現하고 있다. 이처럼 北韓의 詩에 나타난 美國은 원쑤의 나라요, 부수어 없애버려야 할 敵의 나라이다. 北韓의 詩는 美國을 형상화하는 자리에서도 美國을 南韓 國民과 敵對關係 위에 놓고 美國을 帝國主義의 폭력자로 몰아붙이고 反面 南韓 國民을 고통받는 者로 二元化시켜 美國과 南韓國民 사이의 敵對關係를 助長시키고 있다.

## 2) 南朝鮮解放과 統一

北韓의 詩에 나타난 南韓은 獨裁政權과 美帝國主義로부터 解放되어야 할 對象이다. 이 해방의 일선에 나서야 할 것은 南韓의 反政府, 反體制, 反美人士들과 學生들 그리고 全國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詩는 南韓의 5. 18 光州事件을 重要的 詩的 素材로 삼고 있거니와, 反政府 鬪爭과 反美 鬪爭에 앞서는 사람들을 宣動하고 그들을 英雄처럼 묘사한다.

### ①고려대학의 학우들이여

서울, 연세, 성균관 대학의 젊은 용사들이여  
 치욕에 떠는 강토의 울분을 안고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아성을 향해  
 육탄이 되어 매진하라

김준한의 〈울분에 떠다〉( 1987. 6 )

### ②학원을 빼앗긴 청년학도들이여

해고당한 남녘의 로동자들이여

리농의 보짐을 꾸리는 농군들이여  
달아오른 마차와 쟁기를 추켜들고 나서라!  
하루의 일자리를 찾기전에 먼저  
영원한 민주의 터전을 닦기 위해

진정 참된 자유의 봄을 위해  
어버이수령님 품에 안길 그날을 위해  
온 남녘이 떨쳐나 뒤집어엮자  
썩고 병든 암흑의 사회를!  
영원한 태양의 빛발 속에  
삶이 꽃필 그날을 위하여 -

리영복의 <남녘에 부치노라> (1987. 6)

引用詩 ①은 南韓의 大學生들에게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아성을 향해” 鬪爭하라고 외치는 內容으로 되어 있다. 北韓의 詩에는 항상 美國이 美帝로, 南韓의 政權이 괴뢰정권으로 표현되어 있거니와, 南韓의 反政府 투사들이나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육탄이 되어 매진하라”는 式의 內容이 담겨 있다. 그럼으로써, 北韓은 恥辱에 떠는 불쌍한 南韓의 疆土를 이들로부터 解放시켜야 한다고 反政府 鬪士와 大學生들에게 宣動하는 것이다. 한편 引用詩 ②를 볼 것 같으면, 現政權에 의하여 統治되고 있는 南韓은 “썩고 병든 암흑의 사회”요, 그렇기 때문에 南韓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즉 學園을 빼앗긴 青年學徒, 해고당한 勞動者들, 移農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농군들은 이 썩은 社會를 뒤집어엮고 “어버이수령님 품에 안길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詩가 보여주는 내용에 의하자면, 병들고 썩어 있는 南韓 社會는 破壞되어야 할 對象이고, 그 속에 사는 國民들은 解放의 對象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解放된 社會란, 곧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社會를 의미한



다. 따라서 그들이 意味하는 바, 南韓의 民主勢力뿐만 아니라 北韓 人民全體는 南韓을 解放시킬 義務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分斷을 가로막는 南韓의 統治勢力과 體制維持 勢力, 그리고 美帝國主義者들을 南韓에서 몰아낼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統一이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이다.

統一과 南韓의 解放이라는 主題와 關聯해서 創作된 作品 가운데서 光州 5·18 事件을 素材로 한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 구희철의 〈피흘린 땅에 자유는 오리〉(1988. 5), 조병석의 〈피의 부름〉(1985. 6) 등 여러 作品이 1980년 이후 계속 創作되는데, 이들은 5·18 光州事件을 “光州 人民 봉기”라고 부른다. 1984년에는 “광주인민봉기 4돌”을 紀念하는 詩가, 1986년에는 “광주인민봉기 6돌”을 紀念하는 詩가 문재건에 의하여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다.

北韓은 이와 같이 光州사건을 民衆의 革命과 南朝鮮의 解放이라는 次元에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南韓에 거주하는 反體制 革命家를 作中 話者로 삼아 南韓體制 顛覆을 擁護하고 있다. 김경기가 創作한 〈남조선 혁명가의 노래〉가 그와 같은 경우의 代表的 實例이다.

어두운 남녘에 려명을 불러  
투쟁의 날이 밝는다  
파쇼의 광풍이 몰아칠수록  
혁명할 결심은 더욱 불타네  
  
이 길이 멀고 준엄하다고  
가는 길 되돌아서라  
  
통일혁명은 곡절 많아도  
주체의 신념은 굽힘없어라  
  
깜깜한 남녘에 어둠을 태울

혁명의 불이 되리라  
 억압의 철쇄를 두드려부실  
 민중의 억센 마치가 되리  
  
 우리의 향도성 그 빛발따라  
 민중의 새세상 동터오리라

김경기의 <남조선 혁명가의 노래> (1988. 1)

위의 引用詩를 따르자면,南韓은 파쇼의 광풍이 몰아치는 곳이고,民衆들을 抑壓의 철쇄 속에 가두어두는 감옥과 같은 곳이다. 따라서 향도성인 김일성 김정일의 높은 뜻을 따라,解放의 날,民衆의 새세상이 올 때까지 革命의 불,鬪爭의 불을 지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北韓은南韓을 이와 같은 어둠과 파쇼의 抑壓이 판치는 나라로 전제해놓고, 자신들의 革命과 南朝鮮解放의 信念을 하나의 義務이자 드높은 價値의 實現으로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 3) 國際親善과 世界青年學生祝典

第13次 世界青年學生祝典은 1989년의 <조선문학>誌에 새롭게 登場한 詩的 素材이다.北韓은 平壤에서 開催될 이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대대적으로 宣傳함으로써 北韓과 平壤의 國際的인 位置를 드높이고자 한 것 같다. 그런데 이 世界青年學生祝典과 관련된 作品들은 대개 두 가지 內容으로 區分이 可能하다. 그 하나는 祝典行事 準備의 완벽성과 北韓의 國際的 親善關係를 強調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祝典準備를 위하여 勞動者들이 바쳐야 할 勞動의 보람과 意味를 強調한 것이다. 前者와 같은 內容을 담은 作品에서 北韓은 아름다운 유토피아이고 平和志向의 화신처럼 묘사돼 있다. 김석주가 創作한 <벗들을 기다리는 마을> (1989. 1)의 일부분을 引用하고 論議를 계속하기로 한다.

찾아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 살아보고 싶으리  
만경대에 잇닿을 대통로를 끼고  
웅장하게 뻗어간 광복거리

여기서 살아보지 못한다면  
한번 걸어라도 보고싶으리  
광복거리에도 한복판에 즐비하게 늘어선  
불러 정다운 그이름 축전동

하지만 그대 누구이던  
반제, 평화의 노래를 안고  
친선단결의 춤을 안고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달려올 벗 이라면

대륙을 지나왔건  
바다를 건너왔건  
려권 하나면  
여기 축전동에 거주할 수 있으리

김석주의 <벗들을 기다리는 마을> (1989.1)

위의 詩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北韓은 누구든지 한번  
쯤 살아보고 싶은 곳이고, 살아보지 못한다면 걸어보고라도 싶은 곳이라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 그 누구든 평화의 노래, 親善의 춤을 추며 달  
려오지 않겠느냐는 것의 위의 作品이 지닌 내용이다. 그러나 世界青年學生  
祝典을 素材로 한 作品 이외의 어느것을 보아도 北韓作品에 나타난 北韓  
社會가 어둡고 부조리한 경우는 결코 없다. 언제나 北韓의 作品에 묘사된

北韓社會는 행복과 기쁨, 보람과 평화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에 반하여, 南韓은 불행과 슬픔, 抑壓과 갈등만이 들끓는 곳으로 묘사돼 있다. 이 왜곡된 黑白論法 내지 이분법적 시각이 北韓의 詩에 基本文法으로 자리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認識해야 한다.

國際親善을 유별나게 強調하는 作品 하나만을 더 인용해보기로 한다.

아, 민족과 신앙은 달라도  
반제련대성 친선 평화를 위한길에  
하나로 굳게 뭉치며  
종루높은 사원으로 성지로 옮기던 발걸음들도  
끝없이 찾아올 축전도시 평양  
  
이 세상 광막한 저 하늘아래  
투쟁하는 청년들이 친선 평화의 대합창  
오 세계에 다시 한번 울릴 평양  
여기 평양으로 어서오시라

최치영의 〈평양은 기다린다〉 (1989.1)

위 作品의 核心은 反帝와 親善平和이다. 北韓은 平壤祝典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反帝와 親善平和의 精神을 守護한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은 守護를 위해 자신들이 祝典準備를 완벽하게 해놓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平壤靑年祝典을 위해 北韓 住民들이 全力을 다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차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철진의 〈내 가꾸는 꽃〉 (1989.3)이 그 대표적 實例이다.

내 가꾸는 금전화, 백일홍, 나리꽃 -

보아줄이 얼마일가  
그려볼수록 성수나서  
차마 일손을 놓지 못한다오

정철진의 〈내 가꾸는 꽃〉(1989. 3)

위 作品은 타인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努力을 기꺼이 바치는 共產主義的 人間型을 作中 話者로 삼고 있다. 이 類型의 人間은 北韓의 詩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人物이 등장한 것은 평범한 事實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言及하고자 하는 것은, 平壤青年祝典과 그에 參加할 사람들을 最高地點에 올려놓고 北韓住民들이 이타적 사랑으로 努力奉仕하는 모습을 유별나게 強調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 이외에, 국제친선의 문제가 北韓의 詩 속에 나타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中國과의 親善問題를 다룬 경우다. 김정철의 〈내 집으로 오는 길〉(1985.10), 황승명의 〈잊지 못할 전우여〉(1985.10), 홍준성의 〈平壤-베이징〉(1984.10), 한원희의 〈친선의 다리〉(1983. 7) 등이다. 이 作品들은 대개가 反美感情을 저변에 깔고 있으며, 相對的으로 中國과 가졌던 友好的 關係와 共同의 理念을 부각시킴으로서 두 나라 사이의 親善關係를 再確認하고 있다.<sup>6)</sup>

-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와 불멸의 업적, 영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주제로 한 작품
- ② 우리 당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 영도의 현명성이 빛나는 혁명업적을 주제로 한 작품
- ③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과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난 조국해

---

註 6) 다음은 〈조선문학〉(1982.8)에 掲載된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요강〉인데, 우리는 이 要綱을 통하여 北韓에서 詩人, 作家들에게 어떤 內容의 作品을 政策的으로 要求하는가에 對해 어느 정도의 知識을 具體的으로 얻을 수 있다.

\* 懸賞募集作品의 主題

방전쟁시 영웅적 위훈을 발휘한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

- ④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 6 차대회 보고에서와 혁명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 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진군에 한사람 같이 일떠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
- ⑤ 수령과 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간직하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부단히는 시련과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3대혁명전선을 빛나게 관철해가고 있는 근로자들의 영웅적 투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
- ⑥ 조국통일의 새로운 방안을 높이 받들고 신심과 희망에 넘쳐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조선 공민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 Ⅲ . 맺 음 말

지금까지 筆者는 月刊 〈조선문학〉誌의 1980年代 분에 收錄된 北韓 詩를 통하여 1980年代의 北韓社會를 거칠게나마 探究해보았다. 이 研究를 遂行하는 데 있어서, 筆者는 철저하게 아무런 先입견 없이 作品으로부터 거기에 반영된 社會的 實상을 읽어내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北韓의 社會的 實상이란 文學작품 이외의 資料로부터 더 분명하게 把握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므로, 굳이 文學작품을 통하여 그 사회의 實상을 探究할 때에는 文學作品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實상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北韓의 詩를 통하여 나타난 北韓社會의 實상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되는 게 可能할 것이다.

1) 革命과 主體思想의 完成이라는 目標아래,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형직 등 김일성 가족의 革命歷史를 크게 부각시키는 일, 권력세습을 위하여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일, 당의 영도력과 사랑 그리고 조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일, 主體思想의 위대성과 그것의 창시자인 김일성과 그것을 발전시킨 김정일을 부각시키는 일, 3大革命運動과 그 精神을 부각시키는 일 등을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는 숨은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 나타난 것은 社會主義의 完全勝利와 共產主義를 完成시킨다는 名分이다.

2) 社會主義經濟建設을 이룩하는 것은 北韓社會에서 내놓은 80年代의 중대한 목표이다. 진정 北韓이 社會主義經濟建設의 실현을 目標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經濟成長의 실현을 目標로 하는 것인지 正確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이 내놓은 目標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에는 70년대의 천리마운동에 이어, 〈80년대 속도〉와 〈200일전투〉라는 速度戰이 目標達成의 方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建設事業 및 採取事業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에서 < 10대전망목표 >로 제시한 것을 達成하는 데 직접적 목표를 두고 있다. 앞서 말한 < '80年代速度 >와 < 200일전투 >라는 速度戰의 方法 이외에, 社會主義經濟建設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들은 共產主義的 人間型 내지 英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평범한 人間을 共產主義的 人間 혹은 英雄의 存在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社會主義經濟建設의 밑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며, 동시에 共產主義의 完成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라고 말한다.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한 분야이면서, 北韓에서의 農村問題는 또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社會主義農村체제의 실현을 위하여, 農業의 技術化와 科學化를 강조하고 해방 이후의 土地改革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3) 北韓의 詩는 分斷의 현실과 統一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南韓政府를 비난하는 내용과 反美政策을 원색적으로 표출한다. 특히 南韓政府를 대표하는 統治者들을 인간 이하의 次元에서 비난하고 있으며, 南韓의 體制 自體를 부정하고 있다. 이 때에 北韓이 使用하는 方法은 南韓政府와 국민들을 철저하게 적대관계에 놓고, 억압받는다 고 규정해놓은 국민의 편이 된 것처럼 자신들을 가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美國은 항상 美帝國主義로 표현되거나, 美國과 미국의 하수인으로 묘사된 南韓의 統治者와 그 政府가 分斷의 固着化를 가져온 責任者들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北韓은 남조선해방과 統一이라는 미명 아래, 南韓의 反體制 내지 反政府 人物들을 積極 지지 선동하면서 南韓의 해방의 시대, 民衆의 새시대가 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 그들은 光州事件을 민중봉기로 표현하면서 南韓의 政權을 파쇼暴力政權이라고 規定한다. 이 외에 13차평양청년학생축전을 이용하여 반제통일과 국제적인 평화친선을 자신들의 이미지 부각에 이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北韓의 詩를 통하여 위와 같이 探究해본 北韓의 실상을 보면서, 몇가지 생



각해볼 문제가 남는다.

첫째는,北韓에서의 詩人は 公務員에 준하는 資格을 가지고 있으며, 文藝 政策에 의하여 詩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詩人は 自由人이 아니라 黨의 政策을 실현시키기 위한 文예전사이고 투사이다.

둘째,北韓의 詩는北韓社會와 그들의 삶에 나타난 부정적 세계를 철저히 제거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作品에는 모범적인 것, 아름다운 것, 밝은 것만 의도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北韓의 作品은 세계를 균형있게 해석하고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希望하는 세계를 道德教師와 같은 視角으로 가르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北韓의 詩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北韓體制를 아무런 批判없이 그대로 추종하고 찬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北韓에서는 수령뿐만 아니라 그들의 社會와 體制를 批判하는 內容이 결코 作品의 內容에 담기지 않는다. 따라서 南韓에서의 文學과 그 社會的 機能을 基準으로 하여北韓 詩를 대하면北韓 시에 나타난北韓 社會를 제대로 把握할 수가 없다.

넷째,筆者 자신이나 南韓의 사람들 거의가北韓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감각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詩에 나타난北韓社會의 실상을 探究하는 데 있어서 선부른 批判과 判斷을 가하기가 困難하다.筆者의 이 글이北韓의 詩에 나타난北韓社會를 可能的限 作品 위주로 소개하는 데 그친 것은, 이와 같은 비판과 판단이 실상의 소개에도 못미치는 오류를 가져올 것 같기 때문이었다.

\* 참 고 문 헌

- 강동일 엮음. 「남한의 주체사상 논쟁」.(서울 : 밝은글, 1989)
- 구 상. 「북한문학-북한주민의 정서생활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자료관리국. 1978)
- 도홍열·이병혁·이온죽. 「북한사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1988)
- 박종원·최탁호·류만.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서울 : 인동, 1988)
-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1926-1945)」.(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_\_\_\_\_ . 「조선문학사(1945-1958)」.(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_\_\_\_\_ . 「조선문학사(1959-1975)」.(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서경석 엮음. 「해외동포가 본 북한과 그들의 통일논의」.(서울 : 민중사, 1988)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서울 :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양성철. 「분단의 정치」.(서울 : 한울, 1987)
- 양은식 et al. 「분단을 뛰어넘어」.(서울 : 중원문화, 1988)
- 이항구. 「북한작가들의 생활상」.(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1979)
- 조명훈. 「북녘일기」.(서울 : 산하, 1988)
- 홍기삼. 「북한의 문예정책과 문예이론」.(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1979)
- 〈문학사상사〉의 지상심포지움. “북한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문학사상」(1989.6)
- 〈실천문학사〉의 특집. “북한의 문학과 예술”. 「실천문학」(1988. 여름)
- 린저, 루이제. 「또 하나의 조국」. 한민 옮김.(서울 : 공동체, 1988)
- 하수도. 「유물론과 주체사상」. 전해원 옮김.(서울 : 시린새벽, 1988)

# 北韓社會와 兒童文學

— 社會化와 情緒形成의 메카니즘 —

윤 미 량  
(통일원조사연구실)

- I. 兒童文學의 目的性
- II. 北韓兒童文學의 基本性格
- III. 北韓兒童文學의 實際
- IV. 兒童文學에 나타난  
社會化의 目的價値
- V. 結 論

## I. 兒童文學의 目的性

어느 社會를 막론하고 兒童文學은 어린이를 그 社會의 成員으로 준비시키는 社會化의 한 有力한 도구로 機能하면서 또한 그 社會에 적합한 情緒와 人格을 갖추도록 하는 情緒教育의 機制로 作用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兒童文學은 지극히 目的的이다.

물론 文學이 社會를 반영하며, 社會를 모방함을 통해서 社會를 찬양하거나 혹은 批判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作家의 世界觀을 反映한다는 점에서 모든 文學은 目的性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成人을 對象으로 하는 경우엔 이야기의 흐름에 作家의 주장이 직접적으로 表明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혹은 은유와 암시를 통해서 作家의 견해가 “提示” 될 뿐이다. 그에 反해 兒童文學의 경우 대체로 作家의 주장은 직접적으로 表明된다.

이러한 兒童文學의 目的性은 그것이 非現實的·空想的 이야기이거나 혹은 抒情的 호소라해서 감해지는 것이 아니다. 非現實的 이야기를 통해서 作家는 어린이들에게 無限한 꿈의 世界와 現存하지 않는, 그러나 어찌면 可能할지도 모를 未來를 열어보이는 것이며, 이렇게 제시된 非現實的 비전(vision)이 어린이에게 創造的 能力을 키워주게 된다.

또한 抒情的인 童詩나 아름다운 전설, 그 속의 未知의 世界를 통해서는 어린이들에게 착한 것,善良的 것, 아름다운 것, 슬픈 것 등의 感性을 일깨우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 感性—情緒—이 人間의 보편적 정서에 기반한 것뿐만 아니라 그 社會에만 존재하는 ethos에 기반한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兒童文學을 통해 함양코자 하는 情緒도 실상 그 社會에 적합한 好不好的 感情 또는 그 社會의 기준에 一致하는 美醜의 판단을 前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抒情的이고 따라서 흔히 “순수”한 것으로 주장되는 兒童文學도 철저히 目的的이라는 것이다.

兒童文學은 왜 유난히 목적적인가? 그것은 文學이 現實을 통해서 現實을 극복하는 創造行爲로서, 人間의 情緒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兒童文學은 채 성숙되지 않은 백지상태 ( tabula rasa )의 어린이에게 “재미”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그 社會 혹은 그 作家가 추구하는 理想을 어떠한 강압이나 說教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적일 수 밖에 없다.

成人의 경우 살아오면서 얻은 무수한 經驗이 作家의 의도대로 讀者에게 영향이나 감동을 주는 것을 방해한다. 成人은 이미 現實에서 可能的 것과 不可能한 것을 區分할 수 있고 그 社會가 바라는 것과 自身이 바라는 것이 一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또한 成人은 그 社會가 요구하는 人格이 다른 社會가 요구하는 人格과 다를 수도 있으며, 더구나 社會가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本성과 現격히 괴리됨을 인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成人을 對象으로 하는 文學은 그 目的性을 은폐하는데 노력한다. 가능하면 作家의 목소리는 낮게, 조용히, 함축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兒童文學이 對象으로 하는 어린이는 “形成中”인 人間이다. Rousseau 이래 어린이를 모든 것이 可能的 잠재태로 파악해 온 教育學의 一部 조류가 지금은 많이 批判을 받고 있다하나, 어린이는 그가 받는 教育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人格이 形成될 수 있다는 믿음은 여전히 강력하다. 뿐만 아니라 政治學에서도 社會化를 통해 어린이는 社會에 一體화된다는 論理로서, 教育 및 環境이 人格形成과 態度形成의 決定的 變數임을 주장한다.

이것이 兒童文學을 유난히 더 目的적으로 만든다. 兒童文學이 指向하는 人間像은 천진한 백지상태의 아동에게 오해됨 없이 傳達되어야 한다. 兒童은 아직 좌절의 經驗이 적으므로 더 많은 未來를 꿈꿀 수 있다. 兒童은 아직 善惡의 判斷이 不明確하므로 옳고 그름을 가름할 尺度가 제시되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內面化할 수 있다. 그러므로 兒童文學은 상당히 직접적인 表現으로 善惡의 기준을 제시하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분하며, 倫理的인 것과 非倫理的인 것을 나누는 것이다. 요컨대 兒童文學은 形成中인 人格으로서의 兒童을 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더 目的的인 것이다.

만약에 그 社會가 指向하는 人間像이 달라지면 兒童文學은 어떻게 될까. 두말할 것도 없이 成人을 讀者로 豫定한 文學의 變化와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큰 變化와 차이를 보일 것이다. 특히나 이것은 文學에 있어서까지 一元的인 統制가 可能한 社會에서는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自由主義社會의 兒童文學은 그 社會가 요구하는—그러나 다분히 多元的 形態로—人間像을 추구하고, 社會主義社會의 兒童文學은 역시 그 社會가 要求하는 共產主義的 人間像을 거의 一元的 기준 아래서 추구한다. 社會가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두 세계의 文學 자체가 다른 목소리를 지니는 것에 더하여 위에서 말한 兒童文學의 特性上, 두 세계의 아동문학은 문학 일반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새 世代를 담당할 兒童에게 創意的이고 모험적인 幻想의 世界를 보여주는 것이나 아름다움을 찬양하도록 情緒를 함양시키는 점에서는 社會主義社會와 自由主義社會의 兒童文學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社會主義社會의 兒童文學이 指向하는 共產主義的 人間像이 自由主義社會의 이상과 다른만큼 社會主義 社會, 그 중에서도 北韓의 兒童文學이 추구하는 人間像은 自由主義社會의 이상과 큰 차이를 보인다.

自由主義 社會가 指向하는 人間像은 創造的이고 他人과 協力하여 調和로운 世界를 꾸밀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能動的이며, 人類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지닌 人間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創意的·創造的 思考를 조장하는 모험담, 未來世界의 이야기와 非現實的 사랑—예컨대 인어 공주이야기 등—의 이야기가 兒童文學의 많은 部分을 차지한다. 즉 自由主義 社會의 兒童文學이 指向하는 人間像은 創意的·能動的이며 協同과 和解

를 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調和로운 人間인 것이다.

反面에, 오늘날의 共產主義-社會主義를 표방하는-社會가 指向하는 人間像은 集團指向的이고 順應的이며, 階級的 차별성에 기초한 애정을 重視하는 人間이다. 따라서 개인적 모험담보다는 集團的 鬪爭, 非現實的 사랑보다는 具體的 現實에서의 團結, 普遍的 사랑이 아니라 階級的 차별을 선명히 그려내는데 兒童文學은 주력한다.

北韓의 兒童文學이 指向하는 人間像은 말할 것도 없이 共產主義的 人間像이며, 그들이 생각하는 共產主義的 人間像도 이와 같이 集團指向, 階級指向의 人間이다. 거기에 더하여 指導性에의 순종과 革命的 樂觀主義의 견지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北韓 兒童文學이 지닌 目的性을 두고서 北韓 兒童文學의 特性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文學이 지닌 目的性을 前提로 하면서 그 目的의 指向을 分析함으로써 그들의 特性을 규명하려 한다.

따라서 北韓 兒童文學이 지닌 기본적 성격을 살핀 후에 作品들의 全般的 경향을 分析하여 그들이 指向하는 人間像, 즉 社會化의 目的價値를 찾아냄으로써 그들의 特性을 규명할 것이다.

## II. 北韓 兒童文學의 基本性格

### 1. 情緒敎養의 도구

情緒란 기본적으로 好不好的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며, “情緒敎養은 후대들에게 고상하고 풍부한 政治 道德的 감정을 배양하고 自然과 社會生活 및 藝術分野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각하고 이해하며 日常生活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양함”<sup>1)</sup>을 의미하며, “새 것과 肯定的인 것, 아름다운 것과 애국적인 것에 대한 사랑과 감동, 넓고 부패한 것, 추악한 것과 반동적인 것에 대한 증오와 저주는 온갖 넓은 것을 극복하고 새 것과 아름다운 것을 이룩하며 革命勝利를 앞당긴다”<sup>2)</sup>는 점에서 情緒敎育은 重要性을 지닌다.

文學은 情緒敎養의 수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兒童文學 창작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情緒敎養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要求하고 있다.

북한의 情緒敎養의 基本課業은<sup>3)</sup>

첫째, 兒童을 愛國事業의 正當性과 必勝의 信念에 기초한 樂觀主義로 교양하는 것

둘째, 愛國的인 情緒, 階級的 자각에 기초한 人間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감정을 배양하는 것

셋째, 政治 道德的 感情(愛國心, 勞動愛好心, 友情과 同志愛)과 불굴의 革命투지를 형성, 발전시키는 것

넷째, 自然과 社會生活, 藝術分野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옹기 把握하고 理解하며 그에 대한 評價와 감상 능력을 형성 발전시키는 것

註 1) 「教育學」, (동경 : 학우서방), p.209.

2) 위의책, 같은 페이지.

3) 위의책, p.210.



다섯째,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能力을 發展시키며 藝術分野에서 必要한 기능을 배양하는 것

여섯째, 生活을 文化的으로 꾸리는 습성을 통하여 그것에서 환희와 낭만성을 배양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情緒教養에 이바지하는 兒童文學의 내용을 北韓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 그 하나는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고운 것과 미운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內容이고 다른 하나는 北韓의 社會主義制度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다.<sup>4)</sup>

兒童文學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고운 것과 미운 것을 대비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은 어린이들이 人間生活과 社會現象에 대한 표상을 가질 수 있게 하며 그들에게 政治思想意識을 싹틔워 주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sup>5)</sup> 때문에 北韓은 이러한 善惡의 二分法的 構造를 대다수 兒童文學에 適用시키고 있다.

또 어린이들에게 당의 위대성과 社會主義制度의 우월성을 똑바로 인식시키는 것은 그들을 당과 조국을 위하여 한몸바쳐 鬪爭할 줄 아는 共產主義 革命家로 키우는 데<sup>6)</sup> 必要하다는 認識下에서 北韓은 社會主義 制度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兒童文學 창작에도 진력하고 있다.

## 2. 革命的 世界觀形成의 指針

“勤勞者들과 靑少年學生들을 革命的世界觀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革命的인 文學藝術作品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sup>7)</sup>고 한 金日成의 말에서

註 4) 럽석만, “현대동화창작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문예론문집』 4, (평양 :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88).

5) 럽석만, 위의책, p.205.

6) 럽석만, 위의책, p.208.

7) 김일성 로작해설문고,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4).

表現된 바와 같이 北韓의 文學은 讀者들에게 革命的 世界觀을 심어주는 強力한 무기이며, 革命的 삶의 전형, 革命的 人間像을 제시하는 生活의 指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兒童文學에서도 철저히 구현된다. 兒童期나 靑少年期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발육이 왕성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바, 作品이 주는 감동을 쉽게 內面化하고 그를 모범으로 삼아 生活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질을 가진 兒童을 對象으로 하는 文學은 더욱 철저히 革命的인 것이 要求된다.

김일성은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革命的인 文學과 藝術은 人間生活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世界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라고 한다.<sup>8)</sup> 이 말은 北韓의 美的 觀念이 精神的·思想的인 것을 가장 우월한 美로 파악한다는 것과 함께, 革命에 복무하는 生活이 가장 美的인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兒童文學이 그려내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生活은 革命的 生活이고 이렇게 美化된 革命的 삶과 革命的 人間이 兒童들에게 肯定的으로 感化를 주어 兒童을 革命的 人間으로 키워내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 3. 社會主義的 事實主義 (Socialistic Realism)의 구현

北韓 文學藝術의 근간인 社會主義的 事實主義의 立場이 兒童文學에서도 준수될 것이 要求된다. 물론 社會主義的 事實主義가 무엇이나에 대해 本質的으로 따져들기로 한다면 여러가지 問題가 야기될 수도 있으나, 일단 北韓에서 대충 뭉뚱그려 넘어간 대로 “社會主義的 內容을 民族的 形式에 담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특히나 論爭거리인 民族的 形式도 暫定的으로 일반 大衆이 쉽게 익히고 이해할 수 있는 方式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범위 안에서 北韓의 兒童文學도 철저히 社會主義的 事實主義에 충실하다.

註 8) 「김일성저작선집」제 2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356 ~ 357.

非現實的인 소재를 써서 꿈과 幻想을 그려내는 兒童文學이 사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一次的으로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도 있으나, 리얼리즘의 진실성은 특정 인식 등가물, 특히 특정 장소와 시기에 社會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삶의 지배적, 전형적 특징들의 표현에 의해 성취되고 판단되는 것<sup>9)</sup>이라고 할 때, 北韓의 兒童文學만큼 철저히 전형성 -typicality- 을 추구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北韓의 兒童文學이 事實主義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北韓의 兒童文學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善惡의 二分法的 構造(dichotomic structure)를 견지하고 있으며, 선한 것, 선한 사람과 나쁜 것, 나쁜 사람은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이것은 童話나 傳說 혹은 단편 소설 등 줄거리를 지닌 모든 兒童文學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時代的 삶의 典型性的 獲得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장식을 부가한 성인문학에서보다 때로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社會主義的 事實主義에서 要求하는 黨派性-北韓의 黨性-人民性, 계급성 등도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으며, 北韓이 要求하는 非妥協性은 성인문학에서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묘사되어 있다.

즉 北韓의 兒童文學은 社會主義的 事實主義가 요구하는 黨性, 階級性, 人民性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고, 그 事實性도 고도의 典型性的 획득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社會主義的 事實主義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註 9) 마르크스·엔겔스, 「문학예술론」, 김대웅역, (서울: 한울출판사, 1988), p.56

### Ⅲ . 北韓 兒童文學의 實際

#### 1. 傳說과 說話

北韓의 兒童文學, 특히 줄거리를 위주로 하는 Story-telling 의 文學에 있어서는 그 時代背景에 따라 나타내고자 하는 主題도 확연히 달라진다. 즉 까마득한 상고시대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說話나 傳說의 主題와 抗日革命期 또는 封建時代의 主題가 다르며, 現在의 社會主義體制時代의 主題도 다르다.

階級以前의 社會나 階級の 存否가 問題되지 않는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傳說이나 說話에서 代表的이고 전형적인 主題가 協同, 集團主義, 권선징악등 人類 普遍的 가치를 주로 추구하고 있음에 비해, 階級形成 以後, 혹은 封建時代의 이야기는 反官·反地主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설이나 설화도 두가지 유형으로 다시 나누어질 것이다. 즉 無階級的 立場의 전설·설화와 階級鬭爭의 立場의 傳說·說話이다.

北韓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자주 인용되는 傳說은 대동강의《설암리전설》이다. 이 傳說의 Plot 은 우리에게도 낯익은 것으로, 어부에게 잡힌 잉어를 가없이 여겨 대동강에 놓아주자, 자기의 아들인 잉어를 살려준 데 대한 報應으로 용왕이 소원을 성취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의 통속적 줄거리와 달라진다. 용왕이 소원을 묻자 이 青年은 해마다 대동강이 범람하여 많은 災害를 내는 것을 생각하여 당시의 심한 彎曲狀態의 대동강 水流를 現在의 狀態로 돌려줄 것을 要求한다. 그리하여 대동강의 洪水가 없어졌다는 것인데, 이 傳說이 北韓에서 거듭 인용되는 것은 철저한 集團主義의 한 표본이기 때문이다.

또 《연못가의 통소소리》라는 옛이야기<sup>10)</sup>에서도 集團主義 즉 個人的

註 10) 「재미나는 옛 이야기」(Ⅱ), (평양; 근로단체 출판사, 1986)

안락보다 集團의 平安을 추구하는 精神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줄거리 역시 前半部는 우리에게 낯익은 짐승의 人間變身과 人間과의 사랑을 그리는 것이다. 그러나 人間으로 변한 고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다시 연못으로 돌아가게 된 契機가 고기의 陸地生活로 인한 연이은 가뭄과 人民의 고통에 있다는 점이 우리의 個人的 契機 중심의 說話와 다르다.

黃海南道 장연 용정의 傳說이라는 《용정전설》<sup>11)</sup>도 黃龍과 靑龍의 싸움에서 청룡을 도와 준 김무달이 그 報恩으로 거처른 荒無地를 沃土로 바꾸어달라고 하여 모든 백성들이 함께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內容으로, 역시 集團主義에 充實하다. 이러한 類의 傳說・說話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는 北韓이 既存의 개인구복적 傳說을 재해석・創造하는 과정에서 集團主義原則을 강화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傳說・說話 중에서도 地主가 形成된 이후의 이야기는 主題가 다르다. 이때는 철두철미 反官・反地主의 主題를 지닌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망부석傳說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사랑산과 절부암》<sup>12)</sup>의 경우,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은 地主가 그 아내를 탐한 데서 꾸며진 음모요, 아내가 돌이 된 것도 地主에게서 순결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變型되어 있어 反地主에 더 큰 강조가 주어져 있다.

《대바른 섬처녀》<sup>13)</sup>도 맷돌이 아니라 돌화로이긴 해도 “바다가 왜 짠가”하는 혼한 이야기이다. 섬처녀가 고아를 구하려 努力한 댓가로 하늘로부터 얻은 돌화로를 강제로 뺏으려던 지주가 소금이든 돌화로를 멈추지 못해 溺死하고, 그러고도 소금이 계속 생겨나 바다가 짜다는 줄거리이다.

---

註 11) 《김무달이 날린 화살》, 위의 책.

12) 위의 책.

13) 「재미나는 옛 이야기」Ⅲ, (평양:근로단체 출판사, 1987)

여기서도 地主의 횡포가 讀者의 증오를 유발하기 足하다.

《이전 누구 주먹이요?》<sup>14)</sup> 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는 이야기는 실상 오성과 한음으로 익히 알려진 이항복의 일화를 각색한 것이다. 여기서 옆집 권대감은 地主인 박주사로, 항복은 下人 노마로 주인공이 바뀌어져 있다. 즉 地主인 박주사가 옆의 소작인인 노마네 집 감을 함부로 따먹는 데 대한 노마의 通快한 보복이 줄거리를 構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傳說과 說話는 階級的 問題를 떠나서는 集團主義精神을 주제로 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외 孝, 信義에 관한 것이 가끔씩 눈에 띄일 뿐이다. 그리고 地主의 出現 以後엔 철저히 反地主的인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오늘날 國民倫理 수업등을 통해 많이 지적된 事實이긴 하지만, 아동을 對象으로 하는 童話나 傳說에서까지 그 용어가 사뭇 원색적이라는 事實이다. 地主를 단순히 地主라고 稱하는 例란 결코 없고 언제나 “地主놈”으로 표현된다.

또한, 地主는 용서받거나 구제받는 例가 없다는 事實이다. 現實的이거나 事實的일 必要가 없는 傳說이나 童話에 있어서는 事實과 無關하게 地主는 머슴이나 下人들에 의해 처단되거나 죽음을 당하고, 혹은 天罰을 받아 패가망신한다. 地主에 있어서는 개과천선도, 용서나 화해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北韓 兒童文學의 철저한 非妥協性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2. 단편소설

단편소설의 경우 동화나 傳說보다는 조금은 더 現實性을 要求받는다. 따라서 무조건 主題를 一方的으로 끌고가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설령 단편소설이라 하더라도 兒童단편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未知의 世界, 모험

註 14) 「우리나라 옛 이야기(1)」— 피동이의 지혜, (동경 : 학우서방, 1980).

의 世界, 鬪爭과 열정의 世界를 보여줌에는 동화와 根本的 차이를 갖지 않는다. 아동단편의 경우 동화·우화 또는 傳說과 달리 背景이나 狀況 묘사가 보다 具體的이어야 하며 人物의 性格이 보다 확연히 묘사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要求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동단편은 개연성 높은 時間的·空間的 背景의 摘示가 必要하다. 北韓 아동단편의 時代背景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抗日鬪爭時期, 또 하나는 韓國戰爭時期,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北韓 社會主義 建設로부터 現在까지의 時期이다. 그 외에 封建時代나 現代의 南韓을 背景으로 한것도 있으나 主宗을 이루는 것은 위의 세 시기이며, 이 시기의 차이에 따라 童話·傳說에서와 같이 主題가 확연히 區分된다.

우선, 抗日革命時期를 背景으로 한 作品은 反日·反地主 즉 反日·反資本主義를 근간으로 하고, 거의 例外없이 위대한 “김일성장군”에 대한 喜모가 主題를 構成하고 있다.

단편《동선이가 붙인 뼈라》<sup>15)</sup>는 抗日선전 뼈라를 붙이던 아동단원 동선이가 체포된 後, 감방에서 日帝의 악독한 고문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것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그런데 不屈의 鬪爭을 그린 이 作品에서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部分은 오히려 뼈라의 內容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뼈라는 김일성의 위대한 승리와 國民들에게 계속적 鬪爭促求를 알리는 것이며, “동선이가 붙인” 마지막 뼈라는 실제로 뼈라를 붙인 것이 아니라, 日帝의 회유, 협박에 흔들리는 다른 사람들을 向해 감방 壁에 손톱으로 새기는, 김일성장군의 목소리인 것이다.

또 《조약돌》<sup>16)</sup>도 김일성에 대한 찬양과 喜모가 作品의 前提가 된 것이다. 이것은 가난한 소년이 강제징용으로 끌려나갔다가 病을 얻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현해탄을 건느는 배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소년의

註 15) 「단편집 조약돌」, (평양: 금성청년 출판사, 1977).

16) 위의 책.

보통이에 든 조약돌은 바로 조국강토에 대한 애정이다. 이 조약돌을 日人 감부의 딸이 탐을 내고, 감부는 돈으로, 日警은 위압으로써 그 돌을 빼앗고자 시도하게되나 소년은 끝내 그것을 거부한다는 內容이다. 그러나 줄거리에 상관없이 김일성의 위대성은 作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예컨대 선실 천정에 “김일성장군 만세”라는 벽보가 붙어있어서 日警들이 두려움에 떨다거나, 마지막 순간에 소년이 “백두산에 가서 다 이룰거야”라고 외치자 日人들이 위축되더라는 대목 등으로, 日人들조차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을 정도로 김일성이 위대했다고 묘사한 것이다.

그와 관련되어 김일성의 母親 강반석을 이상화한 것도 많은데, 단편 《설날》<sup>17)</sup>은 日帝下의 만주에서 굶주린 韓人들에게 설을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강반석을 그린 것이다. 여기서 강반석은 非論理的이리만치 자상하고 따뜻하며, 모든 것을 헤아리는 “진정한 어머니”로 구현되어 있다.

두번째로, 韓國戰爭 당시를 그린 아동단편에서는 反美, 反資本主義가 主題를 이루는 가운데, 不屈의 정신으로 “원썩들”과 싸우는 아동단원들이 영웅적으로 형상되어 있다.

《영웅의 아들》<sup>18)</sup>은 戰爭중에 부상당한 기관사가 기차에 물을 供給하는 後方 급수탑에서 계속 戰爭에 參與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의 아들 정호는 영웅적 위훈도 세우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를 불만스레 바라보는데, 우연히 듣게 된 영웅적 기관사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에 놀란다. 그때 급수탑이 爆擊으로 구멍이 나서 물이 마구 새게 되자, 정호는 아버지의 호통과 自身の 결기로서 온 몸으로 구멍을 막는다.

《복수 기록장》<sup>19)</sup>은 戰死한 아버지의 복수 기록장을 이어쓰는 영철이 나이를 속이고서도 억지를 부려가며 입대, 정찰조에 어거지로 끼어든

註 17) 「단편집 아동단원 상호」, (평양: 조선청년사, 1981).

18) 「조선아동문학문고 2」- 어린불새들(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0).

19) 위의 책.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원썬들》<sup>20)</sup>은 보다 複雜한 주제를 보여주는데, 反資, 反美, 反南韓이 하나로 녹아있다. 그런데 이러한 作品들에서 보여지는 反資本主義는 土地의 私有와 地主의 存在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한껏 조장하고 있다. 《원썬들》속에서 옛날 지주의 아들 - 간첩으로 北韓에 殘留한 - 에게 하는 美軍의 말이 이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 즉, 그 “美帝놈”은 “공산군은 저 소나무처럼 바위 위에도 뿌리를 박는다는 걸 명심하시오, 北朝鮮을 完全히 점령하기 위해서는 共產軍의 씨까지도 없애야 합니다. 종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리시오. 그래야 北朝鮮 사람을 영원히 우리의 노예로, 머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서 보여지는 가공할 잔인성과 영원한 지배욕이 北韓 兒童文學에서 등장하는 “美帝”의 전형적 속성이다. 이는 또한 前地主들의 끝없는 反動的 욕구이기도 하며, 따라서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항시 긴장해야 하는 것을 強調한다.

抗日鬪爭期の 兒童들이 한결같이 조국해방을 위해 어른들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 굳굳하게 鬪爭을 전개한 것처럼 戰爭期の 兒童들은 때로는 나이를 속여가며 입대하거나 혹은 後方에서 적의 後方 교란에 對應한다. 또 戰鬪備品을 수송하는 데 參與하거나, “탱크놀이” 등으로 긴장을 維持하고 戰爭演習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歷史的 역경 속의 兒童들이 歷史의 主人公으로서 能動的으로 現實에 대처해 나가는 이야기는 자못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더구나 이러한 시련의 이야기들은 讀者의 人間的 情緒에 호소하는 애절한 사연, 피맺힌 원한을 하나씩 지니고 있어, 분노와 연민을 통해 鬪爭하는 兒童들에 共感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兒童文學과 北韓 兒童文學의 두드러진 차이점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民族的 시련기의 兒童을 形象한 方式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

註 20) 「단편집 조약돌」(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77).

점에 있어 우리의 兒童文學은 보다 現實에 充實하여 敗北와 좌절을 그려내거나, 그나마 아예 삭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즉 우리 兒童文學에는 歷史的 시련기를 正面으로 形象한 作品이 부족하고, 차라리 戰爭期 避難生活의 고달픔을 이겨내는, 요컨대 지극히 個人的 고난을 승화시킨 作品만 눈에 뜨인다. 이는 日帝下의 生活이나 戰爭期 모두에 共通的이다. 이에 비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北韓의 兒童文學은 황당하리만큼 革命的 樂觀主義에 충실한 主人公을 그려내고 있다. 日帝下 그 간고한 시기의 이야기에 도 종국적 좌절은 없으며, 김일성이라는 超人的 지도자의 存在하나로도 충분히 모든 것은 希望的으로 考慮되고 있다. 戰爭期の 兒童들도 굶주림과 결핍에 위축되고 精神的 外傷을 입기보다 歷史的 使命感을 갖고서 “원썩들” 과 正面으로 對決하고 있다.

이것은 北韓의 文藝政策이 指向하는 革命的 樂觀主義와 集團主義의 발양이라는 根本原則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고, 戰爭에 대한 南北韓의 認識차이에서 오는 것이기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北韓에 있어 戰爭이란 “우월한 社會主義 制度”를 崩壞시키려는 “美帝 승냥이”들과 “남조선 주구”들의 음모에 맞서 싸워 승리한 “祖國解放 戰爭”인 것이요, 南韓에 있어 戰爭은 영문도 모르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父母兄弟가 눈 앞에서 피투성이로 죽어간 엄청난 재난이었으며 어린 가슴에 惡夢으로 새겨진 精神的 外傷인 것이다. 따라서 戰爭에 對應하는 人物의 樣式이 판이할 수밖에 없었다.

民族에게 決定的 의미를 갖는 歷史的事件에 대한 南北韓의 態도의 차이와 그에 따른 反應樣式의 차이는 차후 보다 깊이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終戰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時期를 그린 作品은 社會主義 建設의 希望찬 모습, 戰爭의 상처를 굳건하게 이겨나가는 集團的 行動樣式, 社會主義建設의 모든 時期, 모든 장소에서 간여하는 超人的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의 위대성, 남한 資本主義의 병폐 등을 그려내고 있다.

단편소설 《아버지》<sup>21)</sup>에서는 戰爭中에 暴彈 파편에 부상당해 달리기를 할 수 없던 덕남을 治療해준 김일성의 자상한 “은덕”이 묘사되어 있다. 덕남은 아버지가 낙동강戰鬪에서 死亡한 “革命遺子女”였으나, 아버지를 대신한 김일성의 배려로 누구보다 밝고 환하게 성장한다. 그러나 김일성도 參觀한 學校體育會의 사람찾기 경기에서 아버지를 찾아오라는 쪽지에 덕남은 잠시 아연한다. 그러나 곧 덕남은 주석단으로 달려가 김일성 앞에 선다. 그리고 이를 눈치챈 김일성이 아무말 없이 환히 웃으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여기서 김일성은 햇빛보다 환하고 어떤 아버지보다 자상한 아버지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같은 冊에 수록된 단편 《소년단인사》<sup>22)</sup>가 있다. 戰爭때의 부상으로 인해 소년단인사를 하지 못하던 戰爭고아 민호를 治療해 주어 자랑스런 위병으로 키워내는 김일성의 恩惠가 감동적으로 묘사된 作品이다. 이렇게 戰爭고아나 戰爭 유자녀, 혹은 戰傷 아동을 보살피는 김일성을 그린 作品은 무수한데, 한결같이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근원적 治療와 배려를 김일성이 完璧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가히 김일성은 全知全能하고 자상한 하느님과 같은 存在인 것이다.

이렇게 戰後 복구와 건설기의 김일성을 그린 作品에서 느껴지는 全體的 雰圍氣는 참으로 따뜻하고 감동적이다. 北韓 兒童文學 전반에서 느껴지는 거치르고 戰鬪的이며 비참한 雰圍氣는 전연 없다. 北韓 兒童文學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이며 감동적인 作品은 어린이를 생각하는 김일성의 모습을 그려낸 作品들이라고 해도 결코 그릇되지 않을 것이다.

또 社會主義建設에 적극 參與하는 兒童들의 모습을 그린 것들도 많다.

최병환의 《꼬마 척후병》<sup>23)</sup>은 고원지대의 농사를 잘 짓도록 不足한

註 21) 「조선아동문학문고 1」-영원한 불빛,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79)

22) 김일철, 위의 책.

23) 위의 책.

資材에도 불구하고 기상관측을 시도하는 꼬마 기상소조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그들은 장비도, 이론도, 技術도, 經驗도 없기 때문에 試行錯誤를 거듭한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심지어 꿀벌의 行態까지 관측하는 열성을 보이는데, 이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唯一한 어른이 김일성이라는 지나친 김일성우상화는 論外로 하더라도, 이렇게 社會主義建設에 能動的, 積極적으로 參與하는 兒童들을 그린 作品도 꽤 많다. 그리고 이들 兒童들의 行態에서 가장 強調되는 것은 集團主義와 革命的 樂觀主義이다. 社會主義建設에 參與하려는 어린이들을 어른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어린이들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연발한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社會建設에 아동이 主役으로 參與하는 것, 이것이 社會主義建設期 兒童文學의 전형적 모습이다.

굴하지 않고 未來를 準備하는 兒童은 단편 《확대경》<sup>24)</sup>에서도 나온다. 영호는 동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시골의 소년으로, 개구리 해부 등 어른이 보기에 개구진 장난을 많이 한다. 영호가 擴大鏡을 사달라고 아저씨를 조르지만, 선뜻 擴大鏡을 사주지 않았던 것은 어른의 몰이해 때문이다.

그러나 영호는 그에 굴하지 않고 조그만 擴大鏡으로 動物과 곤충을 열심히 觀察한다. 그러한 樂觀적이고 積極적인 자세가 未來를 準備하는 어린이들의 典型인 것이다.

또 集團主義를 고무하고 個人主義를 비판하는 作品도 김일성 찬양이나 社會主義建設에 參與하고 未來를 設計하는 이야기에 못지않게 많다.

단편 《무지개 폭포》<sup>25)</sup>는 소년단 야영生活에서 일어나는 두 소녀의 갈등을 그리는 데, 個人的 영예에 연연하던 순애가 集團의 영예를 우선

註 24) 한기석 《확대경》, 월간「아동문학」, '88.3월, (평양: 문예출판사, 1988).

25) 김정희 《무지개 폭포》, 월간「아동문학」, '88.1월, (평양: 문예출판사, 1988).

시하는 선녀에게 감화받는 과정을 보여준다. 集團의 영예속에 자신의 기쁨과 영예가 있다는 主題는 거의 모든 作品中 다 소간에 다 나타난다.

박춘삼의 《그들은 같은 날 입대하였다》<sup>26)</sup>도 개인 영웅주의를 경계한 것인데, 같은 날 입대한 두 병사가 한명은 個人的 위훈에 연연하다 오히려 事故를 쳐서 같은 날 진급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이런 作品들과 달리, 南韓社會를 그린 作品은 암울하고 비관적 삶을 보여주고 있다. 不屈의 투지로 “파쇼도당”에 대항은 하지만, 그들의 勝利가 北韓에서처럼 確實히 보장되지 않는 탓에 南韓의 兒童은 비극적 모습으로 形象되는 것이다.

단편 《순이는 이겼다》<sup>27)</sup>에서는 가난한 소녀 순이가 卓球選手로 자라는데, 순이를 卓球選手로 만든 사장은 오로지 美國人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國家的 自存心”이 걸린 美國소녀와의 卓球競技에서 일부러 저졸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美國人들의 주제넘는 오만에 분격한 순이는 핍박에도 不拘하고 결국 마지막 세트를 21 : 0으로 승리한다. 이 作品中 묘사된 南韓 社會의 資本家들은 無識하고 탐욕스러울 뿐 아니라 美國人에게 꿈쩍 못하는 매국적 매관자본가이고, 勞動者들은 굶주림과 非人格的 처우에 흑사 당하는 가련한 人民으로 나온다. 그 위에 군림하는 “美帝”의 횡포는 日帝의 횡포보다 더 심하다.

兒童文學뿐 아니라 北韓文學에 묘사된 南韓社會는 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黨의 政策에 의해 통제된 結果이기도 하려니와, 作家들 자신이 南韓社會에 無知하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分析이 나온다. 南韓社會를 묘사한 大部分의 作品이 南韓의 비참함을 과장하다 못해 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다.

---

註 26) 「단편집 조약돌」, (평양 : 금성청년출판사, 1977).

27) 위의 책.

南韓의 教育制度나 生活水準, 生活 패턴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現代의 南韓을 그린 作品도 우리가 읽기에 까마득한 옛날, 혹은 戰爭 직후의 南韓에서나 可能함직한 空間을 背景으로 한 것이 많다. 이는 情報의 제약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종종, 北韓의 作家들이 치열한 作家精神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닐까, 안타까운 느낌을 주곤 한다. 왜냐하면 北韓의 文學은 大部分 Story-telling 에 급급하여 文章이나 構成에 있어 억지스러운 면이 많기 때문이다. 단순한 “이야기”가 文學이 될 수는 없으며, 이는 兒童文學도 例外가 아닌 것이다.

### 3. 童話·우화

北韓의 童話나 우화에서만큼 일관되게 樂觀主義와 집단주의가 추구된 예도 드물 것이다.

김용권의 《열 두 번 뜨는 해》<sup>28)</sup>는 社會主義 建設에 매진하는 천리마 시기의 北韓을 우화적으로 그린 것인데, 住民들의 밤잠자지 않는 열성과 끊이지 않는 建設의 트랙터소리에 태양조차 混亂을 일으켜 하루에 열 두 번 썩이나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해는 하루에 한 번 뜨지만 하루를 해(년)으로 쪼개여 새 기적을 創造하는 위대하고도 자랑찬 천리마의 나라-맑은 아침의 나라……”에서는 해조차 하루에 열 두 번씩 뜬다는 것이다.

또 《떠돌이 다니던 물음표》<sup>29)</sup>는 社會主義 建設의 希冀찬 時代에는 회의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물음표가 存在할 수 없다는 內容을 역시 우화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社會主義 社會에서는 樂觀적이고 肯定的인 느낌표

註 28) 김용권 《열두 번 뜨는 해》, 「조선아동문학문고 4」-행복의 동산,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1).

29) 허원길 《떠돌아 다니던 물음표》, 위의 책.

만이 存在可能한 것이다.

한편 《제일 큰 나팔》<sup>30)</sup>은 個人 영웅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가장 크고 빛나는 악기인 튜바가 自身을 과시하기 위해 거칠고 높은 소리를 냄으로써 行進自體를 망치게 된다는 것으로, 결국 모든 것이 集團 속에 용해될 때 진정한 自己 價値를 갖게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集團을 위해 犧牲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도 많다. 리성의 《가재형제》<sup>31)</sup>에서는 가뭄으로 苦痛받는 고기들을 위해 물길을 뚫는 아우가재 점박이와 自身을 위해 약초를 구하는 형 장수가재의 對比를 통해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마음이 참된 勝利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 4. 동요·동시

동요나 童詩가 人間情緒形成에서 갖는 重要性은 그것이 암송을 통해 持續적으로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상 선전이나 廣告의 결정적 要素의 하나가 反復인 것처럼 동시나 동요는 리듬을 지니고서 암송됨으로써 反復의 效果를 지니며, 따라서 持續적으로 影響을 미친다.

그러한 童話나 童詩를 살펴보면, 精密한 統計處理를 해보지 않더라도 最少한 80%는 김일성 찬양으로 채워져있음에 경악하게 된다. 아예 김일성 부자 찬양이 전제되지 않는 동시나 동요를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이다.

北韓의 경우 童詩나 동요도 서사적인 것이 많다. 본격적 서사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行跡을 그려낸, 그리고 그 行跡을 추모, 찬양하는 內容을 지닌 동요·동시가 많다는 것이다. 혹은 社會主義建設場에서 수고하는 언니, 형들을 본받고자하는 결의를 다지는 內容을 담고 있는

註 30) 리동섭 《제일큰 나팔》, 위의 책.

31) 월간 「아동문학」, '88.2월, (평양; 문예출판사, 1988).

것이다.

北韓 童詩作家로 높은 詩作頻度를 보이는 림철삼의 동요《다같이 신을래요》<sup>32)</sup>는北韓 童詩·동요의 한 典型이다.

할아버님 삼아주신  
새 짚신 신으시고  
밖에 나가 노시던  
어린 원수님,

저녁에 맨발로  
들어오시여  
할아버님 그 사연  
조용히 물으셨죠.

원수님은 두눈에  
걱정이 가득  
《짚신도 못 신은  
동무한테 주었어요》

⋮

— 중 략 —

⋮

《할아버님 오늘 밤도  
짚신삼아 주세요

---

註 32) 림철삼 《다같이 신을래요》, 월간「아동문학」, '88.4월, (평양: 문예출판사, 1988).



발 벗은 동무들  
다같이 신을래요》

또 리창주의 동요《밀영의 봄노래》<sup>33)</sup>도

처마끝에 녹이는  
고드름 보며  
지도자 선생님  
기뻐하셨네.

봄아 봄아 오너라  
빨리 오너라  
밀림에 쌓인 눈  
어서 녹여라.

봄눈처럼 토벌대  
녹여버리고  
장군님 밀영으로  
오실 새봄아.

....- 하 락 -

하고 노래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장편 기행련시가 作家를 바꿔가며 繼續 月刊「兒童文學」에 연재 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을 우상화하여 그의 行跡을 더듬는 이 기행련시《빛나라 향도의 자욱》은 1988年 1月부터 연재되기 시작, 1989年 7月 現在까지 繼續되고 있는데, 끝날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

註 33) 리창주 《밀영의 봄노래》, 월간 「아동문학」, '89.7월, (평양: 문예출판사, 1989).

北韓 文學界가 全般的으로 김정일찬양에 더 열을 올리거니와, 동요 - 동시로 정일봉, 김정일화 등을 노래한 것이 김일성만을 찬양한 것보다 점차 많아지고 있어 김정일의 지위강화와 關聯하여 주의를 끌고있다.

## Ⅳ. 兒童文學에 나타난 社會化의 目的價値

### 1. 革命的 樂觀主義

兒童文學이 目的性을 지니고서 社會化와 情緒形成의 메카니즘으로 作用한다고 할 때, 북한 아동문학작품을 검토해보면 북한 兒童文學이 兒童들에게 불어넣고자하는 社會的價値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혁명적 낙관주의이다. 모든 社會主義國家에서 그렇듯이 북한이 指向하는 共產主義的 인간의 必須要件은 革命的世界觀을 갖는 것이며, 革命的 낙관주의는 革命의 승리를 確信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革命的世界觀을 말한다. 이때 革命的이란 反資本主義, 反封建, 反帝國主義이며 非妥協的, 鬪爭的인 것을 뜻한다.

北韓의 教育과 文學藝術은 사람들이 革命的世界觀을 세우는데 이바지해야 하는데, 그 方法은 근로자들이 革命化, 勞動階級化되는 과정 및 革命化된 人間의 典型을 形象한 作品을 創作하는 것이다.<sup>35)</sup>

김일성의 연설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1970. 2. 17, 과학교육 및 문학예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의 연설)에서는 革命的世界觀이 형성되기 위한 4段階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단계는 인식단계로서 사회현상의 本質, 즉 저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反動的本質과 부패상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段階는 그 인식을 바탕으로하여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미워하는 사상을 갖는 것이며, 셋째 段階는 “온갖 원수들”을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社會인 社會主義,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심을 갖는, 즉 革命的 각오를 하는 段階이다. 그리고 마지막 段階는 어떠한 난관

註 35) 「주체 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평양 : 사회과학 출판사, 1975), pp. 62~63.

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갖고서 革命任務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을 익히며, 조국애, 인민애, 동지애와 革命的 조직규율을 준수하는 精神을 갖는 段階이다.<sup>36)</sup>

文學藝術은 사람들이 이렇게 革命的世界觀을 갖게 되는 과정, 段階를 보여주어야 하며, 동시에 이렇게 革命的世界觀을 갖게 된 사람들, 즉 革命的人間의 전형성을 보여주어 行動의 모범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北韓의 兒童文學은 위의 4段階 중 첫째 段階와 둘째 段階를 形象한 것이 많다.

현승남의 《원썩들》<sup>37)</sup>에도 地主階層의 악랄함이 잔인하게 묘사되어 있고, 옛이야기들은 대부분 모든 악역이 地主 혹은 良班官吏들로 設定되어 있다. 이러한 兒童文學에서 묘사된 地主와 支配階級은 잔인하고 탐욕스러우며, 또한 어리석은 인간 쓰레기들로 묘사되어 있다. 시대배경이 封建時代인 전설이나 說話의 境遇, 《비단녀와 천계꽃》<sup>38)</sup>에서는 地主의 탐학에 병들어 죽어가는 父母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쓴 비단녀가 천계꽃을 얻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나, 地主 엄가의 탐욕으로 천계꽃이 사라져버리고, 《온정터와 선녀바위》<sup>39)</sup>에서는 송아지 한마리 키우는 것조차 빼앗고 선녀조차 범하려는 탐학한 방어사가 나온다.

《바위로 변한 지주집》<sup>40)</sup>에서는 서말 빛에 3대째 머슴사는 처녀가 나오며, 《솔개논 이야기》<sup>41)</sup>의 지주는 官의 배경을 업고 솔개가 앉는 땅을 다 차지하는 어거지를 부린다. 《왜자세 이야기》<sup>42)</sup>는 地主 집의

註 36) 金日成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37) 「단편집 조약돌」.

38) 「재미나는 옛 이야기」(I),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86).

39) 위의 책.

40) 「재미나는 옛 이야기」(III),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86).

41) 위의 책.

42) 「우리나라 옛 이야기, (2)」, (동경: 학우서방, 1980).

여종이 잃어버린 송아지 한마리를 찾으려다 굶어죽는 이야기이며, 심지어 우리에게 익숙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도 욕심많은 사람은 地主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설이나 說話는 北韓에서는 地主와 소작농 혹은 머슴의 對立關係로 變化되어 전해지는데, 《금방울 은방울》<sup>43)</sup>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의 反地主的 變形인 것을 비롯, 《사랑산과 절부암》<sup>44)</sup>은 地主의 농간으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이야기로 망부석이 變形되어 있다.

이러한 兒童文學의 경향은 地主와 良班 등 착취계급의 잔학성과 부패상을 과장되게 그림으로써 封建主義와 地主로 代表되는 私的 所有의 가공할 해악을 그려낸다. 地主는 즉 土地의 所有者이고 富의 獨占者인 동시에 소작농이나 머슴의 인격까지 짓밟는 支配者로서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바, 만일 다시 資本主義的 私的所有가 許容된다면 예전의 地主들이 土地를 되찾아 인민을 착취할 것으로 경계를 준다. 이러한 作品들은 김일성이 제시한 현실인식 및 증오감 고취의 두 段階에 適合한 것들이다.

兒童文學은 아직 셋째, 넷째 段階, 즉 혁명의지와 革命的 각오의 形成 및 鬪爭方途의 知得과정까지는 보여주는 것이 많지 않은 바, 이는 兒童의 知的 水準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고, 兒童文學이 통상 중·단편으로만 創作되어 분량의 제약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편 「아버지를 찾는 소녀」<sup>45)</sup>는 抗日鬪爭期의 한소녀가 아버지를 찾아나서서 金日成의 兒童團에 入團하는 과정이 그려져있어 분량의 제약을 조금 벗어나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兒童文學은 兒童들이 장대한 줄거리를 소화할 能力이 없어 짧은 이야기로 제시되는 바, 革命的世界觀 形成의 셋째, 넷째 단계까지 보여주긴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혁명적낙관주의의 “革命性”이 이러한 反地主, 反官, 反帝라면 낙관주의는

---

註 43) 「우리나라 옛 이야기 (1)」, (동경: 학우서방, 1980).

44) 「재미나는 옛 이야기」(I),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86).

45) 분희준 「아버지를 찾는 소녀」,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2).

不屈의 信心을 뜻한다. 兒童의 知的 未熟을 고려하면 長期的으로는 승리한 다하여도 매 狀況에서는 패배한다고 말하게 되면 革命의 승리를 믿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兒童文學에서는 매 狀況에서도 구체적 個人이 승리하는, 혹은 승리할 뻔하는 것까지는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兒童文學에서는 史實과 無關하게 머슴이나 소작농이 地主를 타도하는 境遇가 많아진다. 즉 《온정터와 선녀바위》에서는 사랑하는 선녀가 방어사의 횡포로 죽음에 이르자 갑돌이 봉기하여 방어사를 척살하고 人民을 구출하는데, 이는 當時의 狀況으로 가능하지도 않았으려니와, 만일 방어사가 죽임을 당했다면 그 마을은 쑥밭이 되었으리라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그리고 잔피로 地主나 良班을 옥보이는 머슴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없이 많은데, 이는 人民의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人民은 必然코 승리하리라고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抗日革命期나 戰爭時期의 作品에서의 낙관주의는 더욱 선명하다. 이 境遇엔 매 戰鬥에서도 거의 승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승리에는 피어린 희생이 있어 원수들에 대한 감정적 증오를 북돋우고 있기도 하다.

《동선이가 붙인 뼈라》<sup>46)</sup> 나 《조약돌》<sup>47)</sup>에서는 그 지독한 日帝도 동선이나 가난한 소년을 굴복시키지 못하며, 《총소리》<sup>48)</sup>, 《달 뜰 무렵》<sup>49)</sup>, 《순희》<sup>50)</sup>에서도 어린이들은 가혹한 狀況을 용기와 인내로 이겨내고 임무를 완수한다.

하지만 이러한 兒童文學이 보여주는 革命적 낙관주의는 몹시 엉성하다. 우선 事實의 왜곡이 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감상적이어서, 종종 北韓 兒童文學 作家들의 作家的力量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위의 《순희》는 地主의 총을 훔쳐내는 순희를 그려내는데, 아슬아슬한 긴박감하나 느껴 지지

註 46), 47), 「단편집 조약돌」.

48), 49), 50), 「아동단원 상호」.

않을 정도로 쉬우며, 수없이 타도되는 地主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럼 왜 그토록 오래 地主制가 존속되었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人民의 지혜에 대한 맹신의 結果 잠시잠시 오류는 있더라도 착취받는 머슴, 소작농은 금새 革命的 集團意識을 보여주는데, 이는 非現實的이다.

그러나 兒童文學의 讀者가 未熟한 兒童임을 고려할 때, 그 과도한 單純化를 수긍할 수 있기는 하다.

요컨대, 北韓 兒童文學이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一次的 價値는 革命的世界觀으로서의 革命的 낙관주의이며, 이는 거의 모든 作品에 中心的으로나 주변적으로 심어져있다.

## 2. 集團主義와 勞動 愛好心

集團主義에 대한 강조 역시 두드러진다. 거의 모든 傳說이나 說話가 集團指向의 行態를 보여주는데, 善行에 대한 報應을 個人의 福보다 集團의 幸福으로 받기를 원했던 《대동강의 설암리 전설》이 代表的이다. 《무지개 폭포》<sup>51)</sup>에서처럼 集團의 영예속에 자신의 기쁨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個人 영웅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 地主에 대한 集團 對應의 성공, 他人과 斷節된 個人의 無力함 등의 形態로 集團主義는 모든 作品속에 하나의 前提로서 내포되어있다.

《빨간 구두》<sup>52)</sup>는 주인이 새 신을 신고 기뻐하는데 한 짝은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다른 짝이 없어지자 내심 기뻐하지만, 주인은 나머지 한 짝조차 신을 수없어 결국 외면한다는 것으로, 他者의

---

註 51) , 월간 「아동문학」, '88.1, (평양 : 문예출판사, 1988)

52) , 53) , 「조선 아동문학 문고 4」 - 행복의 동산, (평양 : 금성청년출판사, 1981)

存在를 통해서만 자신도 存在가치가 있게 됨을 우화로서 나타낸다.

또 《기러기》<sup>53)</sup>는 먼 길을 열을 지어 날아가던 기러기 중의 한 마리가 체력이 약해 대열에서 탈락하려 하자, 다른 한 마리가 자신조차 바다로 곤두박질치게 될 때까지 그 기러기를 업고 날아가는 것을 통해, 同志를 위해 목숨까지 거는 集團指向의 同志愛를 선명히 묘사한다.

위의 《기러기》는 북한이 바라는 人間의 典型的 모습이다.

북한의 아동문학에는 革命的樂觀主義와 集團主義가 아예 하나의 基本法則 혹은 前提條件처럼 構造化되어있는데, 이 《기러기》에서처럼 集團의 行路에서 결코 離脫하지 않는 것,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同志를 背信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결코 개인적 報應이나 찬양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종국에는 모두가 함께 目的地에 도달하는 것 등이 그 核心을 이룬다.

또한 북한 아동문학에서 그려내는 集團主義의 美德의 內容으로는 個人的 모든 行爲가 곧장 集團의 運命과 直結된다는 認識下에서 행해지는 “길 잃은 한마리 양”에 대한 마지막까지의 회유노력이다.

外國 동화 「15소년 표류기」를 번역한 듯한 작품으로, 김일성이 1930年代에 어린이들에게 革命的 樂觀主義와 集團主義 精神을 심어주기 위해 들려준 이야기라는 「열 다섯 소년에 대한 이야기」<sup>54)</sup>에서도 개인적 고집으로 集團을 이탈한 한 소년이 集團의 지도자인 성호의 이해와 노력으로 다시 集團으로 복귀하고 마침내 뗏목을 만들어 다시 무사히 귀환하는 내용이 있다. 이 작품은 굵은 主題로서는 革命的 樂觀主義의 典型이라고도 하겠지만, 集團生活과 그로부터 離脫하는 小集團의 연이은 試行錯誤 및 終局的 集團

註 53), 「조선 아동문학 문고 4」－ 행복의 동산, (평양:금성청년출판사, 1981)

54) 김일성 「열 다섯 소년에 대한 이야기」, (평양:금성청년출판사, 1981)



에의 복귀를 통해 個人主義를 效果的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集團主義 精神에 充實하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 作品에서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集團의 指導者인 성호의 人品 및 그에 대한 복종의 正當化 과정이다.

성호는 자신을 反對하는 소년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 안타까와하고,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헌신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를 다시 集團으로 끌어 들인다. 이 과정에서 성호의 指導性은 완전히 確保되는데, 이 대목이 눈길을 끄는 것은 集團主義라는 막연한 精神의 具體化의 하나가 지도성과 복종이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集團主義는 個人本爲의 思考를 비판하고 團體行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指導性과 그에 대한 복종까지를 함축한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지도자에의 복종이 집단주의의 指向點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集團主義가 이와 같이 指導性과 복종을 內包하기때문에 集團의 指導者의 品性에 관한 묘사도 많은 作品에서 눈에 뜨인다. 지도자의 品性은 김일성의 品性이라고 形象化된 것들을 原型으로 하는데, 자상하고, 뛰어난 예지력과 추진력을 지녔으면서 자신에 대한 反對者를 그 反對의 이유까지 이해하고 회유하려 노력한다.

이렇게 北韓 아동문학의 集團主義의 구현은 集團 對應의 위력, 他人과 斷節된 개인의 無力性, 集團에의 복종과 指導性 등을 具體的 內容으로 하는데, 이에 더하여 아동들에게 개인의 모든 行爲가 社會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戰爭期の 文學이나 抗日革命期の 文學에 등장하는 兒童이 非現實的일 정도로 不屈의 투지를 지니고 鬪爭할 수 있는 것은 아동의 사소한 行爲까

지가 集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동선이가 붙인 뼈라》에서도 동선이 끝내 굴복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그 귀절을 감옥 벽에 손톱으로 새기는 그 행위 自體가 社會的 狀況 및 他人 行爲에의 영향이라는 對社會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알기때문이다.

북한 아동문학이 이렇게 集團的, 社會的 가치를 重視한 당연한 귀결로 肉體勞動에 대한 愛好心의 함양이 다르게 된다.

集團主義와 勞動愛好를 別個의 價値로 두고 볼 수도 있겠으나, 육체적 노동을 고귀한 것으로 判斷하는 근거가 社會와의 연관에 있다는 맥락에서 보면 이 두 가치는 거의 하나로 묶여져 평가될 수 있다.

《꼬마영웅과 바람개비》<sup>55)</sup>에서는 인민학교 저학년 아동과 고학년 아동들이 등장한다. 고학년 아동은 나뭇의 體力과 知力을 바탕으로 열심히 社會主義建設에 참여하면서, 덩치도 왜소한 저학년 아동을 무시한다. 그런데 두 꼬마는 세멘트 한 푸대가 땅에 떨어져 비를 맞게 되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음을 몸으로 덮어 그 세멘트를 보호한다. 이는 사소한 세멘트 한 푸대까지가 社會主義建設의 資材라는 認識의 바탕위에, 단지 입으로나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方策—勞動—을 취함으로써 "꼬마 영웅"의 애칭을 얻게 됨을 그려낸 것이다. 社會의 모든 개인은 社會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온 몸으로 社會에 기여함이 당연한 것임을 훌륭히 표상한 作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아동문학 특유의 稚氣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요약한다면, 북한 아동문학의 集團主義 價値指向의 구체적 내용은 ① 集團에의 一體化 ② 指導性에의 복종 ③ 指導者의 品性,

註 55) 월간「아동문학」, '89. 6, (평양:문예출판사, 1989).

④ 집단의 위력과 개인의 無力 ⑤ 개인 행위의 汎社會的 — Societal — 영향, ⑥ 그에 따른 모든 개인의 육체적 헌신 등이라 하겠다.

즉, 북한 아동문학이 주입시키고자 하는 集團主義의 가치 조망은 Societal한 것이라 할 것이다.

### 3. 社會主義制度的 우월성

북한 아동문학이 아동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社會主義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세가지 類型으로 形象化된다. 하나는 과거지향의 것으로서 土地의 私有, 즉 地主制度下的 下戶民의 비참한 生活을 묘사함으로써 社會主義的 土地 共有 혹은 國有에 대한 正當化 類型이고, 다른 하나는 現代의 美國—美帝의 악랄함과 그에 의해 침탈되는 南韓民衆의 참상을 통한 反資本·反帝國主義 類型이다. 마지막 하나는 社會主義 北韓의 행복한 모습이다.

북한 文學 全般에서 끊임없이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土地의 私有이다. 反地主로 表現될 이러한 이야기들에 있어서 土地의 私有制는 곧장 貧富 격차와 직결되고 地主의 횡포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아마도 북한 주민들이 겪어온 歷史的 經驗이 朝鮮 封建制와 日帝의 가혹한 수탈로 깊이 각인된 것에 起因하기도 하려니와, 資本主義的 經濟의 편익을 누리볼 기회를 지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資本主義의 本質的 問題에 토대를 둔 社會主義의 우월성 도출이 不可能했던 것에 더 큰 原因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아동문학 뿐 아니라 북한문학 전반이 보여주는 社會主義의 우월성 주장은 社會主義에 대립되는 개념인 資本主義와의 비교에 의한 것이 되지 못하고, 기껏 土地 私有 및 封建 身分制와의 비교에

의한 것이라는 制約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북한 문학의 社會主義 찬양유형을 이해하는 기본 요건이 된다.

그러한 제약을 고려에 넣고서 볼 때, 북한 아동문학은 전술한 바 있듯이 土地 私有制의 부활에 대해 본능적 공포를 주입시키는데 노력한다.

아동용 그림책「지혜와 용감이」<sup>56)</sup>에는 얼룩이라는 강아지가 물어온 짚신이라는 일화가 그려져 있다. 북한에 잠입한 “美帝 첩자”가 고정간첩을 만나러 하지만 그 고정간첩은 이미 죽고 그 妻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前 地主였던 이 고정간첩은 짚신 속에 군사적 기밀이 든 지도와 자신의 前 土地文書를 숨겨두었던 바, 그의 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햇김에 한 짚의 짚신을 버리는데, 얼룩이가 아동단원인 지혜와 용감이에게 이 짚신을 물어다 줌으로써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 그림책은 南韓의 讀者에게는 몹시 당혹스런 것이 되리라 짐작되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에 사용된 용어의 난해성 — 一 號사봉공(p.140), 금성철벽(p.183), 전선과 후방을 연결하는(p.3), 혁명의 전취물(p.135) — 외에도 그 용어의 비속함과 전투성 — 一 年 농의 日常的 사용, 돼지다 등 — 이 섬뜩한 느낌까지 주기 족하기 때문이다. 또 이 책에 나온 잠입간첩과 고정간첩의 처가 서로 보물을 갖고 도망가려 배신극을 꾸미는 내용은 줄거리의 비속함과 아울러 인간 망종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前 地主나 反社會主義者의 人間性의 극단적 否定形像은 또 다른 우려까지 낳게 한다. 즉 普遍的 人間에 대한 신뢰와 人道的 사랑의 存在 可能性 자체가 우려되는 것이다. 이렇게 北韓의 문학은 보편적 인간애나 인도주의가 아니라 계급적 차별성과 비타협성을 기반으로 한 人間愛를 주입시키고 있다. 그러한 認識下에 성장한 兒童과 南韓의 아동이 서로 人間的 존엄

註 56) 「지혜와 용감이」, (평양:금성청년출판사, 1981).

성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차후 아동 社會化의 情緒的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한 심층 연구를 要求하는 대목이라 느껴진다.

이 그림책의 결론부분에서 지혜가 발표하는 영웅적 소견의 결어가 인상적이다.

“우리들은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는 계급적 원썬놈들을 끝까지 미워하며 그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야 합니다” (p.184)

약간 주제를 이탈했었던 바, 다시 돌아가서 이 작품에서도 보여지듯이 地主制의 부활에 대한 본능적 공포가 아동문학에서 그려지는 社會主義의 옹호고수의 불변의 가치이다. 사회주의의 붕괴나 약화와 지주 횡포 및 비참한 수탈의 再開는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다.

과거지향의 類型으로 反地主의 作品은 이 외에도 이미 여러편이 소개되었으므로, 현대의 남한의 비참함과 美帝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순이는 이겼다》<sup>57)</sup>의 作品 배경으로 출판년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1970년대 후반의 남한을 상정할 수 없다. 이 작품에서 순이는 無學이고 - 학교 문전에 가봤다는 이야기도 없다 - 體育館에서 일하다 주인 딸의 탁구 연습상대로 발탁되면서 탁구 선수로 성장한다. 물론 그 과정의 비참함은 말할 것도 없다.

1970년대 후반의 남한이 고도 成長期였다거나 義務教育이 실시되었다거나 하는 초보적 상식여부를 떠나서, 이 作品이 의도한 것은 빈부격차, 황금만능의 資本主義下의 貧民의 참상모사에 있다는 것으로 社會主義의 正當化 類型에서 代表的 作品이라 볼 수 있다.

---

註 57) 단편집 「조약돌」, (평양:금성청년출판사, 1977).

과거지향 및 현대 남한의 왜곡 표현을 떠나서 또 다른 유형이라 할 社會主義北韓의 행복한 生活相은 현재의 북한을 배경으로 한 모든 作品中 당연히 묘사된다.

《일요일》<sup>58)</sup>은 10年制 무상교육실시를 자랑하는 내용이고, 《해빛 받는 날》<sup>59)</sup>은 김일성이 학교를 세워 모든 아동에게 학교를 개방하는 기쁨을, 《영원한 불빛》<sup>60)</sup>은 사회주의 건설기의 전기절약운동에도 불구하고 학생 소년궁전은 불을 환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사회주의 북한의 아동의 天國的 生活를 그려낸다.

그 외에도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아무도 貧富격차에 의해 고통을 겪지 않으며 돈이 없어서 學校에 가지 못하는 아동도 없고, 사회주의 건설 희망에 事物들까지 벅찬 행복으로 들떠있으며<sup>61)</sup>, 모든 사람이 地上天國에서 사는 행복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나라<sup>62)</sup>라는 등으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찬양한다.

#### 4. 黨과 指導者에 대한 忠誠

북한의 모든 文學에서 黨과 지도자의 무오류성은 不變의 鐵則으로 作用한다. 兒童文學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동문학에 등장하는 모든 지도자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青年文學」이나 「朝鮮文學」과 달리 「兒童文學」誌에 수록된 作品에서는 詩나 童詩에서 직접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註 58), 59), 60) 「조선아동문학 문고 1」- 영원한 불빛, (평양:금성청년출판사, 1979).

61) 리원우, 《큰 고간 속에 생긴 일》, 「조선아동문학문고 4」- 행복의 동산, (평양:금성청년출판사, 1981).

62) 강효순, 《행복의 열쇠》, 위의 책.

경우 外에 동화나 소설 속에 金父子나 黨員이 등장하는 例는 드물다. 그러나 黨을 대신하는 아동단의 지도자들로 상징되는 黨과 지도자는 무오류의 存在이다.

아동들은 자기 나름의 判斷기준과 고집이 있기때문에, 學校나 자기 주위의 사람을 위해 잘 해보려는 行動이 결과적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주위의 兒童團員들은 그를 경원하고 꺼려하거나 싫어한다. 이럴 때 그 兒童의 逸脫行爲의 이유를 알아내어 주위의 아동을 감복시키는 것이 지도자들인 것이다.

즉 아동단의 지도자는 兒童의 心理를 이해하고, 根本的 原則의 범위안에서 아동을 올바르게 인도한다.<sup>63)</sup> 이때 지도자는 成人일 수도 있고, 혹은 兒童일 수도 있다. 이들 지도자의 共通點은 ① 黨의 原則에 철저한 것, ② 金日成, 金正日의 行跡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 ③ 자신이 지도해야 할 대원의 心理를 헤아리는 것, ④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설득시키려 애쓰는 것, ⑤ 끝끝내 黨의 意思, 혹은 兒童團의 목표를 指向시키는 것 등이다.

이를 뒤집어서 본다면, 아동들에게 指導者와 黨은 절대 오류를 범할 수 없으므로 그에 철저히 따르는 것이 자신의 어떤 判斷보다도 확실하게 社會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주입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의 궁극적 原型(Prototype)은 金日成, 金正日이다.

實話라고 소개된 《장자산의 꽃향기》<sup>64)</sup>에서는 김정일이 어린시절 장자

---

註 63) 이런 구성을 가진 단편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月刊 「兒童文學」에 수록된 단편(月 3~4편)中 한편 이상이 이런 주제이다.

김승호《시연회》, '88.1. 장명숙《고향의 밤》, '89.6. 등

64) 월간「아동문학」, '89.8.

산에 두그루 잣나무를 심으면서 잣송이가 주렁질 때 김일성을 모시고 와 보겠다고 말했던 것을 現實化시키기 위해 서로 애쓰는 정경이 묘사되면서 “당에 대한 충실성은 소년단원의 제일생명”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김정일의 孝誠이 곧 당과 김일성에 대한 忠誠과 同一視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동문학에서 아동들에게 우회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반복, 강조하는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다.

金父子 혹은 黨에 대한 충성의 묘사는 아동문학에서는 童詩가 90%의 역할을 점한다.

(전략)

아,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연풍호반에  
둥실 뜬 배 모양으로  
높이 세워주신 우리 야영소

(하략) .....

(문희서, 《사랑의 큰 배》)

(전략) .....

락원땅을 찾으신 지도자 선생님  
산소분리기를 만드는데 큰일했다고  
기술과 량심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왔다고  
가슴 속 깊은 소원 헤아려보시며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었대요.

(하략) .....

(박강윤 《우리집 명절날》)



(전략) ……

어린시절 선생님 발자취 어려있어  
그 모습도 장하다 정일봉 정일봉  
이른 새벽 군사놀이 장수힘 키우시고  
은하수 기우는 밤 고운 꿈 어려있네

(하락) ……

(염득복《아, 정일봉》)

간석지에 높게 세울 학교도면을  
책상우에 넓게 넓게 펴놓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선  
마음으로 총계를 올라보십니다.

수첩을 든 설계가 아저씨를 보시며  
선생님은 나직이 일깨워주십니다.

— 인민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학공데  
층수도 계단도 너무 높지 않습니까?

(하락)

(문경환《다시 그린 도면》)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연모와 충성,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은  
운문의 형태로 아동들에게 전달되며, 그 주제는 위에서 보이듯이 具體的  
事件・事物을 통해 실감나게 그려진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아동문학이 아동에게 주입시키고자 하고 가치관은  
혁명적 낙관주의, 집단주의와 노동애호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및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등으로 요약된다.

## V. 結 論

북한의 아동문학은 情緒教養의 기본도구로 機能하면서 아동들에게 革命的 樂觀主義, 集團主義, 社會主義制度的 우월성, 黨과 지도자에 대한 忠誠 等の 直視을 주입시키는데 노력한다. 그들이 견지하는 創作의 原則은 社會主義的 事實主義이며, 철저한 黨性·階級性·人民性과 非妥協性的의 고수이다.

북한 아동문학의 성격을 이와같이 要約할 때, 우리는 아동문학이 아동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남한의 아동문학과의 비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아동문학을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 대비를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는 世界視이라 불려도 좋을 文學的 조망의 차이요, 다른 하나는 계급성이다.

북한의 아동문학이 견지하는 社會的 혹은 文學的 조망은 철저히 汎社會的(Societal)이고 集團指向이다. 반면 남한의 아동문학은 個人指向이다. 이것은 개개의 行爲를 構成하는 原因과 結果 모두를 판이하게 조명하게 하며, 따라서 善惡·好惡의 기준을 다르게 한다.

북한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투쟁은 더없이 숭고하며 자기 자신의 안락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더없이 저속하고 사악한 것입니다. 영웅적인 것은 이기적인 명예욕을 배격하고 고결한 혁명적 양심을 지향합니다" 65) 라고 明言한다.

즉, 집단적, 혁명적인 것은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개인적, 안정적인 것은 저속, 사악한 것이다. 이런 善惡의 명백한 二分(dichotomy)이 북한 아동문

註 65) 조선중앙방송, '89.9.19, 《고상한 미학관을 가지는 것은 혁명가의 품모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 제하 논설

학에는 견지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아동문학은 계급성을 고수한다. 여기서 말하는 계급성은 社會主義的 事實主義의 한 내용으로서의 계급성일 뿐 아니라, 그를 벗어나 資本主義 혹은 地主와의 對決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그들의 立場인 것으로, 자본주의, 수정주의 등과의 대결에서는 결코 용서나 화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階級性의 고수에서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非妥協性 즉, 용서와 화해의 不在이다. 아동문학이라 이름매겨진 作品들의 곳곳에서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들"이 수차 언급되는 점이다. 地主·資本家は 결단코 회개·용서되지 못할 존재로 묘사된 점은 전율을 느끼게까지 한다. 지주나 자본가, 그들의 자손까지 社會主義制度만 붕괴되면 다시 사악한 옛날의 착취자로 돌아오기 위해 버르고 있다는 인식은 人間의 보편적 善性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人間觀까지의 二分法的 思考를 보여준다.

이렇게 集團指向의 思考와 그 귀결인 指導者에의 맹목적 忠誠 및 資本家·地主에 대한 철저한 투쟁·비타협의 기준하에 社會화된 정서를 가진 북한의 아동은 장차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인가? 이는 차후에 사회심리학적 견지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러니와, 전술한 바의 목적을 지닌 북한 아동문학은 自由主義的 視點을 유보한다면 자신들의 목적을 십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人間觀의 二分法的 思考가 완화되고 人間의 보편적 善性에 대한 신뢰가 形成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진정 아름다운 것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하는 점에서, 장래의 北韓 아동문학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를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코자 한다.